동서문명사의 이해



2019년 2 학기

중 원 대 학 교

담 당 교 수 소 개

<< 담당교수 >>



ㅇ 성 명 : 구 자 봉 (종교문화학과 교수)

ㅇ 연 구 실 : : M2- 610

ㅇ 강 의 실 : M2- 701 및 M2- 709

ㅇ 휴 대 폰 : 010 -6380 - 8877

ㅇ 메 일 : fieldtop@hanmail.net

<< 학 점 >>

- 중간고사 : 30점
- 기말고사 : 30점
- 출석점수 : 20점
- 과제점수 : 20점(중간고사 전 후 제출)

  * 리 포 트 제 목 : 추 후 공 지

- 합 계 100 점

- 교 재 : 없음

문명의 기원

문명은 인류 문화사에서 고도로 발달한 사회적 · 정치경제적 구조를 지닌 사회나 그러한 사회의 발전 단계를 의미한다. 문명을 뜻하는 시빌리제이션(civilization) 혹은 이에 대응하는 여러 서양 어휘는 도시 또는 국가를 뜻하는 라틴어 키비타스(civitas)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문명이란 고대 서양인들이 주변의 여러 집단보다 자신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와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여겨 스스로를 차별적으로 높여 부르던 것에서 기원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통용되는 문명의 개념은 19세기에 다양한 인간사회의 기원과 변화, 발전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되었다.

고대 이래 서양에서는 서양 사회가 늘 문화의 정점에 서 있었으며, 서양의 역사적 · 문화적 경험이 문화 진화의 보편적이며 유일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양한 사회와 문화의 발생과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 19세기 학자들은 이러한 서양 중심의 시각에 서서 원시적 수렵 · 채집 집단에서 유럽 산업사회에 이르는 세계 각지의 사회를 사회적 발전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하고 나열해 문화 진화의 보편적 과정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한 설명의 대표적 사례로는 모건(Lewis Henry Morgan)이 『고대사회(Ancient Society)』에서 내린 결론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인류 문화는 야만, 미개, 문명의 세 단계를 거쳐 진화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용례와 더불어, 문명은 문화 진화의 특정한 단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에서도 중화(中華)라는 개념이 대변하는 문화에 대한 우월감과 자기중심적 세계관이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지만, 특정한 보편적 사회발전 단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의 문명과 유사한 용어와 개념은 제시된 적이 없다.

문화 진화에 대한 모건의 정의는, 현재의 시각에서 보자면 자료의 제약과 당대 영 · 미 사회의 가족관과 사회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할 수 있다. 즉 문명의 개념은 그 바탕에 19세기 서양 사회 혹은 고대 이래의 서양의 문화를 궁극적인 사회발전 단계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서양 문물의 수입과 실행을 문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뜻의 개명(開明)이라는 어휘가 19세기 말부터 널리 쓰였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한자 문화권에서 문명은 서양의 근대적 문물과 제도, 혹은 그러한 문물과 제도를 갖춘 사회와 동일시되었다. 문명이 지니는 서양 중심적 함의는 현대문명, 기술문명 등의 일상용어에서 보듯 오늘에도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다.

문명의 기원

문명이 19세기 서양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바탕을 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의는 자의적일 수 있다. 문명이 일반적으로 각종 사회제도나 경제행위, 예술이나 종교, 물질문화가 고도로 조직화된 복잡한 사회체계를 가리킨다고 해도, 문명으로 정의할 만한 수준의 성취에 대한 판단은 논자나 논의의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슈펭글러(Oswald Spengler)와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는 『서구의 몰락』과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사는 각각 8개와 26개의 문명에 의해 이끌어졌다고 하였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문명을 한 시점에 인류가 이룩하고 누린 보편적인 문화적 · 기술적 성취 및 그 밑바탕으로서의 역사적 경험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문화적 성취를 기준으로 그러한 기준에 다다른 특정 시점과 지역의 특정 사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볼 것인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20세기 말의 범세계적 · 정치적 상황을 위해 도입된 문명의 충돌이란 개념이 페르시아 전쟁을 규정하는 개념으로서의 문명의 충돌과 모든 점에서 동일한 뜻은 아닐 것이다. 또 문명이란 문화와 동의어로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적 성취물의 성격에 따른 대립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문명과 문화는 모두 인지의 발달로 누리게 된 정신과 물질적 풍요로움의 사회적 상태를 가리키되, 문화는 종교, 도덕, 학문, 예술 등의 정신적인 부문을, 문명이란 기술이나 기계적 발달과 사회제도의 정비 등에 따른 경제적 · 물질적 부문의 풍요로움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문명은 인류 문화사에서 보통 정착 생활과 농경의 바탕 위에서 고도로 발달한 사회적 위계와 정치 · 군사 · 종교 조직을 갖춘 사회 혹은 그러한 문화적 단계를 가리키며, 그 시작은 대체로 도시와 국가의 등장과 동일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문명 단계의 사회가 각지에서 다양한 시점에 다양한 양상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를 뛰어넘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문명 단계의 사회는 상당한 범위의 지배 영역, 복잡한 사회구조와 조직, 도시, 권력의 집중화에 따른 부의 독점과 위계적 분배, 장거리 교역, 노동의 분화와 직업의 전문화, 수학을 비롯한 각종 과학의 발달, 문자 기록, 거대 공공건물이나 기념물, 극적으로 차별화된 지배계급의 장례 행위, 범국가적 수준의 종교체제 등과 같은 중요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문명의 기원

사회조직의 분화로 복잡한 사회질서 체계가 등장하고 집단과 집단, 혹은 지역과 지역 사이의 교류와 의존이 필연적으로 높아지게 됨에 따라, 문명 단계 사회의 생활양식은 그 이전 단계와 질적으로 달라졌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과 운명이 그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오늘날 중동의 정치 상황이 세계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식의 일은 문명의 시작 이후 피할 수 없게 된 것으로서, 이것이야말로 문명 이전과 문명 이후의 인류의 삶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라고 하겠다.

문명의 기원

이집트나 그리스 · 로마 문명을 제외했을 때, 세계 각지에서 처음 등장한 문명의 실체는 19세기부터 그 윤곽이 알려졌다. 서남아시아 지역의 고대 문물은 유럽 세력의 진출에 따라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약탈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1840년대에 이라크 북부의 코르사바드(Khorsabad)에서 아시리아 사르곤 왕의 궁궐 유적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19세기 후반 수메르, 마야, 미노아, 미케네 등 저명한 고대 문명이 속속 알려지게 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 각지에서의 활발한 고고학 조사에 힘입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나일 강, 인더스 강 및 황하 유역의 소위 세계 4대 문명 이외에도 중남미, 안데스 지역, 동남아 등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에 대해 알게 되었다.

문명이 성립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체계적 설명은 1920년대부터 제시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계되어 특히 중요한 인물은 영국의 고고학자 고든 차일드(V. Gordon Childe)이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와 나일 강 유역에서 알려진 고대 문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명의 기본 요소를 정의하고 문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장했는지 설명하였다. 즉 모건이 문화사적 발전 단계로서의 문명의 개념을 확립시켰다면, 차일드는 문명을 규정하는 구체적 증거의 기준과 문명 구성요소의 등장을 설명함으로써 오늘날 통용되는 문명에 대한 지식체계의 기초를 만들었다.

문명의 기원

차일드는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을 따라, 평범한 수준의 문화를 지닌 사회가 문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복잡한 체계로 변화한 것은 경제적 부문에서의 변화가 사회 모든 부문을 변화시킨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그는 기술이 발달하고 전문적 장인 집단이 등장함에 따라 야금술, 문자, 도량형, 대형 공공건축, 장거리 무역, 운송수단, 전문적 장인, 관개시설, 농경기술의 발달 및 잉여생산과 같은 중요한 문화 요소가 등장하고 보급되었으며, 그 결과 문명이 탄생했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고대 문명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농경의 발달에 따른 잉여의 축적이라는 바탕 위에서 서로 맞물리며 등장하고 발달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 계층화와 권력의 집중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고대 문명이 이룩되는 이러한 과정을 도시혁명(Urban Revolution)이라고 불렀으며, 도시혁명을 가능하게 해준 궁극적 요인인 농업과 정착 생활의 시작을 가리켜 신석기 혁명(Neolithic Revolution)이라 하였다.

즉 차일드는 빙하기의 종식에 따라 환경 조건이 호전되며 농경이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잉여가 발생하며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분화와 다양화가 가능해지고, 그런 바탕 위에서 문명이 탄생했다는 설명을 제시한 것이다.

그의 설명은 1950년대까지 문명의 기원에 대한 거의 유일한 체계적 설명이었으며, 문명의 기원과 관련해 지금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고전적 설명이다. 그러나 그의 설명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기술의 발달과 전문적 장인 집단의 확립이 반드시 문명 단계의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니므로 문명의 징표일 수는 있어도 문명을 성립시킨 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환경 변화와 농경 사이의 필연적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도시혁명은 문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라기 보다는 문명의 특징을 설명하는 우회적 개념으로서 널리 차용되고 있다.

문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한때 널리 통용된 또 다른 유력한 주장으로 수자원의 관리가 고대 국가와 문명을 탄생시켰다는 입장이 있다. 관개시설의 유지와 관개 농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차일드도 언급하였지만, 1950년대에 들어와 문화생태학자 줄리안 스튜어드(Julian Steward)나 역사학자 카를 비트포겔(Karl Wittfogel) 같은 이들이 설파한 수력 문명 혹은 수력 관료 사회의 가설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이들은 세계 4대 문명이 모두 건조 지대의 큰 하천 유역에서 발생했으며, 수자원의 관리는 이러한 사회의 유지를 위한 핵심적 요소임에 착안해, 문명은 수자원 관리 시설의 건설과 유지를 위한 사회적 조직과 동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탄생했다고 보았다.

문명의 기원

1920년대부터 이러한 주장을 펴왔던 비트포겔은 수자원의 관리는 대규모의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대 문명은 필연적으로 전제군주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소위 동양적 전제사회론(Oriental Despotism)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비록 수자원의 관리가 사회 체제의 정비와 권력의 집중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대규모 치수사업 때문에 문명이 등장했다는 증거는 불확실하며, 오히려 그러한 사업은 문명 단계에 접어든 이후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수력 문명의 가설은 문명의 기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수력 문명의 가설 이외에도, 환경을 문명을 탄생시킨 원인으로 보는 설명에는 국지적 환경이 극도로 다양한 곳에서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지역간의 원활한 물물교환이나 교류와 협력 때문에 문명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다. 즉 식량 자원을 비롯한 각종 자원의 분포가 불균등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해 지역간에는 광범위하고 밀접한 사회 · 정치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조직이 복잡해지고 문명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사회적 협력과 협동을 중요시하는 입장과는 반대의 시각으로 문명의 탄생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자연환경이나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포위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해 사회 내적인 단합과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회질서의 고도화가 필요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문명이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환경 이외에도 문명을 발생시킨 궁극적 동인으로서는 전쟁이나 인구증가, 기술의 발달, 교역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제시되었다. “인생이란 고독하고 가난하며 비참하고 야만적이고 짧다(solitary, poor, nasty, brutish and short).” 라고 한 홉스(Thomas Hobbes)의 말처럼, 서구문화 전통에서 사회적 갈등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말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은 집단 사이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보거나, 그 반대로 전쟁과 정복의 결과로 설명하려는 시각은 서양에서 뿌리 깊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문명의 기원

마찬가지로, 인구증가를 문명의 기원과 문화 진화의 궁극적 동인으로서 생각하는 입장도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의 『인구론』이 제시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인구의 증가는 생산성을 높이건 혹은 외부로부터 확보하건 더 많은 생산물의 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기술, 특히 농업 기술의 발달이나 자원과 영토를 둘러싼 경쟁을 문명 기원의 동인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각도 뿌리 깊다고 하겠다. 아울러 유럽의 역사적 경험에서 교역이 차지한 중요성을 반영하듯, 문명은 교역을 통해 발생했다는 설명도 일찍부터 제시되었다.

그런가 하면,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는 문명은 농경의 개시 이후 개인 사이의 생산력 차이에서 발생한 생산수단 소유의 차별화가 확대 반복한 결과 등장했다고 설명해 왔다. 반면에, 이러한 여러 요인과 대척되는 사회문화적 혹은 개인적 · 심리적 요인을 더 중요시하는 시각도 계몽주의 시대 이래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권력이나 이데올로기, 종교, 개인의 능력이나 권위, 혹은 사회질서 유지의 효율화 등의 요인을 갖고 문명의 발생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설명은 각각 일정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특정한 요인만으로 모든 문명의 등장 과정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각각의 문명은 고유한 환경적 · 사회경제적 조건 아래에서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탄생했으며, 어느 한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도 문명이 반드시 그 요인 때문에 등장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문명이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미분화한 형태의 사회가 수많은 내적 · 외적 요인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 복잡하게 작용하며 탄생한 고도로 발달한 사회 · 문화 체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계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에는 B.C. 4000~B.C. 3000년경 큰 강 유역에서 발달한 최초의 인류 문명 발생지들이 있는데 인류의 발생지로 여겨지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나열해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는 나일 강변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의 인더스 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중국 황허 유역의 황허 문명을 들 수가 있었다. 이들 지역은 큰 강의 유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관개 농업에 유리한 물이 풍부하며, 공통적으로 청동기, 문자, 도시 국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집트 문명 발상지: 나일 강

정치와 종교를 결합한 신권 정치(파라오 = 신의 아들일 정도로 왕권 강력), 사후세계(미라, 사자의 서), 태양력, 측량술, 기하학, 의학 등 실용학문 발달, 파피루스기록,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수메르인, 지구라트(거대신전), 태음력, 60진법, 함무라비 법전, 쐐기문자 등 국가기반 마련. 바빌로니아 왕국 등.

인더스 문명 발상지: 인더스 강

아리아인, 하라파, 모헨조다로, 도시 문명, 도로망, 공중목욕탕, 철기, 카스트 제도, 그림문자 등 사용. 농경 및 목축을 하면서 "바닷길"로 메소포타미아와 무역 등.

황허 문명 발상지: 황허와 양쯔강

조, 수수 재배, 가축, 토기, 갑골문자, 은나라 은허 유적, 신정 정치 등.

서구 중심의 문명사관 =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원래 유럽의 문화와 예술에서 나타난 동양 문화를 나타내는 예술 경향을 나타냈던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동양과 서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동양에 대한 서양의 우월성이나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고정되고 왜곡된 인식과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는 개념이 '서양의 동양에 대한 인식' 이라는 폭넓은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은 1978년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adie Said, 1935~2003)가 발간한 '오리엔탈리즘' 이라는 책이 계기가 되었다. 이 책에서 사이드는 서구 국가들이 비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식민화하 는 과정에서 동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확산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동양과 서양이라는 인식론적인 구별에 근거한 사고방식' 이자,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 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제도 및 스타일' 로 정의한다. 서구 국가들은 동양은 비합리적이고 열등하며 도덕적으로 타락되었고 이상하지만, 서양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성숙하고 정상이라는 식의 인식을 만들어오면서 동양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해왔다. 이러한 인식은 문학 등의 예술 작품이나 여행기, 동양의 언어와 역사, 지리, 문화에 관한 학문과 연구를 통해 형성되고 확산되었다.

오리엔탈리즘은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그에 앞서 식민지 지배를 낳고 정당화하는 근원적인 힘이다. 오리엔탈리즘은 서양과 동양의 경계와 차이를 끊임없이 확장한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매체와 문화 양식들을 통해 동양을 열등하고 착취 가능한 대상으로 파악하는 오리엔탈리즘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으며, 근대의 학문과 지식들을 통해 동양인에게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로써 오리엔탈리즘은 동양과 서양을 구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동양의 관점에서 서양을 적대시하거나 비하하는 인식과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이라고 한다. 옥시덴탈리즘은 오리엔탈리즘과는 반대로 서양은 비인간적이고 천박하며 물질적이지만, 동양은 인간적이며 고상하고 정신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구별을 통해 서양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편견을 형성한다. 옥시덴탈리즘은 오리엔탈리즘의 뒤집힌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동양과 서양을 구별짓고 대립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특징을 지닌다.

주요 고대 문명

주요 고대 문명

서남아시아

인류 역사상 문명 단계에 도달한 사회 중 많은 수는 시간이 흐르며 소멸해, 심지어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게 되기도 하였다. 지난 20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는 이런 망각 속의 고대 문명이 발견되기도 했고, 문헌을 통해 존재를 알고 있던 문명의 성격이 더 확실히 밝혀지기도 했다. 지중해 연안에서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이란 고원과 카스피 해 연안에 이르는 지역은 문명이 가장 먼저 발생해 수천 년 동안 이어졌으나, 19세기 이전까지는 이곳의 고대 문명에 대해서는 그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남아시아의 고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고대 문명이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는 서남아시아의 일부로서, 서남아시아에서 고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에서만 융성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말부터 이란 고원과 카스피 해 연안에서 고고학 조사가 활발해지며, 이곳에도 고유한 문자를 지닌 또 다른 고대 문명이 기원전 2000년대에 존재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으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및 인더스 고대 문명이 종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직 · 간접적으로 교류하며 함께 발전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이들 고대 문명에서 보이는 일련의 공통점도 그러한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서남아시아 일대에서 고대 문명의 싹은 이른 시기부터 각지에서 솟아나기 시작해 서로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나갔던 듯하다.

그러나 아무튼 메소포타미아는 수천 년 동안 서남아시아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문명의 요람' 으로서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리스어로 '강과 강 사이의 땅' 의 뜻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고대 문명에 대한 연구는 1872년 쐐기문자[설형문자]가 문자로서 인식되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주요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저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편찬된 기원전 1792년보다 훨씬 앞서 등장했는데, 쐐기문자는 함무라비 법전보다 최소한 약 1,600년 정도 앞서 등장해 기원전 3200년 무렵 그 체계가 완성되었으며, 도시국가는 다시 이보다 천 년 이상을 앞서 기원전 4500년 무렵 등장하였다.

메소포타미아는 한반도와 비슷한 남북 약 950km, 동서 약 400km의 면적으로, 북부의 아수르(Assur), 즉 아시리아, 중부의 아카드(Akkad), 즉 아카디아 및 남부 저지대의 수메르(Sumer)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지역은 현재 대부분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조건이지만, 이곳에서 시작해 자그로스 산맥 남록(南麓)과 팔레스타인에 이르는 활처럼 휜 지역은 일명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불리는 곳으로서 일찍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다. 메소포타미아 고대 문명은 일찍부터 시작된 농경에 힘입어 등장했는데, 관개 농경은 북부 아수르에서 기원전 6000년 무렵 먼저 시작되었다. 기원전 5500년 무렵이면 할라피안(Halafian)이라 불리는 농경문화가 널리 퍼지며 원시국가 형태의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청동기 주조가 시작되는 등 문명을 향한 태동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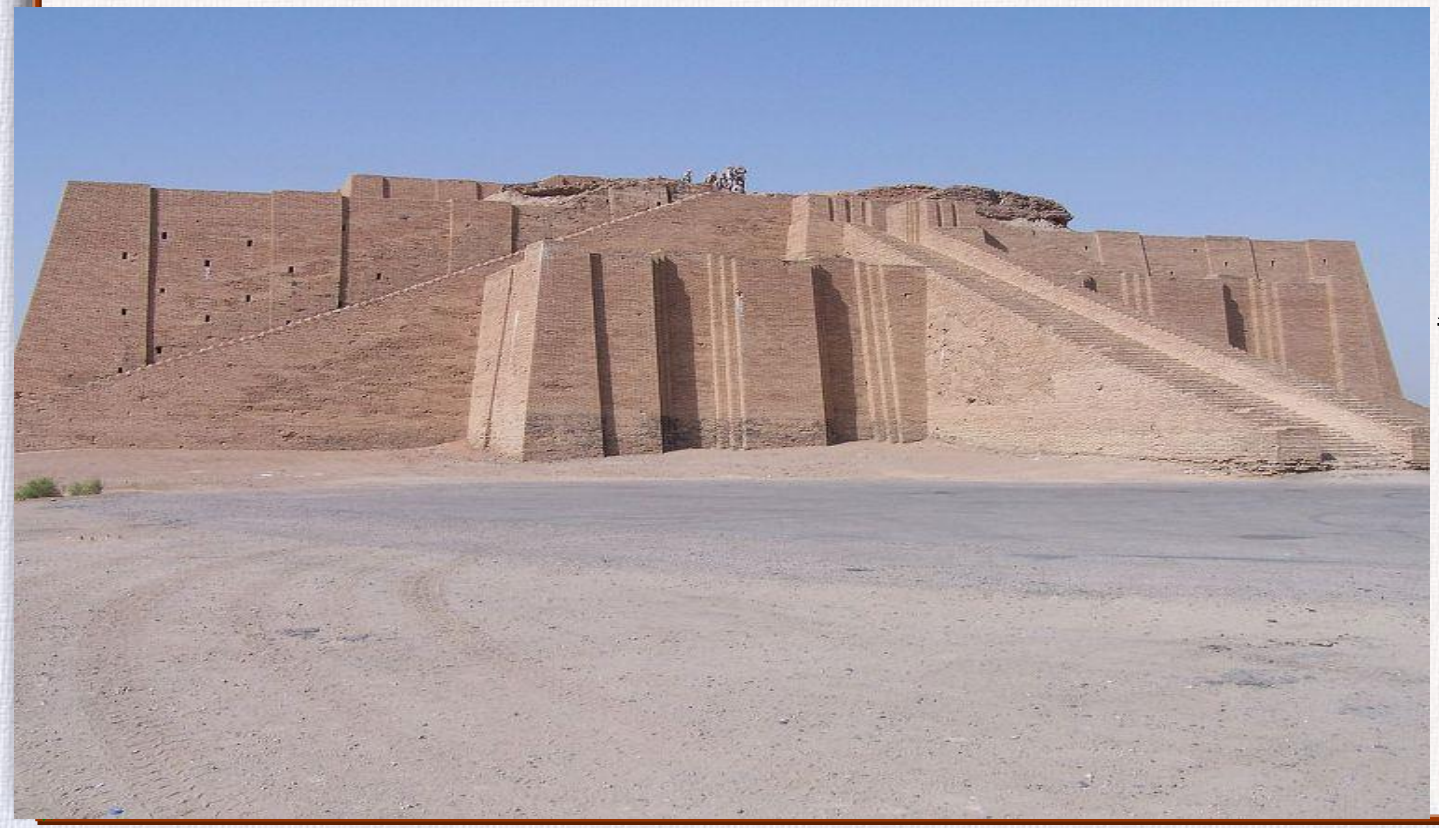
그러나 문명은 남부 수메르에서 완성되었다. 수메르에서는 기원전 6000년 무렵 우바이드(Ubaid) 문화에서부터 농경이 시작되어, 관개 수로망이 확산되며 곳곳에 마을이 생겨나고 지역 사이의 교역이 활발히 일어났다. 농경으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며, 기원전 4750년 무렵이면 에리두(Eridu)와 같은 소규모 도시가 종교 중심지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장거리 교역이 활성화하고 사회적 계층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도시도 급속히 발달하였다. 그 결과 기원전 4500년 무렵에 에리두는 상주인구 5,000명에 달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고, 비슷한 형태와 규모의 도시가 수메르 지역 곳곳에 나타났다.

그 대표격인 우루크(Uruk)는 기원전 3500년 무렵 상당한 영역을 거느린 제정일치(祭政一致)의 도시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무렵에는 크고 작은 도시에 대규모 방형 신전인 지구라트(Ziggurat)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청동기 주조술도 늦어도 이 무렵이면 수메르에 전해졌고, 역으로 수메르 문화는 북쪽으로 아카드, 아수르, 자그로스 남록까지 확산되어, 메소포타미아 전역이 서서히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합되며 곳곳에 두터운 성벽을 두른 수메르식 도시가 건설되었다. 이때부터 시작해 수메르 문명의 전성기인 기원전 2000년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인구의 80% 정도는 도시에 거주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문자는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며 상업적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기록이 필요하게 되어 등장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주요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원전 7000년부터 약 1000여 년 간 번성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이다. 보통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문명을 일컬으며, 넓게는 서남아시아 전체 문명을 아우른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개방된 지리조건으로 인해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으며, 왕국의 교체 또한 빈번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지구라트와 함무라비 법전, 쐐기문자 등이 있다.



지구라트 (ziggur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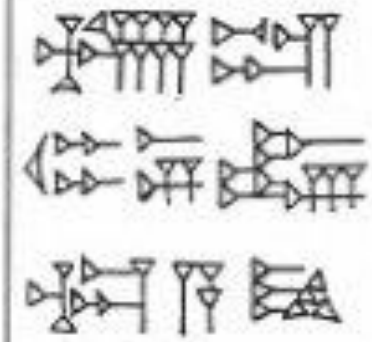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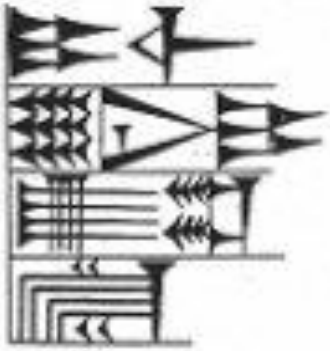
수메르 우르의 지구라트

<< 메소포타미아 문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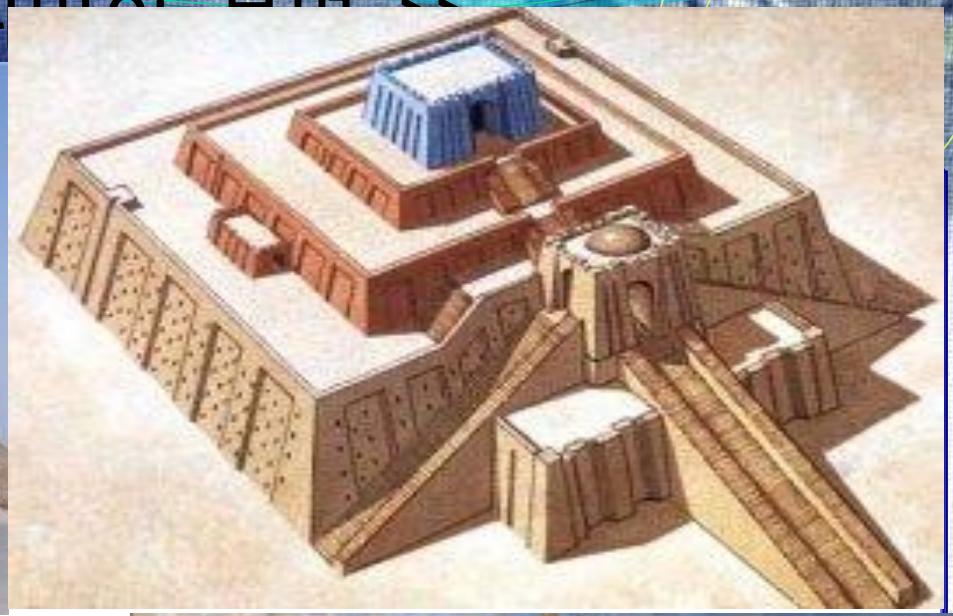


(도3) 설형문자의 변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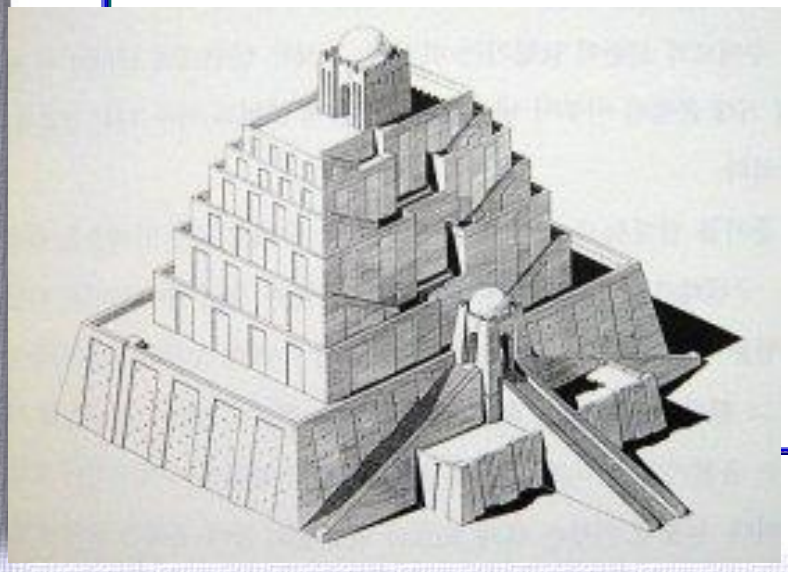
명칭	수메르 설형문자	바빌로니아 설형문자	아시리아 설형문자	고대 페르시아설형문자
시기	기원전 24세기경	기원전17세기	기원전8,9세기	-
상징	수메르법 부분	함무라비법전 부분	문자표 부분	문자표 부분
그림문자			G D Z K 	a i u k 

<< 메소포타미아 문명 >>





지구라트(피라미드형태의 신전탑)-바벨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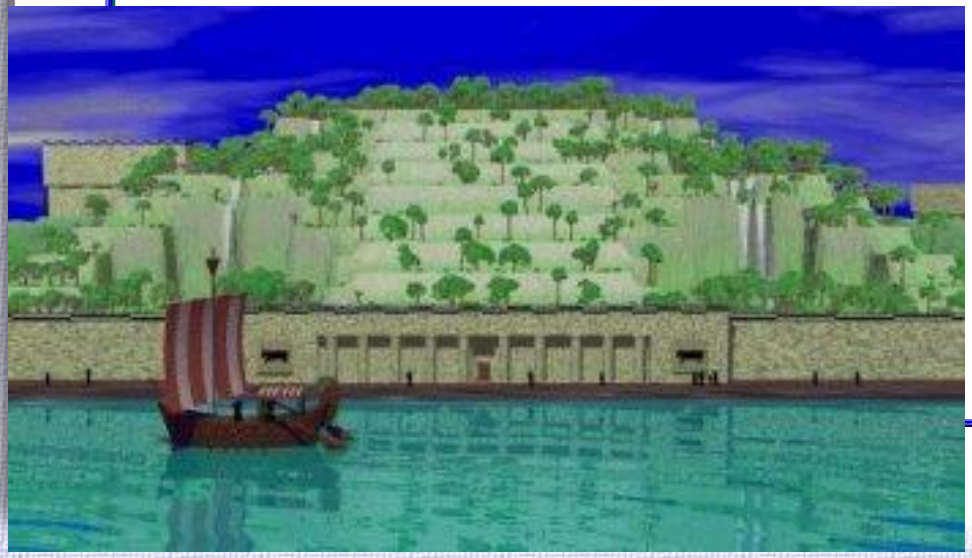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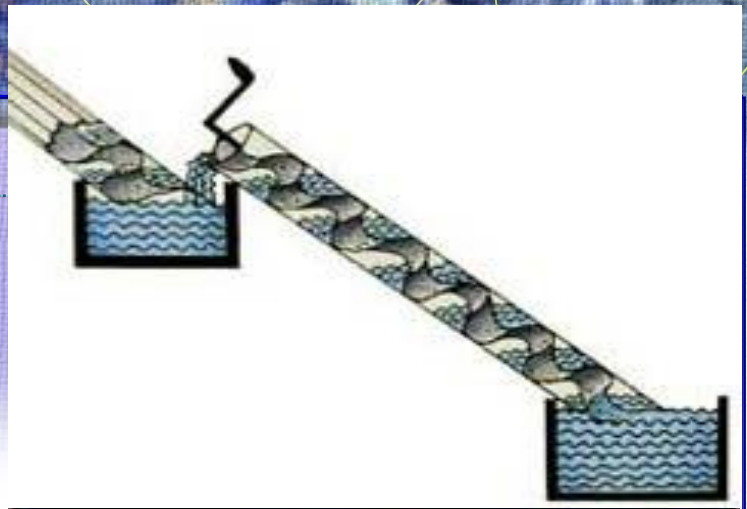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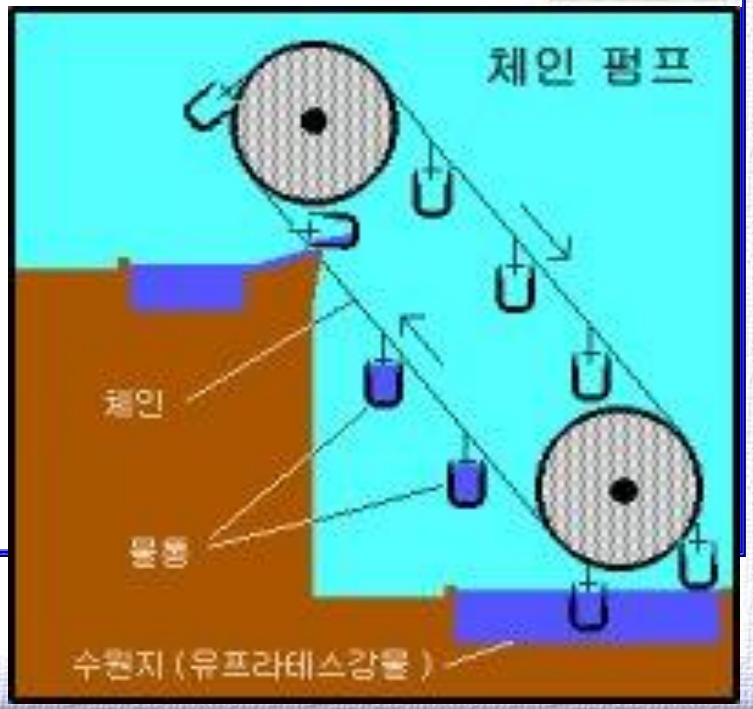
<< 메소포타미아 문명 >>



바빌론의 공중정원
세계7대불가사의-세미라미스의 공중정원







주요 고대 문명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원전 3000년 무렵 우루크, 우르(Ur), 에리두, 키시(Kish) 등의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수메르 문명이 완성되었다. 수메르 문명은 동으로는 인더스 강 유역에서 서로는 나일 강 유역과 지중해 연안에 걸친 수많은 사회조직을 교역을 통해 연결하며 하나의 세계로 묶어 나갔고, 기원전 2000년대 동안 그러한 관계망은 키프로스(Kypros)와 에게 해 및 그리스 본토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교역망과 세계체제의 확대는 농업 자원을 제외하면 변변한 자원이 없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수메르 세계체제는 하나의 통일된 정치 조직체가 아니었으며, 많은 도시국가가 정치적 · 경제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도시국가는 기원전 2500년 무렵에는 서남아시아 전역에 들어섰고, 이들은 정치 · 경제 · 군사적으로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관계를 맺으며 존속해 나갔다. 그러나 서남아시아 세계의 중심지는 메소포타미아였으며, 다시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는 수메르 지역이었고, 그 중에서도 우르와 우루크 두 도시가 핵심이었다.

수메르의 도시국가들은 기원전 2000년대 후반부터 융성하기 시작한 아카드의 도시국가에 세력을 잃기 시작해, 기원전 1990년이 되면 셈족이 세운 바빌론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가 되었다. 바빌론은 기원전 1792년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지던 무렵까지가 그 전성기였으며, 함무라비 왕의 사후 곧 힘을 잃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도시국가 사이에는 다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났으며, 이들은 서로뿐만 아니라 장거리 교역의 이권을 두고 멀리는 이집트, 가까이는 터키 아나톨리아(Anatolia) 고원에서 일어난 히타이트(Hittites)와 경쟁하였다. 기원전 1350년 무렵 메소포타미아의 주도권은 아수르-우발리트(Assur-uballit) 왕이 통치하던 아수르가 차지하게 된다. 그는 무력을 바탕으로 아시리아 제국을 세웠지만, 곧 무너져 다시 여러 도시국가 사이에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쟁은 수도를 님루드(Nimrud)에 둔 아시리아 제국이 기원전 9세기에 부활하며 끝을 맺게 되었다. 이 제2 아시리아 제국은 기원전 7세기 후반까지의 전성기에 그 영토가 지중해에서 페르시아 만까지 걸쳐 있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제국에서 독립한 바빌로니아와 이란 지역에서 일어난 페르시아의 협공으로 기원전 612년 수도 니네베(Nineveh)가 함락되며 멸망하였다.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바빌로니아 제국은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 기원전 539년 멸망하게 된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로써 서남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거대 제국 페르시아의 일부로 편입되며 고대 문명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서남아시아 세계를 통일한 페르시아는 지중해 세계로의 진출을 시도했고, 그 결과 기원전 5세기 초 발발한 페르시아 전쟁은 서남아시아 문명과 지중해 문명이 충돌한 최초의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주요 고대 문명

나일강 유역

나일 강 유역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못지않게 이른 시기에 고대 문명이 발생하였다. 나일 강을 따라 이집트 곳곳에 들어선 피라미드, 큰 사원, 오벨리스크 같은 거대한 건조물은 이집트 고대 문명의 규모를 웅변해 주는 인류 문화사의 기념물로서, 이집트에서는 메소포타미아와는 달리 고대 문명이 성립된 다음 몇 차례의 짧은 혼란기가 있었지만, 3,00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의 문화 전통이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 또 이집트 문명의 유산에 대해서는 그리스 · 로마 시대 이래의 기록이 전할 뿐더러, 1822년 상형문자가 해독됨으로써 그 성격을 다른 어느 문명보다도 더 잘 알게 되었다.

나일 강을 따라서 이집트 남쪽으로 강의 중류 지역인 수단의 누비아(Nubia)에서도 독자적인 문명이 발생해 이집트 고대 문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보다 상류의 에티오피아에서는 이집트 문명이 소멸한 기원 전후 무렵 나일 강 상류의 동쪽 지류인 앗바라(Atbara) 강과 홍해 사이에 걸쳐 악숨(Aksum)을 중심지로 하는 문명이 등장해, 이후 약 1,000년 동안 지속되었다.

한편, 나일 강 유역과는 사하라 사막으로 격리된 아프리카 북서부의 가나와 말리에서도 나일 강 유역 고대 문명과는 관계없이 기원전 300년 무렵 고대 문명이 등장하였으며, 북부와는 열대우림으로 차단된 남부에서도 지금의 짐바브웨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기원후 1000년 무렵 짐바브웨(Zimbabwe)라 불리는 대규모 석조 건축을 남긴 고도로 조직화된 국가 단계의 사회가 등장해 15세기까지 번성하였다. 즉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여러 문명이 상이한 시간대에 독자적으로 발생해 서남아시아와 유럽과 관계를 맺으며 부침하였던 것이다.

주요 고대 문명

그러나 이집트 문명은 이러한 여러 아프리카 문명을 등장 시점이나 규모 면에서 압도하고 있다. '이집트는 나일 강의 선물' 이라는 말이 시사하듯, 나일 강은 이집트 문명의 성립과 발전을 밀접히 뒷받침한 생태적 요인으로, 문명은 엄청난 농업 생산성을 보장해 준 나일 강을 따라 길고 좁게 펼쳐진 오아시스 내에서 번성하였다. 대대적인 나일 강의 치수(治水)는 문명 성립 이후에 전개되었지만, 수력 문명의 가설은 이집트 문명의 성립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나일 강의 치수는 이집트 문명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런 만큼 문명의 뿌리는 나일 강 하류에 농업공동체 사회가 등장하는 기원전 5000년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 질서는 기원전 4000년 무렵이 되면 개인과 개인 혹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확연해진 축적된 부의 차이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고, 그 대신 우월적 지위의 개인이나 마을이 각종 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과정이 계속되며, 기원전 3500년 무렵에 나일 강 상류 쪽의 이집트 남부(Upper Egypt)에는 디스(This), 나가다(Nagada) 및 히에라콘폴리스(Hierakonpolis)라는 원초적 고대국가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 선왕조(pre-Dynasty) 시대의 국가는 아직 신석기 단계의 문화였지만, 중요한 사실은 문자가 선왕조 시대인 기원전 3100년 무렵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문자의 발명과 고대국가의 발생이 인구증가가 뚜렷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집트 고대 문명의 성립 배경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집트에서 국가의 발생과 문명의 등장에는 경제적 · 물질적 요인보다 모종의 종교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한편, 강 하류의 이집트 북부(Lower Egypt)에서는 기원전 3650년 무렵이 되면 상당한 부를 축적한 대규모 마을이 등장했지만, 남부에서와 같이 선왕조 시대의 국가 단계 사회는 등장하지 않았다.

광범위하게 수집된 문자 기록과 더불어 이집트 고대 문명의 전개 과정은 자세히 알려져 있는 셈이다. 이집트 고대 문명은 기원전 2920년 메네스(Menes)가 이집트 전역을 통일하며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이래 수많은 왕조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한 왕조는 흔히 4개의 주요 시기와 그 사이의 과도기로 묶여 나뉘는데, 대체적인 편년은 일치하나 구체적인 시기의 경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기원전 2000년대 초 통일이 된 직후 수백 년 동안 전제적 왕권은 아직 확고히 자리 잡지 못했지만, 고왕국(Old Kingdom) 초기인 기원전 2575년 무렵부터 파라오의 전제 권력이 확고해지며 유명한 기자(Giza)의 피라미드를 비롯해 크고 작은 피라미드가 만들어졌고, 각종 제도와 문물 및 예술 전통이 확립되었다. 이 고왕국 시기는 기원전 22세기 중후반이면 막을 내리게 된다.

주요 고대 문명

이어 중왕국(Middle Kingdom, B.C. 21~17세기) 시기에 이집트는 나일 상류의 리비아,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남부까지 지배하게 되었으나, 기원전 1700년경 힉소스(Hyksos)의 침입을 받아 150년가량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를 물리친 제18왕조와 더불어 시작된 신왕국(New Kingdom, B.C. 16~11세기) 시기에 이집트 문명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 라메세스(Ramess) 2세, 세티(Seti) 1세, 투트앙크아몬(투탕카멘), 이크나톤(Ikenaton) 등, 왕의 계곡에서 미라로 발견된 저명한 파라오들은 모두 신왕국의 파라오이다. 그러나 기원전 11세기 중반부터 이집트는 서서히 쇠락하여 두 차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으며, 기원전 332년 알렉산드로스에게 정복당하여 그리스 왕조가 약 300년 이어지다, 기원전 30년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죽음과 더불어 로마의 속주로 편입됨으로써 독립적인 문명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메소포타미아와 비교할 때, 이집트 고대 문명은 영구적인 수도조차 기원전 2000년 무렵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정도로 도시가 늦게 발달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집트에서 도시의 발달이 더딘 것은 아마도 주변에 강력한 경쟁집단이 존재하지 않아 굳이 두터운 방어 성벽을 지닌 도시를 만들 필요가 없었거나, 나일 강 연안의 단조로운 환경조건으로 대규모의 지역간 교역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생활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거나, 혹은 정치적 중앙집중화가 일찍부터 이루어져 도시의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 세속적 사회분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집트 고대 문명의 표상이라고 할 만한 피라미드는 당시 수학을 비롯한 각종 자연과학과 공학적 기술의 발달 정도를 집약해 보여주고 있다. 또 의술과 천문학도 고도로 발달하였으며, 각종 기록과 예술은 고대 이집트인의 독특한 종교, 세계관과 우주관을 말해준다. 이집트 고대 예술에서는 자신들 이외의 사람은 모두 비천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 고대 이집트인은 스스로를 주변의 어느 누구보다 존귀하다고 생각했음을 잘 보여준다.

또 사체를 미라로 보존하는 풍습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나 미적 인식이 현대인과 크게 달랐음을 말해주고 있다. 헤로도토스(Herodotos)도 『역사』에서 이집트의 미라 제작술을 묘사한 바 있는데, 미라 풍습은 적어도 기원전 200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그 기술은 신왕국 시대에 완성되었다고 여겨진다. 미라를 만든 것은 신체가 미라로 보존됨으로써 죽은 사람이 지하세계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파라오는 미라가 됨으로써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오시리스(Osiris) 신으로 재탄생한다고 여겨졌다.

주요 고대 문명

이집트 문명

기원전 3200년부터 약 3000년 동안 나일 강 중심의 비옥한 토지를 토대로 번영한 문명. 폐쇄적인 지리 조건으로 인해 4대 문명 중 가장 오랫동안 통일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태양신 '라'를 주신으로 섬기는 다신교를 믿었으며, 내세적 종교 관념이 전해지고 있었다. 문화적으로는 상형문자, 천문학, 태양력, 10진법 등이 발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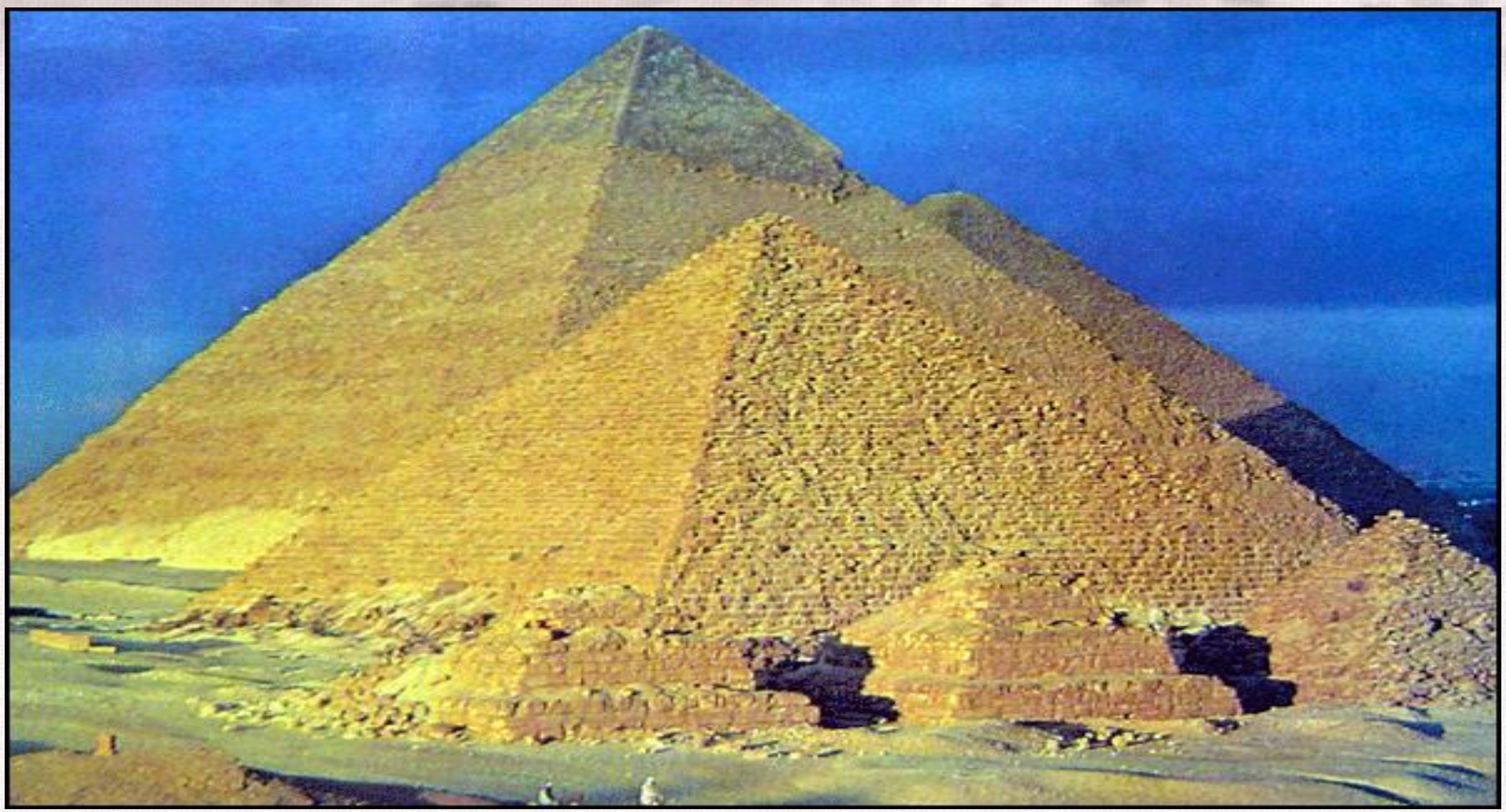


기자의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 문명의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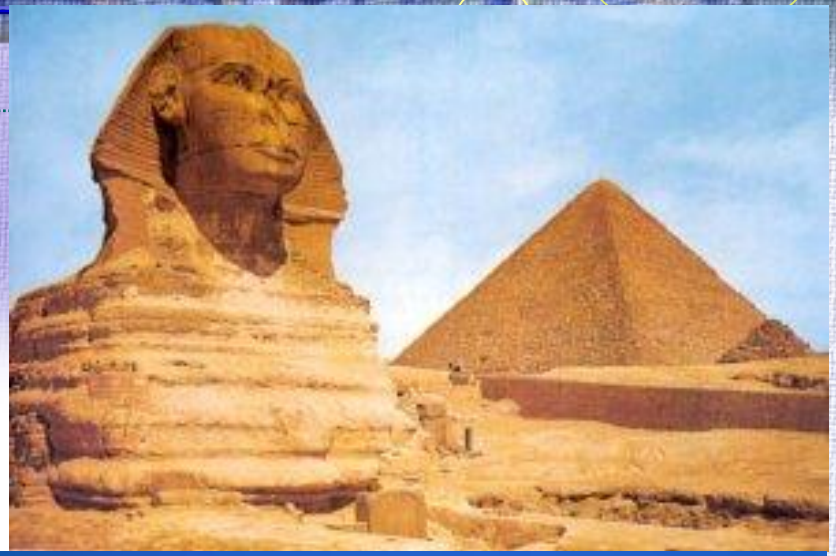
이집트 문명

- 이집트 피라미드(240m, 146m)



<<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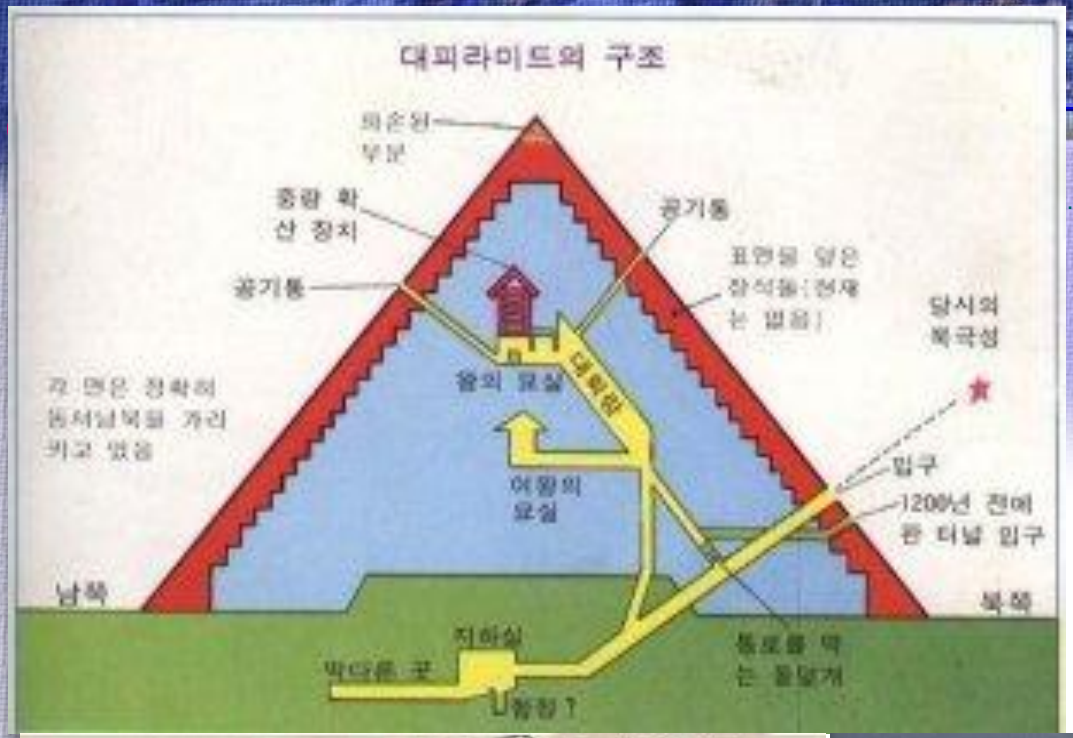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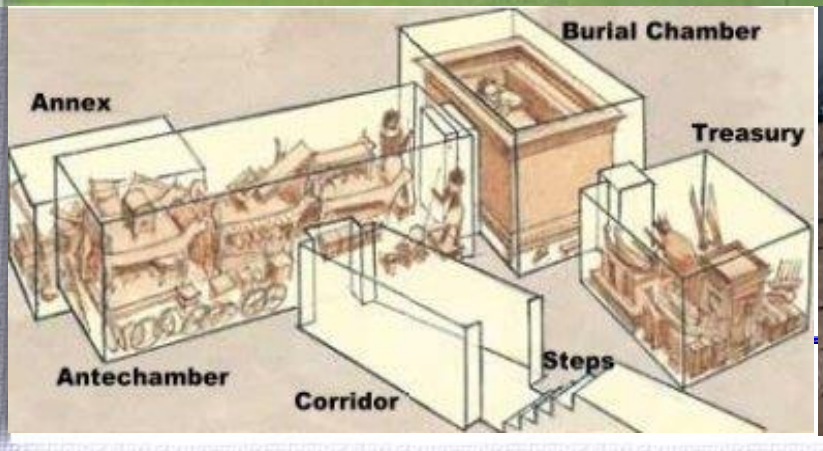




<< 이집트 문명 >>


대피라미드의 구조
공기통
공기통
당시의
북극성
입구
남쪽
북쪽
지하실


피라미드 건설을 위한 나선형 경사로


Burial Chamber
Annex
Treasury
Steps
Antechamber
Corridor


Corbi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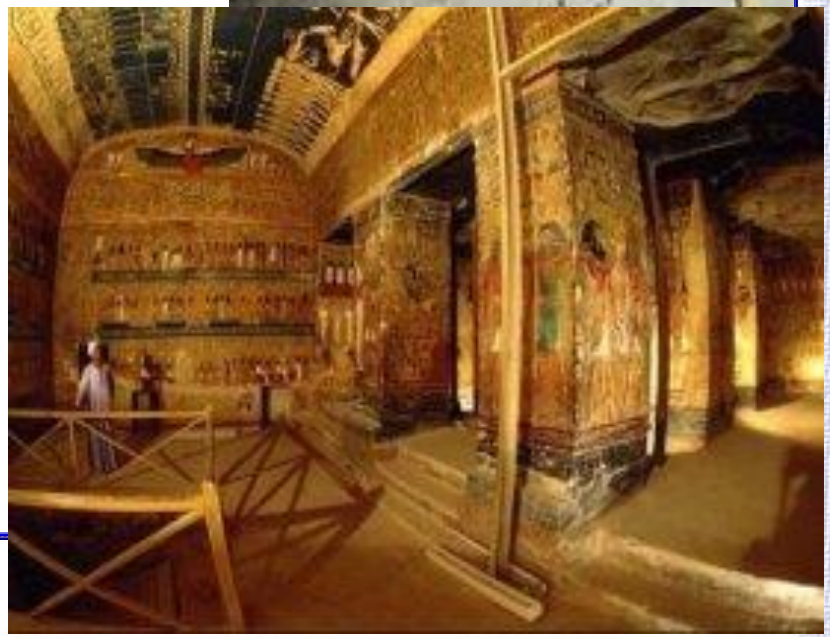


<< 이집트 문명 >>






쿠푸 피라미드 내부
왕도 불명의 작은 통로
왕도 불명의 작은 통로
왕의 무덤방
그랜드 갤러리
원뿌사진의 출문
(3인치 두께)
로봇(피라미드여행자)이
탐사한 통로
왕비의 무덤방
오르막길
지 중 해
카이로
기자
이 집 트
영국 수학자 그리브스가
발견한 통로
내리막길
지하방



<< 이집트 문명 >>

영화 미이라(원제 The Mummy)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가운데 가장 영화를 누렸던 세티1세에 관한 내용이다. 세테1세의 정부인 앙크수나문(페트리시아 베라즈퀘즈 분)과 승정원 이모탭(아놀드 보슬루 분)은 금지된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은 파라오에게 발각되고 이에 앙크수나문은 자결하게 된다. 이모탭은 파라오의 근위대에 붙잡혀 홈다이(산 채로 석관에 갇혀 생시체가 되는 끔찍한 형벌)에 처해진다. 오랜 세월이 흘러 조나단(존 한나 분)은 하무납트라(왕족들이 잠든 죽음의 도시)의 황금보물을 찾아 떠나는데 파라오의 저주를 푸는 열쇠를 찾게 되고 실수로 이모탭을 부활시키게 된다. 영화에서는 아낙수나문으로 불리움.
안케세나멘(Ankhesenamen)은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투탕카멘의 이복누이이자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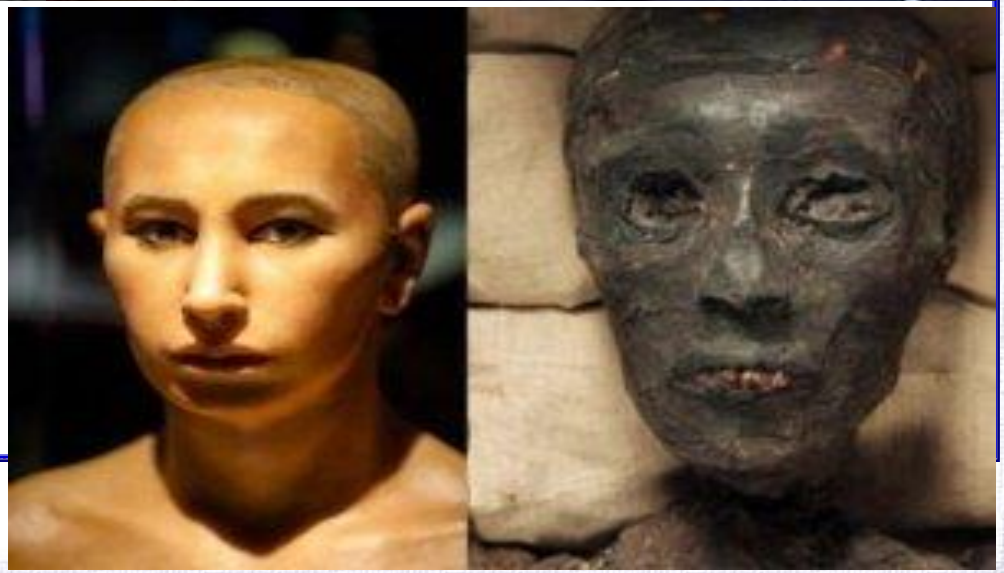


<< 투탄카멘의 황금마스크 >>









<< 이집트 문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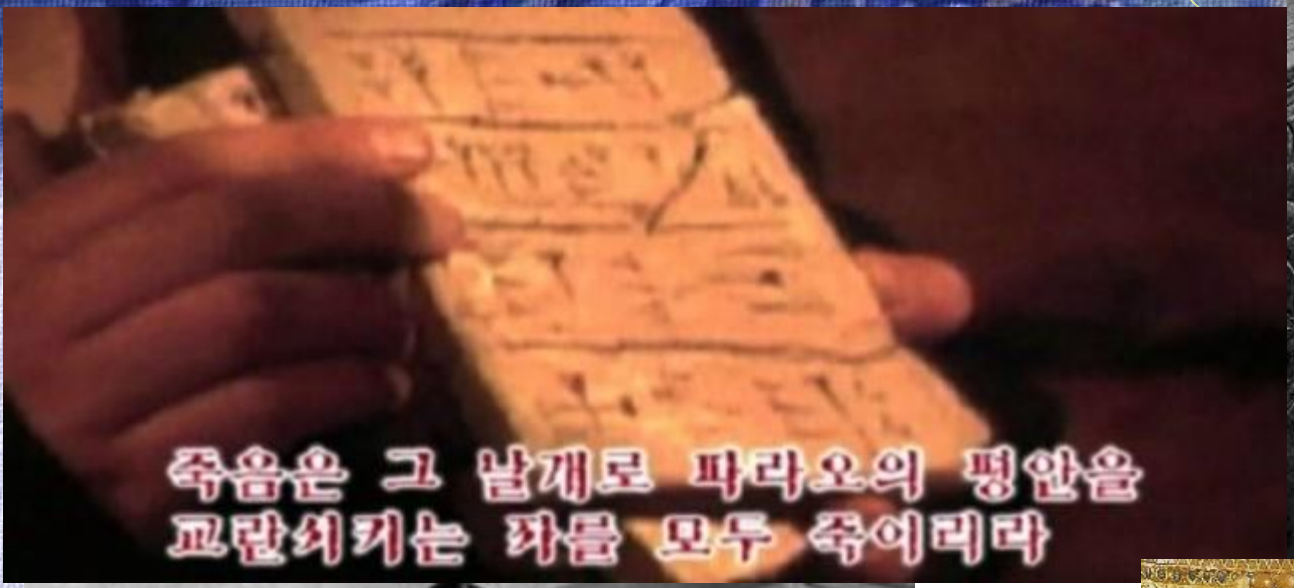
<< 투탕카멘의 저주 >>

1922년 이집트에서 발굴된 투탕카멘의 시신 덕분에 무덤의 발굴에 일조했던 팀 내의 인원들이 하나 둘씩 의문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떠돌아 다님. 투탕카멘은 18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미소년 왕. 이집트에서는 예로부터 미라를 만드는 것이 습관화 되어 왔기 때문에 투탕카멘의 시신 또한 미라로 발견이 되었고 그 옆에는 부장품까지 온전하게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함.

람세스 4세의 고분 입구 근처에서 발견된 투탕카멘의 미라는 왕가의 계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대규모 무덤군에 있었다고 하며, 그 당시에는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 3천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었지만 무덤이 손상 없이 발견. 이것 뿐만이 아니라 파라오의 저주로 가장 유명하기 때문. 투탕카멘 왕의 무덤을 발굴해 내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옆의 가족들까지도 돌연 의문사를 당하게 되면서 큰 이슈가 되어서 소문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파가 되기 시작.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지금까지도 전설로 회자가 되고 있는 것.

상형문자판은 투탕카멘의 미라를 발견했을 때 옆에 적혀져 있었다고 한다. 맨 처음 희생된 사람은 자본을 담당하고 발굴 기획을 맡았던 카나본 경. 그는 면도 중 칼날에 베였다가 병원균에 감염이 되어서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남. 그가 죽은 이후 5개월이 지났을 때에 동생도 갑자기 돌연사를 당했고 뿐만이 아니라 투탕카멘 발굴에 참여를 했었던 팀원들도 계속 해서 죽음을 맞이했으며 가이드를 했던 사람마저도 급사를 당했다고 하며, 투탕카멘의 미라에 연계된 희생자 수가 21명이라는 집계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 투탕카멘의 저주 >>









주요 고대 문명

수많은 신이 우주와 세계를 다스린다고 믿은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들을 위해 거대한 사원을 지었으며, 종교적 행사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였다. 그러한 종교적 · 정치적 건축물에 가려 일반인들의 생활상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기원전 14세기 중반 약 2만의 인구가 살던 엘-아마르나(El-Amarna) 같은 몇몇 도시 유적에서는 당시인의 생활상이 드러났는데, 평민은 20세기 초반 서남아시아 대부분 지역의 주민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했다고 보인다.

하라파 문명

메소포타미아와 비견할 만한 환경조건을 갖춘 인더스 강 유역 고대 문명의 흔적은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인들이 19세기 중엽에 처음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 하라파(Harappa)에서 하라파 문명의 대표적 유물의 하나인 각종 인장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1921년 발굴이 시작되며 개시되었다. 이후 하라파와 모헨조다로(Mohenjo-Daro)를 비롯한 파키스탄 각지와 인도 서북변에서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고대 문명이 등장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문명이 확립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지역의 고대 문명은 흔히 인더스 문명이라 불리지만, 문명은 인더스 강 유역뿐만 아니라 강 서쪽의 산악 지대인 발루치스탄(Baluchistan)과 히말라야 남록까지 분포하기 때문에 하라파 문명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하라파 문명의 중심지인 인더스 강의 충적지에서 농경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보리 재배와 염소 사육에 의존하던 농경사회는 인더스 강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기원전 6000년 무렵 등장했으나, 이런 사회가 인더스 유역의 충적지에 들어선 것은 기원전 300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인더스 유역의 마을은 처음부터 방어시설과 계획된 도로를 갖추고 있었고 금속기도 만드는 등, 하라파 문명의 요소는 이미 이 시기부터 드러나고 있다. 이후 관개와 집약 농경이 계속되고 인더스 강 유역의 생태계는 크게 변하게 되어, 자원을 둘러싼 마을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잦은 약탈과 전쟁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명의 면모는 기원전 3200년 무렵 어느 정도 완성되는데, 이후 약 600년에 걸친 시기가 하라파 문명의 초기 단계이다. 이 시기 인더스 유역과 발루치스탄 지역은 서로 공생관계를 이루며 문명의 싹을 키워나갔고, 기원전 2600년 무렵이 되면 지금의 파키스탄보다 더 넓은 면적에 걸쳐 하라파 문명이 성립되었다

주요 고대 문명

관개농업을 기반으로 한 하라파 문명은 흙벽돌로 만든 건물이 들어찬 도시 유적을 남겼으며, 특징적인 인장과 각종 인물상이 널리 알려진 대표적 유물이다.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보듯 문명을 조직하고 운영해나간 중심지로서, 대표적 도시인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힘을 기울여 하천의 홍수위보다 높이 구축한 인공 지반 위에 만들어졌다. 두 도시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설계한 것처럼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하라파보다 인더스 강의 하류에 있는 모헨조다로에서는 최소한 9회 이상 하천 범람 등으로 도시가 파괴되고 재건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모헨조다로는 하라파보다 6배 정도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두 도시에는 각각 3만 5,000~4만과 2만 3,000명 내외의 상주인구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성벽과 제방이 보호하고 있는 도시 내부에는 정연하게 계획된 도로와 건물, 시장, 창고 등이 들어섰다. 도시 서쪽에 있는 높이 12m에 달하는 성벽이 에워싼 요새 구역은 지배 계급의 거주지이자 통치 중심부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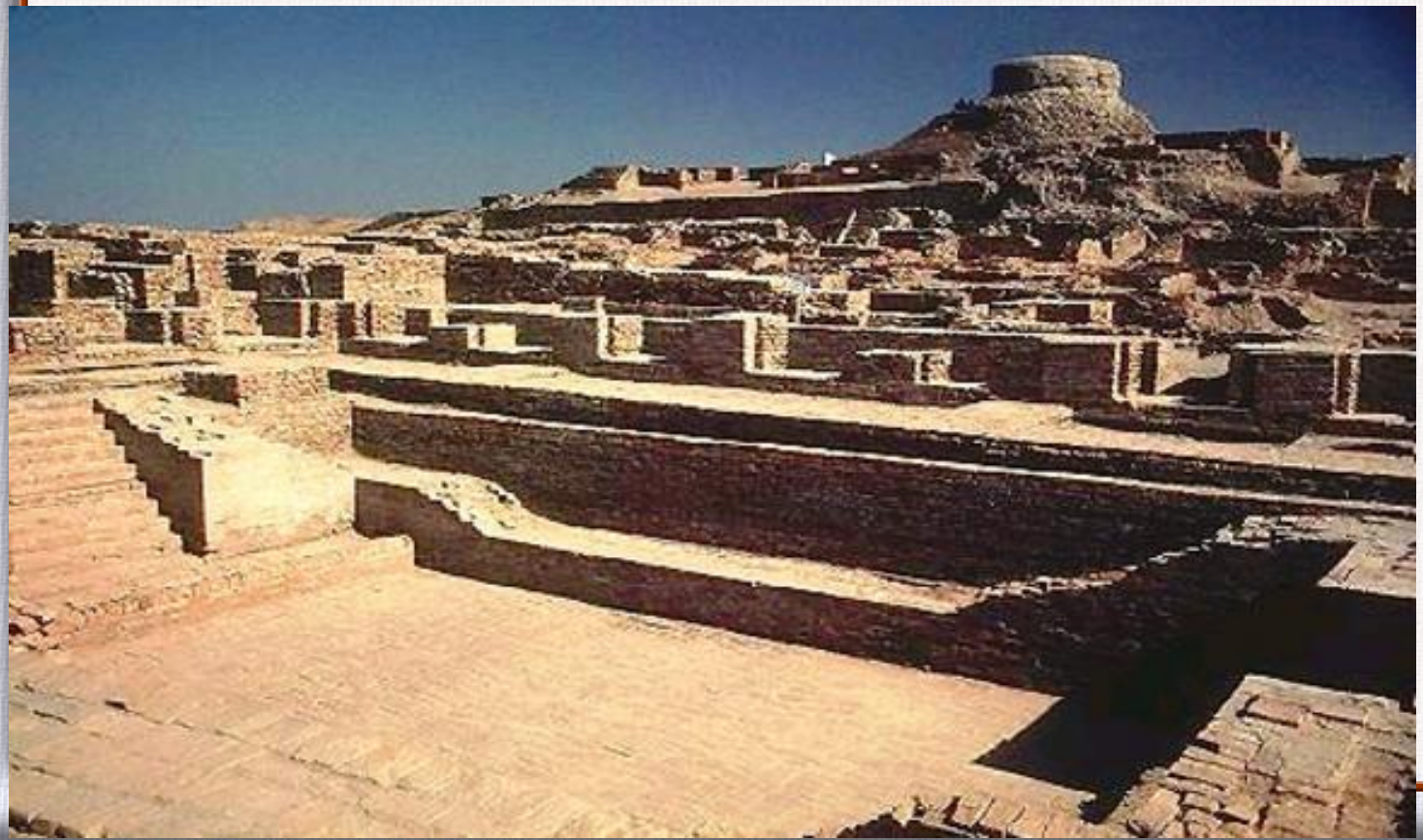
그러나 이 두 도시를 제외하면 대규모 도시는 하나 둘 정도로 대부분의 도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 발생 직전 단계의 마을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라파 문명은 도시 문명으로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무너졌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또 이집트에서 나일 상류와 하류의 고대 문명이 하나의 문명이면서도 오랫동안 사회 · 문화적 성격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라파 문명의 주요 도시는 공통의 문화적 상징과 종교적 전통 등의 문화 전통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치 ·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역적 차이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하라파 문명은 상형문자를 사용했는데, 현재까지 약 400개의 문자가 인장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문자는 아직 해독되지 않아, 도시를 다스리던 지배 계급의 성격이나 이름은 물론,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 혹은 도시와 마을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도 불확실하며, 서남아시아와의 문화적 관계 역시 밝혀져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역시 잘 알지 못하며, 단지 원시적 힌두교 계통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하라파 문명은 농경과 무역에 의해 유지되던 중앙집권 사회로서, 고도로 직업이 전문화되고 사회 계층화가 이루어졌던 것은 분명하다.

주요 고대 문명

인더스 문명

기원전 3000년 중엽부터 약 1000여 년 동안 인더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다. 인도 북부에서 발원한 인더스 강은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양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강 유역을 따라 유적이 발견되면서 최초의 문명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파키스탄 하라파(Harappa) 지방에서 발견된 유적 및 유물로 인해 '하라파 문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밖에 인더스 문명 최대의 도시 유적 모헨조다로(Mohenjo-Daro)가 파키스탄 남부 지역에 남아있다.



모헨조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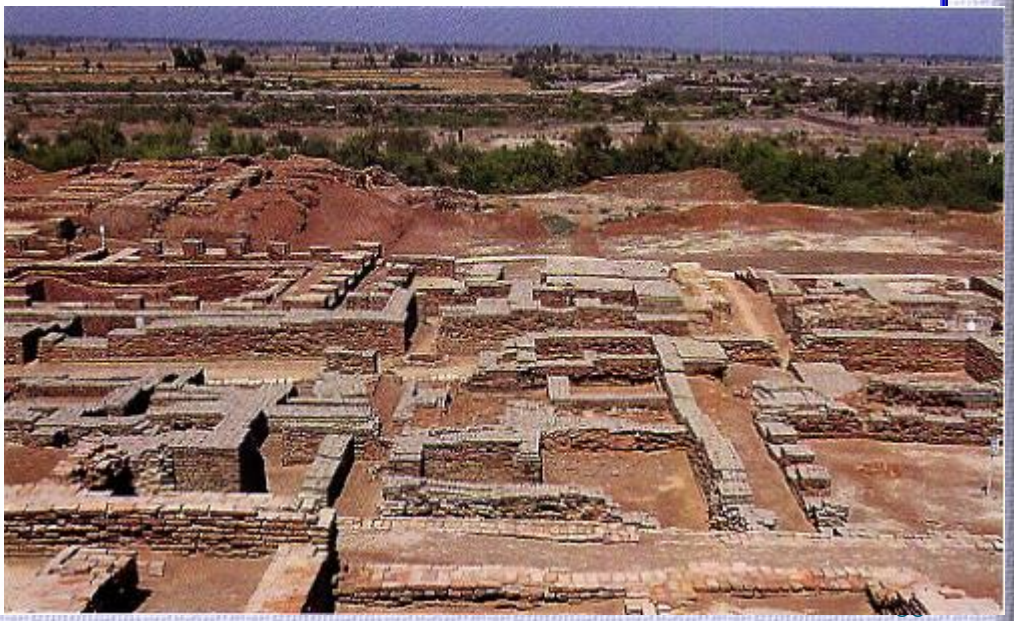
인더스 문명의 고대 도시. 유적지

<< 인더스 문명 >>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부터 약 1,000년 동안, 인도의 인더스 강 유역에 발달한 고대 문명으로,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이다. 인더스 문명의 특색은 인도양에서 히말라야 산기슭까지 1,000km 이상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걸쳐 놀랄 만큼 동일성을 보이고 있는 점과 질서정연한 도시계획에 있다. 이것은 당시에 매우 강력한 행정 기구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에서 발견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도시 유적은 인더스 문명을 대표하는 유적이다. 약 600km나 떨어져 있는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는 큰길과 하수도를 갖추고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다.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는 촌락 유적은 40개 가량인데, 여기에서 출토된 토기는 대량 생산되던 것으로 짐작된다. 집을 짓는 벽돌의 규격도 같으며, 도장도 같은 모양에 동일한 문자가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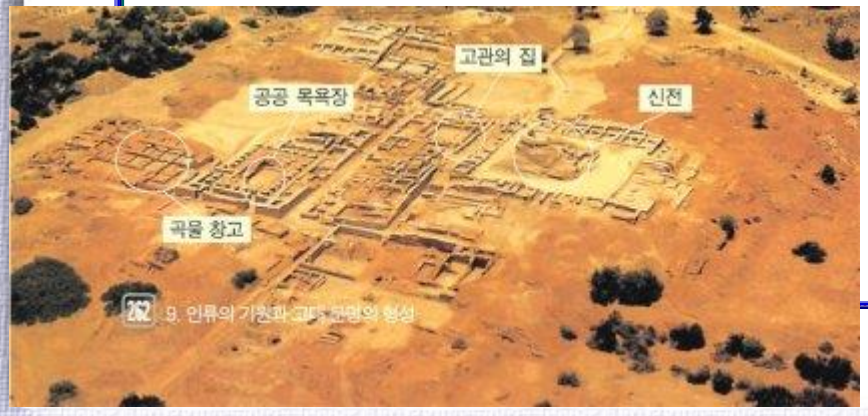


<< 인더스 문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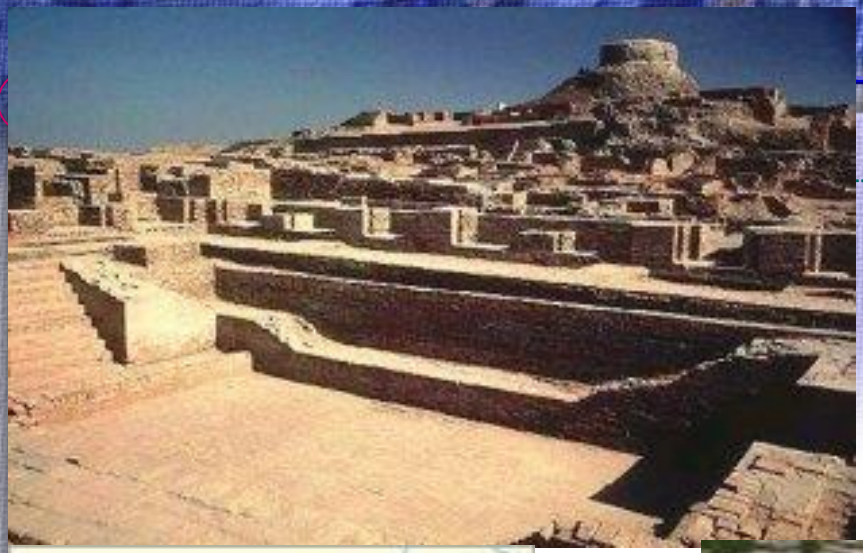
인더스 문명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은 일반적으로 스테아타이트로 만든 도장인데 그 종류와 질이 독특하다. 측면의 길이가 19~32㎜인 4각형이며 뒷면에는 손에 잡고 걸기 위한 구멍 뚫린 돌기가 있다. 작은 끌과 송곳을 사용해 매우 아름다운 음각 문양을 조각했는데, 이런 문양은 코끼리 · 호랑이 · 코뿔소 · 영양과 같은 실제 동물에서 복잡한 모습을 한 공상적인 동물까지 다양했고, 때로는 사람의 모습도 조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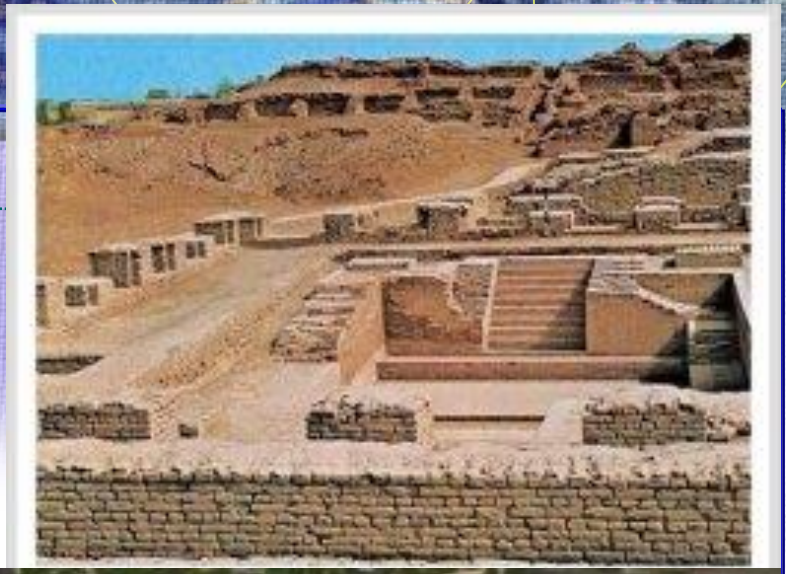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도장에는 후대 힌두교의 위대한 신 '시바'의 원형을 조각한 듯하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끈다.
대부분의 도장에는 인더스 문자로 씌어진 짤막한 문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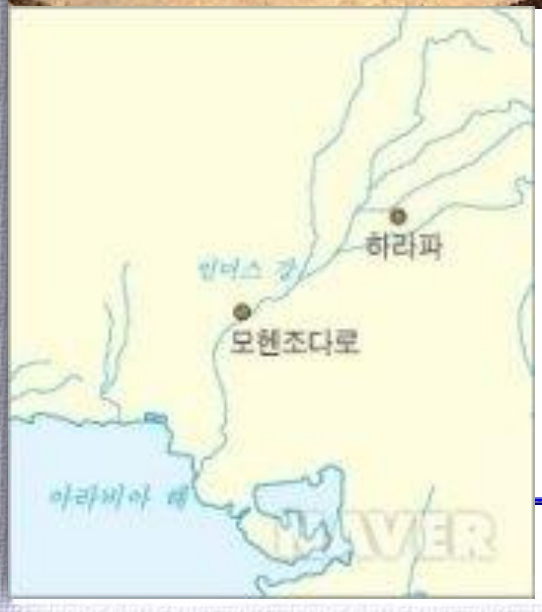




<< 인더스 문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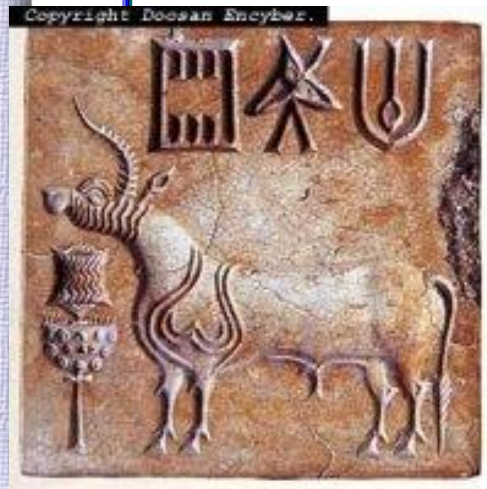


<< 인더스 문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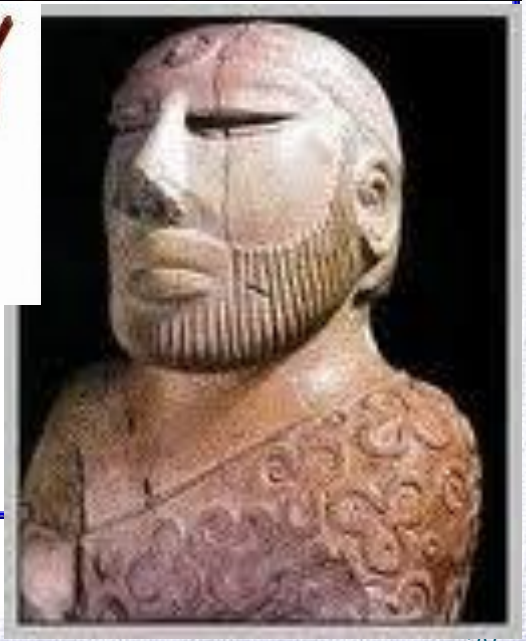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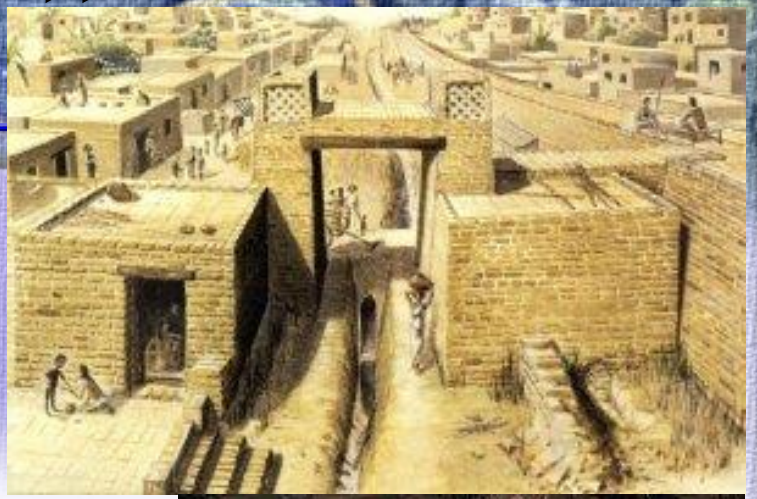






<< 인더스 문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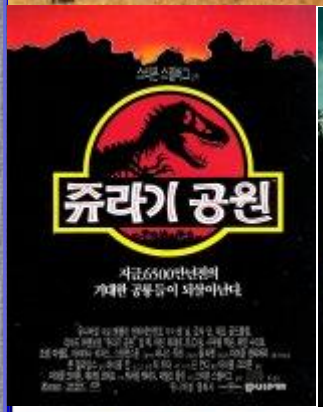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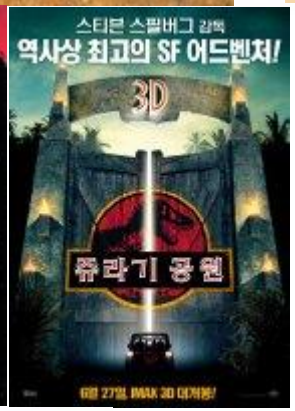
<< 인더스 문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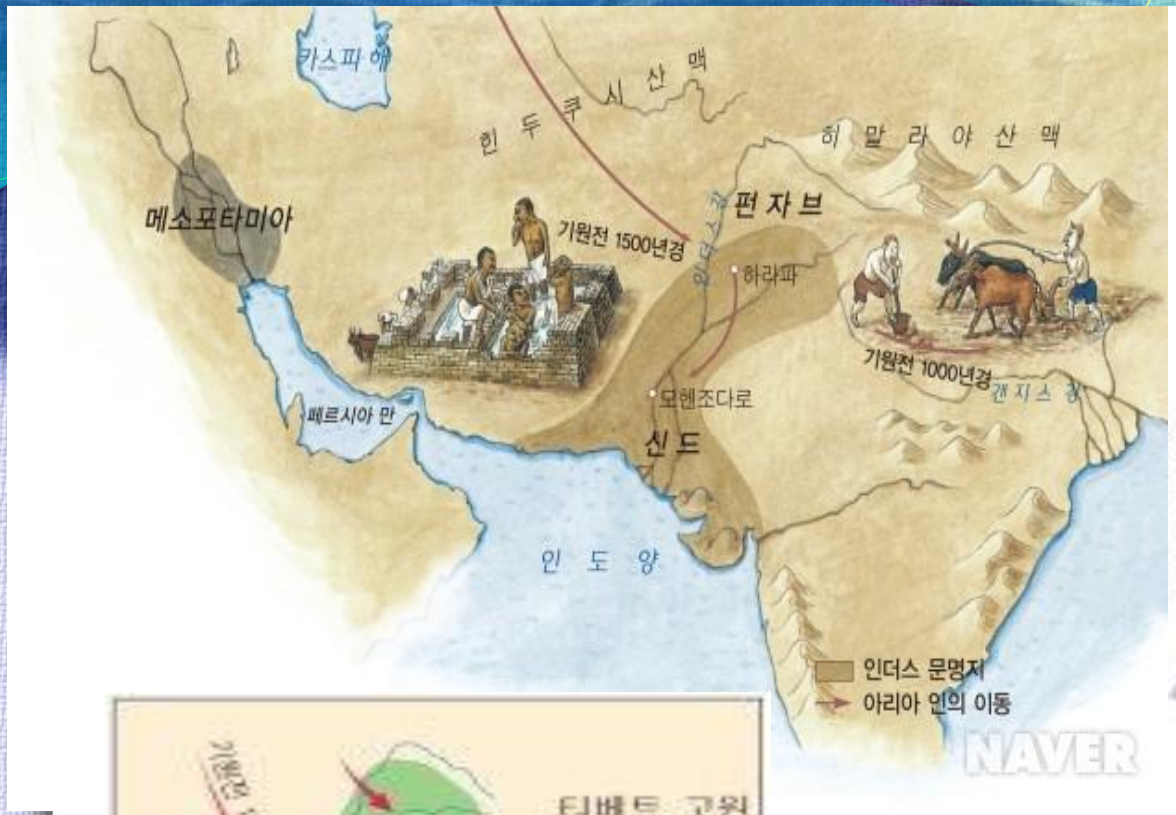






줄기세포 황우석 박사의
매머드 복원 시도









카스트 제도
'카스트'는 포르투갈 인들이 붙인 이름으로, 인도인들은 그들의 계급 제도를 '바르나(색깔)'라고 부른다. 지배층인 아리아 인과 피지배층인 선주민의 피부색이 다른 데서 비롯되었다

주요 고대 문명

지중해 동부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는 크레타 섬의 미노아 문명(Minoan civilization)과 그리스 남부의 미케네 문명(Mycenaean civilization)이 차례로 등장하며, 궁극적으로 고대 그리스 문명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들 에게 해 지역에서 고대 문명은 풍부한 농업생산에 힘입어 사회가 내부적으로 번영함에 따라 탄생했다는 해석도 있다. 그렇지만 문명으로의 성장 과정에서 동쪽으로는 멀리 서남아시아에서, 가까이는 터키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지중해 동안(東岸), 또 서쪽으로는 아드리아 해 연안과 시실리와 사르디니아와의 직 · 간접적인 교역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기원전 1000년대 동안 메소포타미아와 환지중해권의 여러 집단 사이에는 복잡한 정치 · 군사적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미노아에서 미케네를 거쳐 고대 그리스 문명이 성립되는 과정은 그러한 국제정세와도 밀접하게 관계된다.

기원전 2000년 무렵 확립된 미노아 문명의 뿌리는 크노소스를 중심으로 기원전 6100년경 확립된 농경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이곳 주민들은 기원전 3700년 무렵부터 농산물 등의 풍족한 기초자원을 가지고 장거리 교역에 나서 큰 번영을 누렸다. 문명의 전성기는 기원전 1700년 무렵에서 1450년 사이로, 그 면모는 크노소스 궁전 유적이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기원전 1600년대 말 있었던 화산 폭발로 미노아 문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기원전 1400년 무렵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진 상태에 다다랐던 미노아 문명은 기원전 1325년 무렵 미케네인의 침입으로 크노소스가 파괴됨으로써 사라지게 되었다.

미노아 문명의 지배자는 전제군주는 아니었지만 제정일치적인 면모가 강해 종교는 궁전 중심으로 행해졌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종교적 목적에서 인신 희생이나 심지어 인육을 먹던 풍습도 있었다고 한다. 미노아 문명은 미케네 문명과 마찬가지로 도시를 만들지 않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촌에서 살았으며, 문명의 면모는 화려한 궁전과 지배계급의 무덤을 통해 엿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주요 고대 문명

미케네 문명은 산악 지형인 그리스 곳곳에 발달한 청동기시대 후기의 마을 중의 하나로부터 시작해, 내륙과의 교역을 통해 점차 세력을 키워 기원전 1600년 무렵이면 견고한 성채와 화려한 지배자의 무덤에서 문명의 면모가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미케네를 지배하던 역대 왕은 호머가 서사시에서 묘사한 것처럼 말과 전차를 다루는 데 능숙한 전사였다. 미케네는 미노아를 무너뜨린 다음부터 에게 해의 교역, 특히 금속 광물 교역을 독점하며 더욱 번영하였고, 교역상 필요에서 미노아 문명이 만든 선형문자 A(Linear A)를 발전시킨 선형문자 B(Linear B)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미케네도 기원전 1150년 무렵 사회 내부의 갈등과 거듭된 흉년으로 무너지게 되었다.

이 무렵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에서도 히타이트 왕국이 외부의 침입자에 의해 멸망하였는데, 이러한 두 중심세력의 몰락으로 지중해 세계의 정치 · 경제 지형은 크게 바뀌었다, 그 결과 그리스의 여러 작은 도시가 지중해 연안 전역으로 진출해 식민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기원전 8세기가 되면 그리스 고대 문명이 에게 해 연안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기원전 1000년 무렵부터 에트루리아인들의 도시국가가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들어서기 시작했고, 기원전 509년 로마인들이 에트루리아인을 로마에서 몰아내며 로마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중남미

남북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좁고 긴 지형의 중남미 지역에서는 멕시코 중부 산악지대에서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의 접경 지역에 걸쳐 고대 문명이 번창하였다. 중남미 문명의 성장과 발전 과정의 설명에서는 생태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한 요인으로는 첫째, 잦은 화산활동으로 복잡한 지형이 만들어졌고 식량자원의 분포도 큰 편차를 보이게 되었다는 점, 둘째, 가축으로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이 극소수라는 점, 셋째, 다른 문명 중심지와는 달리 대하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주요 고대 문명

문명을 가능하게 해준 농경은 옥수수, 콩, 호박을 중심으로 멕시코 산악 지대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농업 생산성은 기원전 2000년 무렵 높은 수준에 다다라 각지에 농경사회가 성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원전 1500년 무렵 국가 형태의 사회가 멕시코 만 남안 지역에서 등장하였다. 이 최초의 국가는 올메카(Olmeca)라 불리는데, 일부에서는 올메카를 두고 이후의 모든 중남미 고대 문명의 모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올메카는 기원전 500년 무렵까지 존속하였으며, 독특한 석상과 피라미드가 있는 종교 · 제의 중심지가 중요한 유적으로 남아 있다. 올메카가 존속하는 동안 인접한 유카탄(Yucatán) 반도에서는 마야 문명의 전단계 사회가 펼쳐지고 있었으며, 산악 지대에서는 북쪽의 멕시코 분지와 남쪽의 오악사카(Oaxaca) 분지에서 각각 문명을 향한 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다.

멕시코 분지와 오악사 분지가 본격적인 문명 단계로 접어든 것은 각각 기원전 600년과 기원전 500년 무렵부터이다. 두 지역에서는 각각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과 몬테알반(Monte Alban)이라는 중심지가 기원전 400년경 건설되었다. 기원후 3세기에서 7세기 동안 오악사 분지의 전체 인구는 11만 5,0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중 15% 가까이가 몬테알반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테오티우아칸에는 기원후 2세기 중엽에서 6세기에 걸친 전성기에 12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높이 64m에 달하는 태양의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선 이 두 도시는 기원후 700년 무렵까지 멕시코 산악 지대의 정치 · 경제적 중심지였으며, 전성기의 테오티우아칸은 제국 수준의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6세기에 들어와 산악 지대 곳곳에서 여러 도시국가가 성장하며, 이 두 도시는 700년 무렵 폐기되어 문명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었다. 이후 산악 지대는 10세기에 서북쪽에서 내려왔다고 전해지는 호전적인 톨텍(Toltec)이 차지하였다. 톨텍의 수도는 툴라(Tula)에 있었는데, 저지대로도 진출해 마야 문명의 중심 도시의 하나인 유카탄 반도의 치첸이트사(Chichén Itza)까지 차지하기도 했으나 1160년 멸망하였다. 이후 산악 지대에는 1300년경부터 아스테카 문명이 들어서 1519년 스페인에 정복당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정복 당시 아스테카 문명의 주요 거점에는 120만 명이 살고 있었으나, 1680년에는 불과 7만 명이 살고 있었다.

주요 고대 문명

이러한 산악 지대의 여러 문명도 중요하지만, 중남미의 고대 문명의 특징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와 과테말라, 벨리즈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저지대에 들어선 마야 문명이 잘 보여주고 있다. 마야 문명의 싹은 올메카가 존재하던 때부터 찾을 수 있는데, 기원전 1500년 무렵부터 기원후 250년 무렵까지의 이 마야 문명 형성기를 가리켜 선고전기(Pre-classic)라고 한다. 선고전기 동안 넓은 지역에 걸쳐 공유된 종교적 의례행위와 교역망은 문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야 사회가 본격적인 문명 단계에 접어든 250년 무렵부터 9세기 말까지의 전성기는 고전기(Classic)라 하며, 이후 유럽인이 진출하기까지의 시기를 후고전기(Post-classic)라고 부른다. 고전기에는 티칼(Tikal), 우악삭툰(Uaxactun), 팔렌케(Palenque), 코판(Copan)이라는 4개의 수도와 함께 치첸이트사 등의 여러 도시가 건설되었다. 이러한 도시에는 피라미드와 광장 등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최근 마야 문자가 해독됨에 따라 도시의 성격과 역대 왕을 비롯한 마야 역사의 많은 점이 밝혀지고 있는데, 마야 문명은 하나의 동질적인 사회가 아니었다. 마야가 문명으로서 통일성을 유지했던 것은 정치 ·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종교의 공유 때문이었다. 정치적으로 마야는 한 사람의 중앙 권력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 도시의 지배자들이 권력을 나누고 있었고, 도시 사이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했으며, 그에 따라 세력 판도에도 쉬지 않고 부침이 있었다. 마야 문명은 7세기에 들어 정점에 다다랐으나, 8세기 말부터 갑자기 쇠락해 도시 거주민은 1/3 수준으로 줄고 지배집단의 자취가 사라지며, 9세기 말 도시는 폐허가 되고 문명은 붕괴하였다. 마야 문명의 붕괴에 대해서는 도시 사이의 전쟁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지만, 장기간에 걸친 환경의 파괴와 그로 인한 농업 생산력의 저하와 인구감소도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여겨진다.

안데스

안데스의 고대 문명은 잉카 문명이 대표한다. 그러나 전설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잉카 제국이 건설된 것은 기원후 1200년 무렵이기 때문에, 잉카 문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등장한 고대 문명인 셈이다. 잉카제국의 뿌리는 14세기에 안데스 고산 지대에서 여러 부족이 강력한 군사적 동맹체를 맺기 시작한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15세기에 들어와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는 왕이 통치하는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였다. 잉카 왕국은 효율적인 통치술과 용인술로써 급격히 세력을 팽창해 15세기 말 주변의 여러 민족을 정복한 대제국이 되었으나, 1532년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다.

주요 고대 문명

그러나 잉카 문명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안데스 고산 지대에서는 기원전 2000년 무렵 이래 여러 문화가 명멸하며 이어지고 있었다. 즉 잉카 문명은 페루 고산 지대에서 기원전부터 이어진 문화 전통의 최후 단계의 한 양상으로서, 잉카의 여러 문화 요소는 기원전 900년 무렵 등장한 차빈(Chavin) 문화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 이후 계속 이어져 내려와 궁극적으로 잉카 문명이 탄생하게 되었다. 고산 지대에서의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태평양 해안 저지대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전개되었다. 해안 지역에서는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후 600년 사이에 모체(Moche)와 나스카(Nazca) 국가가 등장하였고, 1000년 무렵에는 찬찬(Chan Chan)과 같이 잉카 유적에 비견할 만한 도시 유적을 남긴 치무(Chimu) 고대국가가 성립되었다.

잉카는 과거부터 전해 내려온 행정체계를 더욱 효율화해 정복지와 정복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치조직과 조세제도를 완성하였고, 고도로 발달한 도로망을 건설함으로써 제국을 운용할 수 있었다. 국민 개인도 엄격한 신분제도와 법질서 속에서 조직화되었는데, 이러한 제반 사회조직과 운영을 위한 기록 체계로서 키푸(quipu)라 불리는 결승문자 체계를 고안하였다. 인구는 6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사람들은 주로 종교와 정치 중심지 주변의 작은 마을에 흩어져 살았다. 마추픽추(Machu Picchu) 같은 잉카의 정치 · 종교 중심지에 남아 있는 건축물은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잉카제국은 제국의 영역이 확장되며 통치에 큰 곤란을 겪기 시작했는데, 스페인 세력이 마침 이러한 때 나타남으로써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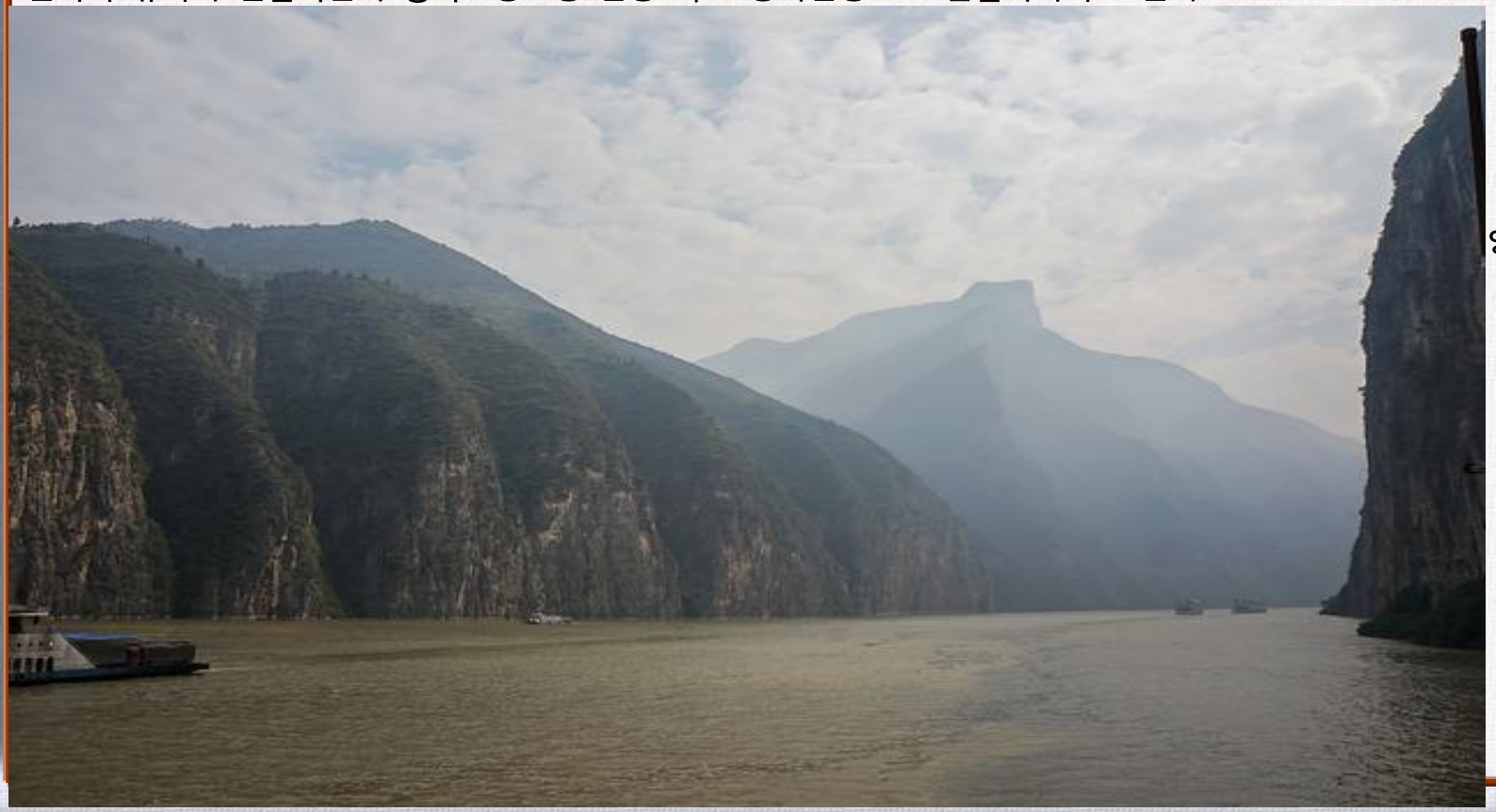
중국

황하 유역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로 잘 알려진 곳으로서, 여러 선사문화 단계를 거쳐 하(夏) · 상(商) · 주(周)의 고대 문명이 확립되었다. 중국에서 농경은 기원전 7000년대 자리를 잡았으며, 기원전 4000년 무렵이면 전역에 안정된 농경사회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각지에서 인구증가와 사회분화가 일어나며 도시적 성격의 마을이 서서히 성립되어, 기원전 2000년 전후에는 문명 단계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중국 고대 문명에서 도시는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다.

주요 고대 문명

황허 문명

기원전 5000년경, 중국 쿤룬 산맥에서 발원한 황허 강 중하류 지역에서 발생했다. 황허 강 유역의 황토는 땅이 비옥하여 농경문화가 발달하기에 적합했다. 문화적으로는 양사오 문화와 룽산 문화가 발달했으며, 하(夏)나라와 은(殷)나라가 건국되기도 했다. 유적으로는 은나라의 갑골문자가 전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양쯔강 유역에서도 신석기 유적이 발굴되면서 황허 · 양쯔강 문명 혹은 중국문명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양쯔강

<< 황하 문명 >>




베이징
보하이만
은허
낙읍(뤄양)
호경(시안)
양쯔 강
하의 세력 범위
은의 세력 범위
주의 세력 범위


AFP-뉴시스


동북공정
너머
요하문명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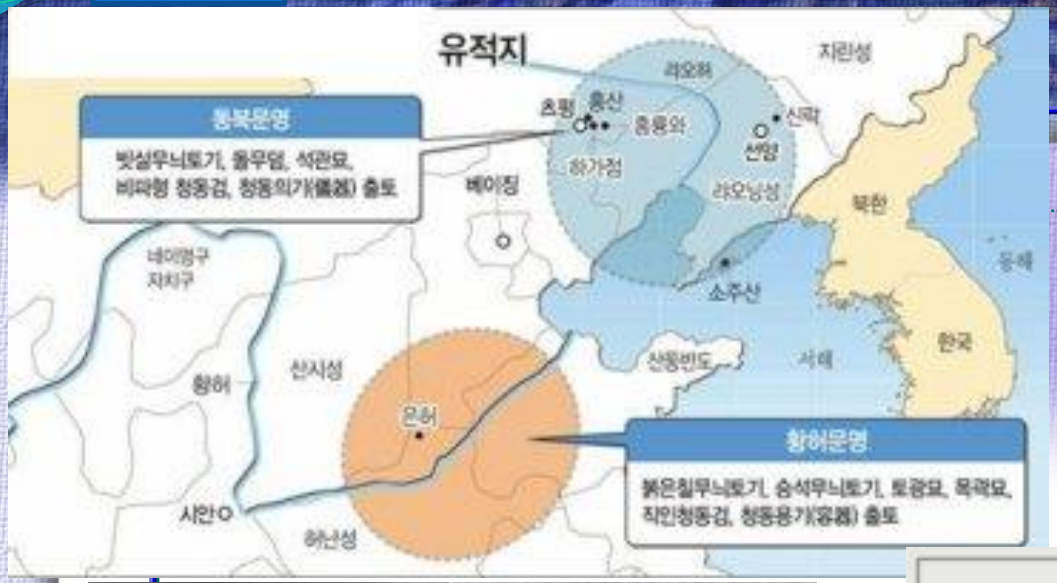
<< 황하 문명 >>

황허문명은 황허 유역에서 나타난 중국의 고대 문명을 통틀어 나타내는 말이다. 양쯔강[揚子江] 문명과 함께 중국의 고대 문명을 대표한다. 신석기 시대에 나타난 양사오 문화[仰韶文化]와 룽산문화[竜山文化] 등을 거쳐 상(商)과 주(周)의 청동기 문화로 발전하였고, 양쯔강과 랴오허[遼河] 유역에서 나타난 여러 문화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융합하여 중국 문화의 기틀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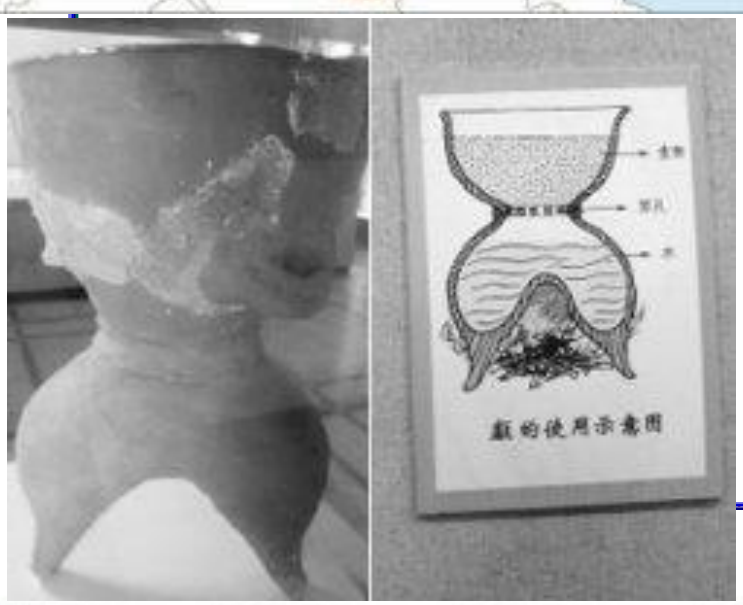
1921년 중국의 허난성[河南省] 민츠현[澠池縣] 양사오[仰韶]에서 신석기 시대의 대규모 취락지가 발굴된 뒤, 황허 유역에서는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와 관련된 고고학적 발견이 잇달아 이루어졌다. 그 뒤 학계에서는 황허문명[黃河文明]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중국 문명이 황하 유역에서 시작되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그 뒤 중국의 각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석기 문화가 발견되면서 이러한 학설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1973년 저장성[浙江省] 닝사오[寧紹] 평원의 허무두[河姆渡]에서는 벼농사와 고상식(高床式) 건축물 등의 유적이 발굴되어, 양쯔강[揚子江] 유역에서 양사오[仰韶] 문화와 비슷한 시기에 황허문명과는 다른 계통의 수준 높은 신석기 문화가 발달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둥베이[東北] 지방의 랴오허[遼河] 유역에서도 황허문명과 다른 계통의 신석기 유적들이 발굴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황허문명[黃河文明]에서 중국의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학설은 인정되지 않으며, 중국에서 나타난 고대 문명은 '중국문명(中國文明)' 혹은 '황허 · 양쯔강문명[黃河揚子江文明]'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 황하 문명 >>


유적지
동북문명
빗살무늬토기, 돌무덤, 석관묘,
비파형 청동검, 청동의기(祭器) 출토
황하문명
붉은칠무늬토기, 채색무늬토기, 토광묘, 목곽묘,
직인청동검, 청동용기(容器) 출토
랴오허
지린성
홍산
초평
중용와
신락
선양
하가점
베이징
랴오닝성
북한
동해
네이멍구
자치구
소주산
한국
산둥반도
서해
황허
산시성
은허
시안
허난성






중국
지린성
창투
선양
랴오닝성
진저우
만리장성
요동만
중국이 새로 발표한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
압록강
단둥
후산
북한
신의주
산하이관
요동반도
지료:장성망(長城網)

<< 황하 문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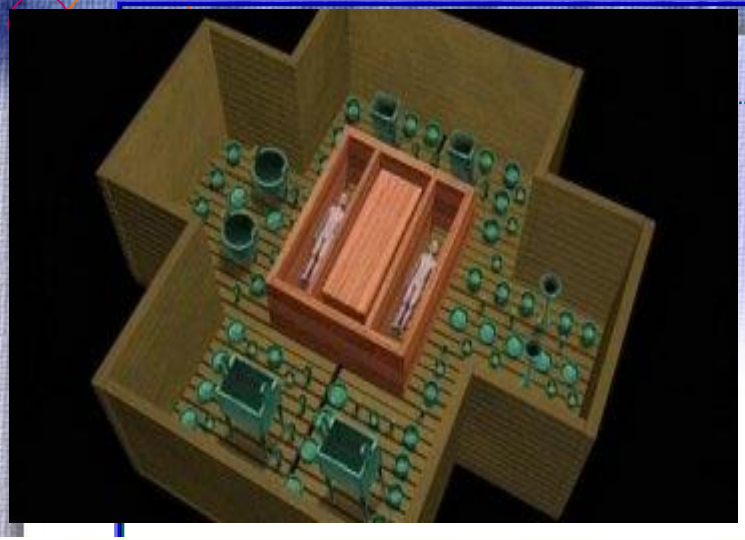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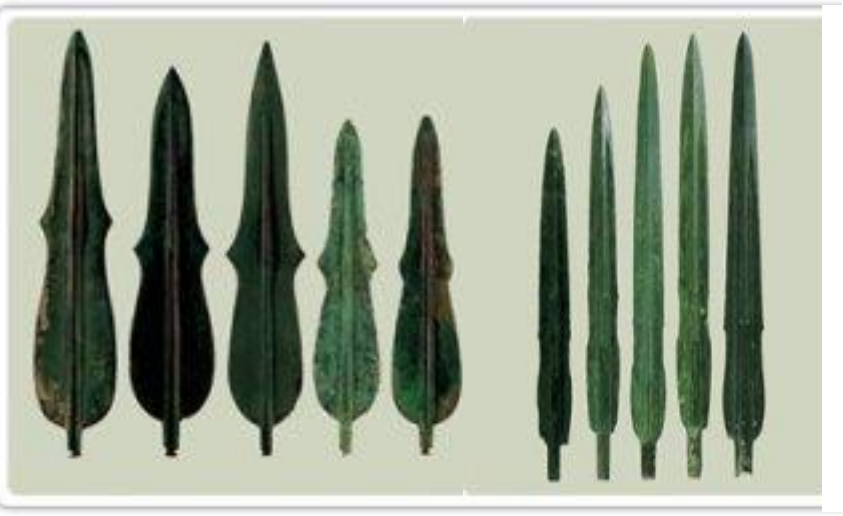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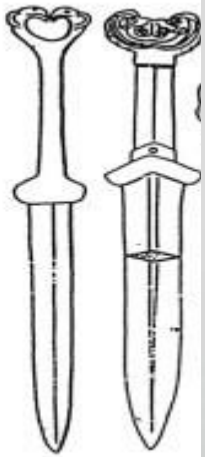


<< 황하 문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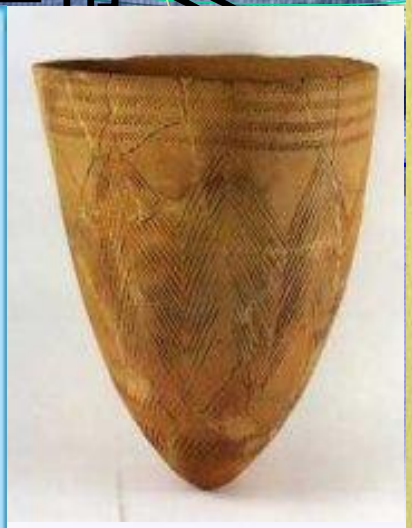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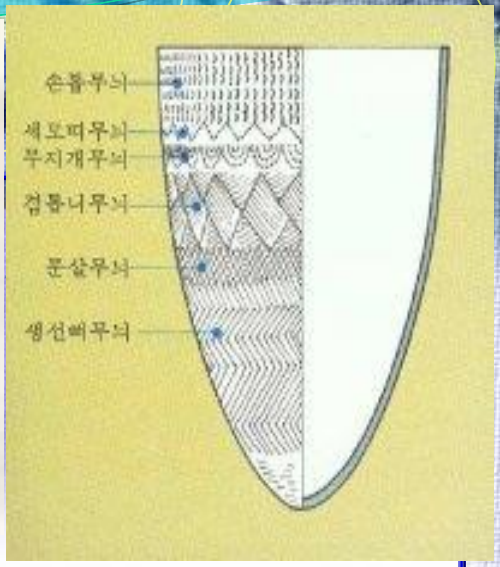







발해연안 빗살무늬토기 분포도
라오허
싱룽와 다링허 치허이
초펑
링위안 차오양
선양
환허
카쥐
압록강
의주
베이징
창신
랑잉
봉신
창허이
라오데산
쿼순
발해만
서울
울산
부산
김해
통영
옌해안선
신룽반도
우안
카이펑
신정
옌해인선




손톱무늬
새모띠무늬
무지개무늬
겹톱니무늬
문살무늬
생선뼈무늬


즐문토기 문화권
채도 문화권





주요 고대 문명

중국 문명의 형성 과정은 청동기 제작 기술, 토기 제작 기술, 방어용 구조물의 건축, 전쟁, 사회 계층화를 반영하는 예술 양식, 제의용 옥기, 복골(卜骨) 및 매장 양식을 비롯한 중요한 문화 요소가 기원전 2000년대 동안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 고대 문명은 황하 중류 지역이 중심지로서 이후 사방으로 확산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양자강 상류의 고립 지역인 사천(四川)에서는 삼성퇴(三星堆) 같은 유적에서 보듯 중원의 상 문명과 같은 시기에 독자적인 성격의 고대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양자강 중하류 이남의 화남이나 내몽고, 만주 지역에서도 황하 지역과 같은 문명 단계는 아니지만, 기원전 1000년대에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회가 성립되었다고 보인다.

동남아시아

중국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인도차이나 반도는 일찍부터 서남아시아, 중남미, 중국과 더불어 농경이 독자적으로 기원했을 지역의 하나로 손꼽혀 왔다. 또 태국의 논녹타(Non Nok Ta), 반창(Ban Chang) 등의 유적에서 보듯, 청동기 문화는 이곳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해 늦어도 기원전 1500년 무렵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북부 지방은 발달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기원전 1000년 무렵에 국가 단계 사회였다고 추정되는 동선(Dong Són) 문화가 확립되었다. 동선 문화의 사회는 원시국가 형태였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지만, 한의 진출 이전에 동남아시아 어디에서도 문명 단계로 진입한 사회는 등장하지 않았다.

북쪽에서 중국이 진출할 무렵에는 인도의 힌두 문명도 동남아로 진출하여, 이 양대 문명의 영향이 각지로 퍼져 나갔다. 그러한 지역 중 메콩 강 상류에서 하구에 이르는 지역은 교역 중심지로 번성하였는데, 힌두교를 믿는 여러 세력이 성장해 크메르(Khmer) 고대국가가 서서히 만들어졌다. 802년 왕위에 오른 자야바르만(Jayavarman) 2세는 여러 세력을 규합해 제정일치의 강력한 왕권이 지배하는 앙코르만달라(Angkor Mandala) 왕국을 탄생시켰다. 수도 앙코르와트(Angkor Wat) 유적으로 대변되는 앙코르 문명은 900~1200년 사이가 전성기로서, 수도 일원에는 10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

주요 고대 문명

왕은 곧 신이었던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이 곳에서도 왕, 즉 신을 위해 피라미드 건립에 맞먹는 인적 · 물적 자원을 들이며 수많은 사원과 공공시설을 끊임없이 세웠다. 도시의 전모는 왕국 멸망 이후 정글로 뒤덮여져 아직도 확연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앙코르 문명은 그러한 사회를 유지할 만큼 체계적이며 강력하게 조직되어 있지 않았는데, 13세기 말라카 해협이 이슬람 세력의 손에 넘어가고 종교적 평등을 내세운 이슬람교가 확산되며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해 1430년 소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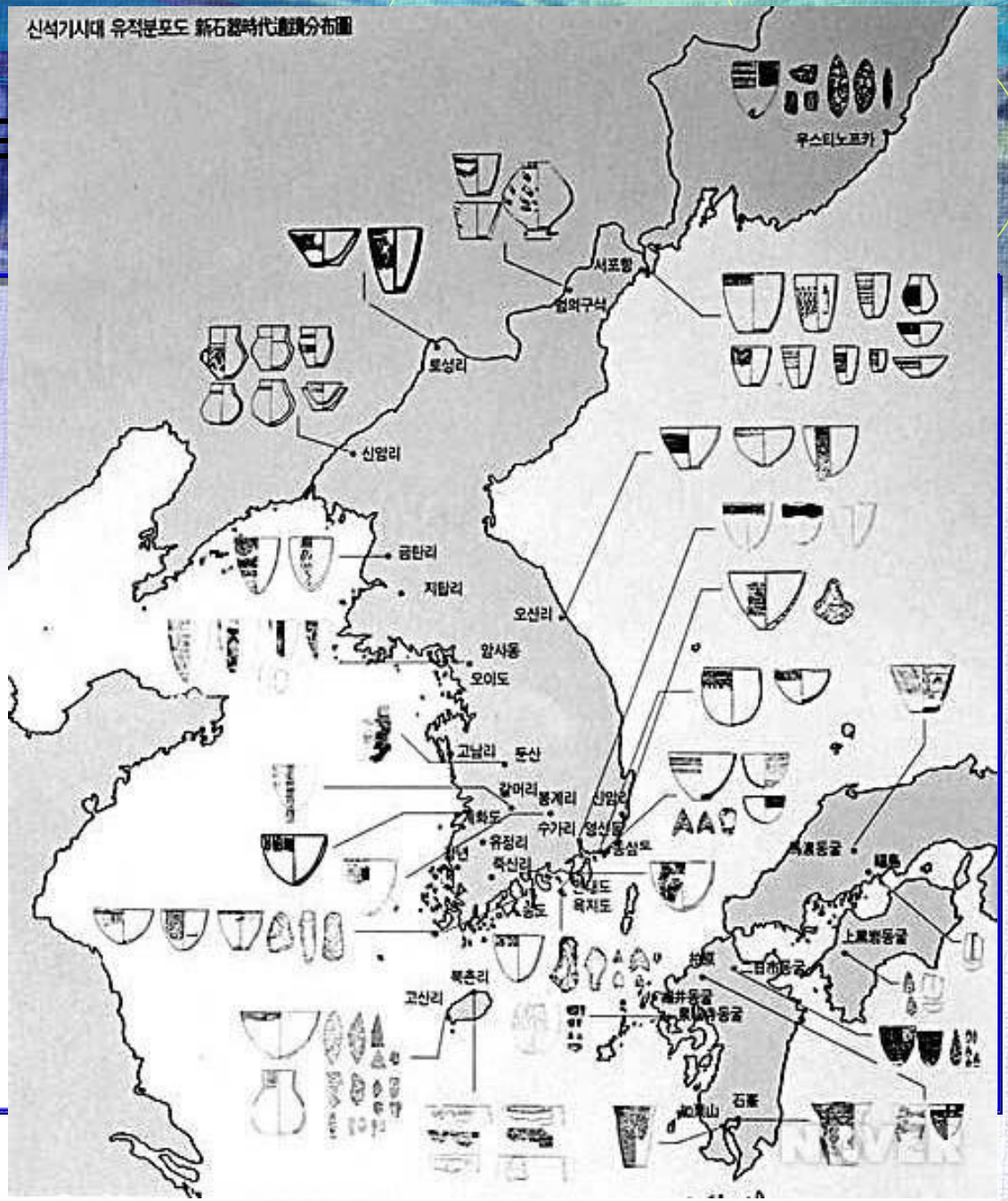
집필

이선복(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참고문헌
고든 차일드, 고일홍 옮김, 『인류사의 사건들』 (한길사, 2011).
마르크 반 드 미에룹, 김구원 옮김, 『고대 근동 역사-B.C. 3,000년경 ~ B.C. 323년』 (CLC, 2010).
브라이언 페이건, 이희준 옮김, 『세계 선사 문화의 이해-인류 탄생에서 문명 발생까지』 (사회평론, 2011).
De Blois, L. & R. J. van der Spek, An Introduction to the Ancient World (London: Routledge, 1997).
Diamond, J., Collapse-How Societies Choose to Fail or Succeed (New York: Viking, 2005).
Feinman, G. & J. Marcus(eds.), Archaic States (Santa F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1998).
Higham. Ch., Early Cultures of Mainland Southeast Asia (London: Thames and Hudson, 2002).
Possehl, Gregory, Indus Age: The Beginning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9).
Service, Elman R., Origins of the State and Civilization - The Process of Cultural Evolution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1975).
Trigger, B. G., Understanding Early Civiliz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한국

한국의 신석기문화는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가 신석기시대의 토기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빗살무늬토기문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의 신석기문화는 토기의 변화양상을 볼 때 대략 초기, 전기, 중기, 후기의 4단계 발전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있다.



<< 스 톤 헨 지 >>

환상열석유적(環狀列石遺跡)이라고 부르는 영국의 스톤헨지(고대 앵글로색슨어로 '공중에 매달린 바윗돌' 이란 의미)는 돌을 의미하는 '스탄(stan)' 과 돌쩌귀를 의미하는 '헹그(hencg)' 라는 고대 영어 단어에서 유래.

돌기둥과 그 위에 가로로 놓인 상인방 구조를 볼 수 있다. 대략 기원전 3100년경부터 기원전 1100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세워졌다고 추정된다. 큰 돌은 높이가 7미터에 무게가 30톤쯤 된다고 한다.





<< 스 톤 헨 지 >>

선사시대인 BC 3100년 무렵부터 세워지기 시작했고, 영국 윌트셔의 솔즈베리에서 북으로 13㎞ 떨어진 곳에 있다. 드루이드와 관계가 있다고도 하나 근거는 없으며 주로 1919년부터 특히 1950년 이후 런던 고대유물협회가 실시한 발굴을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이 발굴에 따라 스톤헨지 건축은 크게 3기(Ⅰ, Ⅱ, Ⅲ)에 걸쳐 이루어졌고, 마지막 시기는 다시 3단계(Ⅲa · Ⅲb · Ⅲc)로 나눌 수 있음이 밝혀졌다.

스톤헨지 Ⅰ기(BC 3100경)에는 신석기시대인들이 사슴의 뿔을 곡괭이로 이용해 직경 98m, 폭 6m, 깊이 1.4~2m 크기의 원형 도랑을 파고, 거기서 파낸 자갈은 도랑에 높은 둑을 쌓는 데 사용했다.

둑 바로 안에는 원형으로 배치된 56개의 구덩이(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오브리 구덩이'로 불림)와 북동쪽 둑이 터진 곳에서 밖으로 뻗어난 통로에 35t 무게의 사암표석덩어리를 세웠다. 이 구덩이들은 파고난 직후 다시 메워진 것으로 보인다.

스톤헨지 Ⅱ기(BC 2100경)에는 전반적으로 개축하여 통로를 동쪽으로 약 3.2㎞ 떨어진 에이번 강까지 연결시키고, 유적 중심부에는 청석(靑石)이라 불리는 4t짜리 화성암 기둥을 2중 동심원 형태로 세웠다. 이 돌은 약 385㎞ 떨어진 웨일즈 지방의 프레셀리 산에서 바다나 강, 또는 육로를 통해 직접 또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2단계에 걸쳐 수입한 것들이었다. 최초에 세운 청석의 입구는 하지에 해가 뜨는 방향에 맞추어 배치되었고, 스톤헨지에 가장 가까운 통로도 같은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이중원의 석렬(石列)은 완성되지 못했고 다음 시기에는 해체되었다.

<< 스 톤 헨 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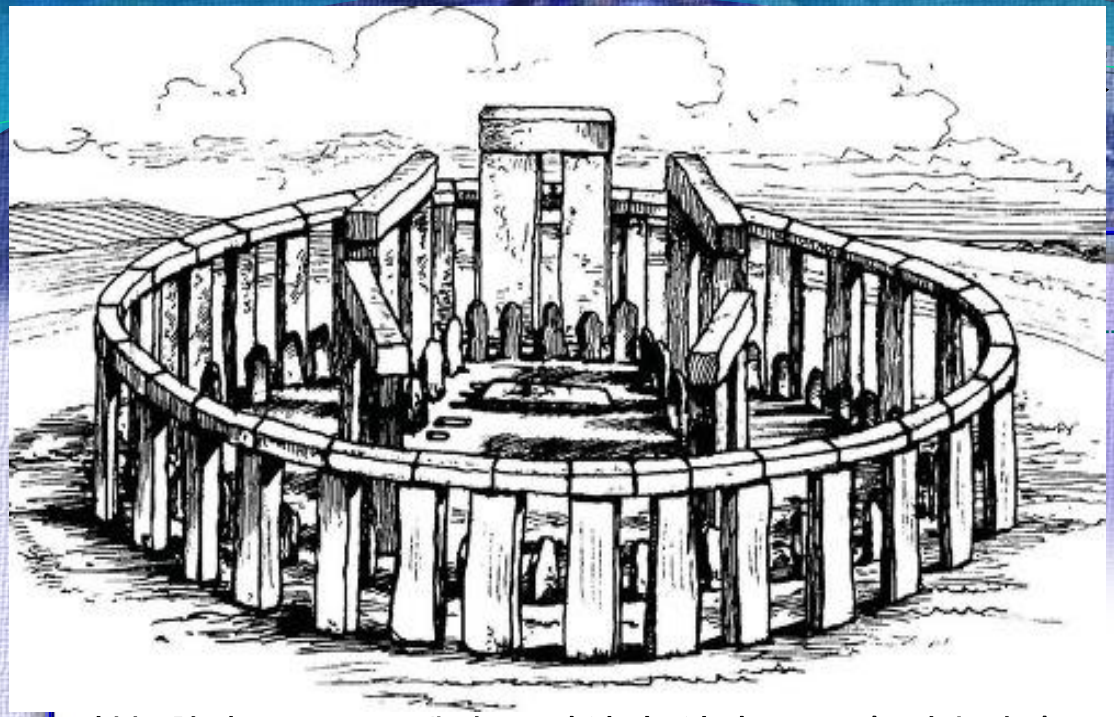
스톤헨지 IIIa기(BC 2000경)에 이 기념물은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거대한 표석덩어리로 된 30개 기둥으로 구성된 원이 가운데 말발굽 모양으로 배치된 5개 삼석탑(三石塔)을 에워쌌는데, 이 삼석탑은 1쌍의 큰 돌에 상인방돌 하나를 얹어 이루어진 것으로 길이 8m, 무게 50t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를 보여준다. 이것은 유럽 거석기념물 중에서 독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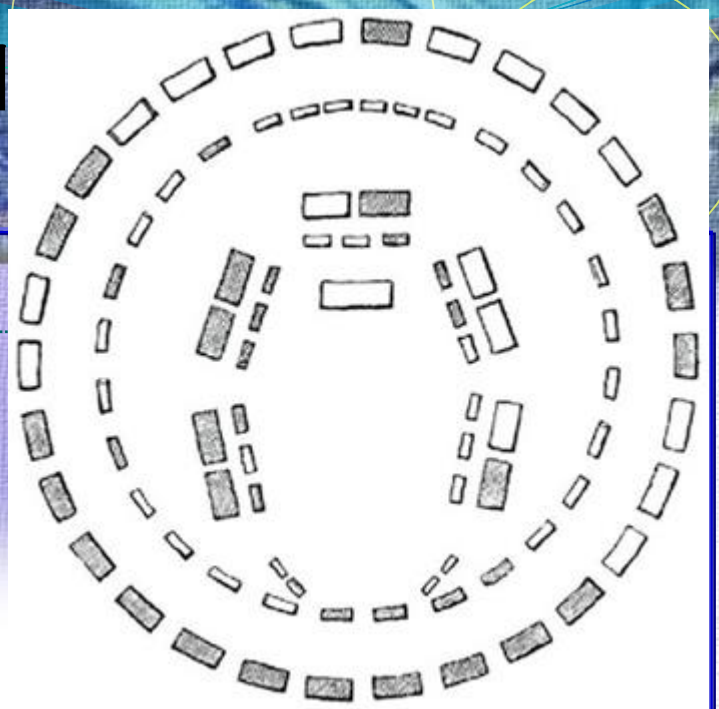
겉면이 돌 해머로 두드려 잘 다듬어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리스 미케네 문명과 크레타 미노스 문명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은 고고학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스톤헨지 IIIb기에는 스톤헨지 II기에 세웠던 청석 중 약 20개를 다시 다듬고 타원형으로 배치하여 세웠다. 그 배치형태는 오늘날 볼 수 있는 내부의 말굽형 청석의 선과 대체로 일치한다. 스톤헨지가 세워진 마지막 단계인 스톤헨지 IIIc기는 BC 1400년 전에 끝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시기에는 스톤헨지 IIIb기에 건립한 타원형 구조를 해체하고 오늘날과 같은 원형과 말굽형 구조로 재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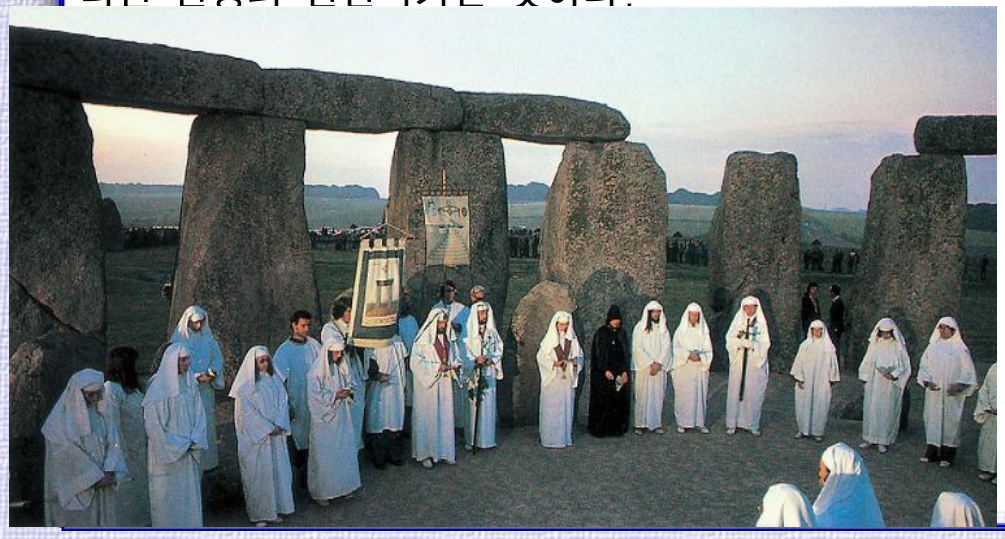
스톤헨지는 일종의 종교적 숭배장소로 건설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어떤 성격의 종교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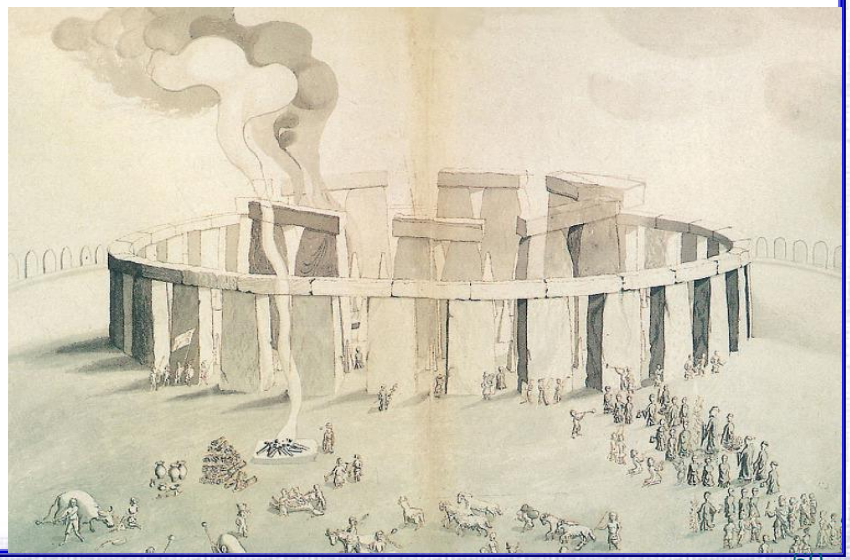
중심축을 1년 중 중요한 날에 해와 달이 뜨고 지는 방향과 나란히 배치한 사실은 스톤헨지가 하늘을 숭배하던 사원이었다는 일반의 생각을 뒷받침해주지만 이 증거 역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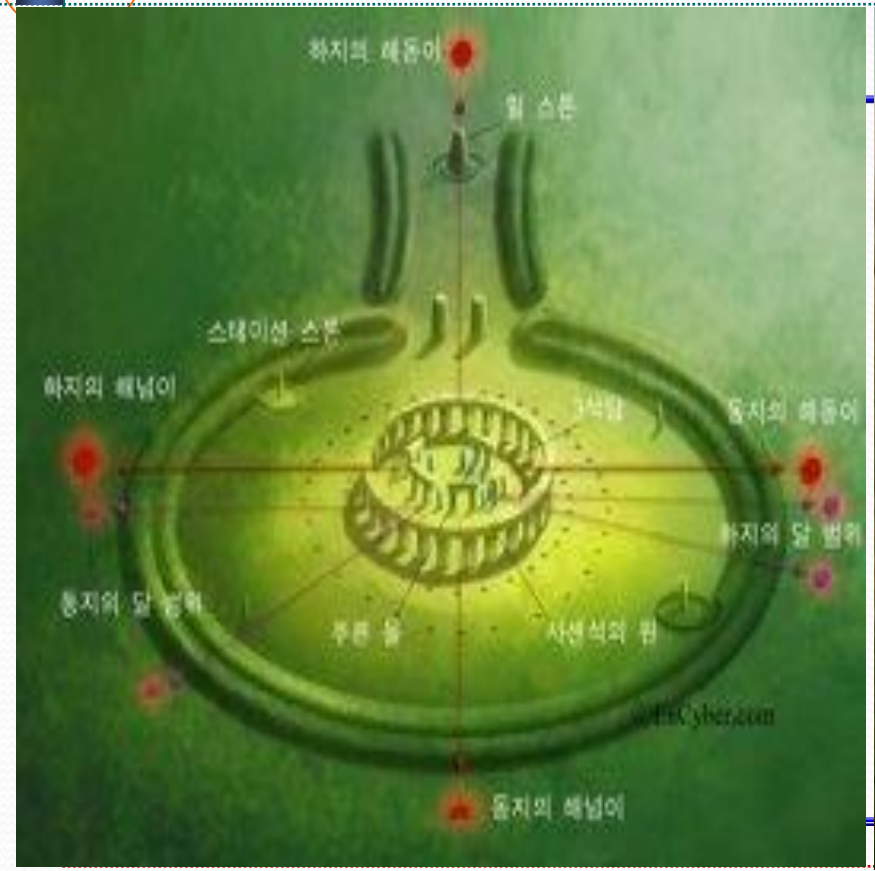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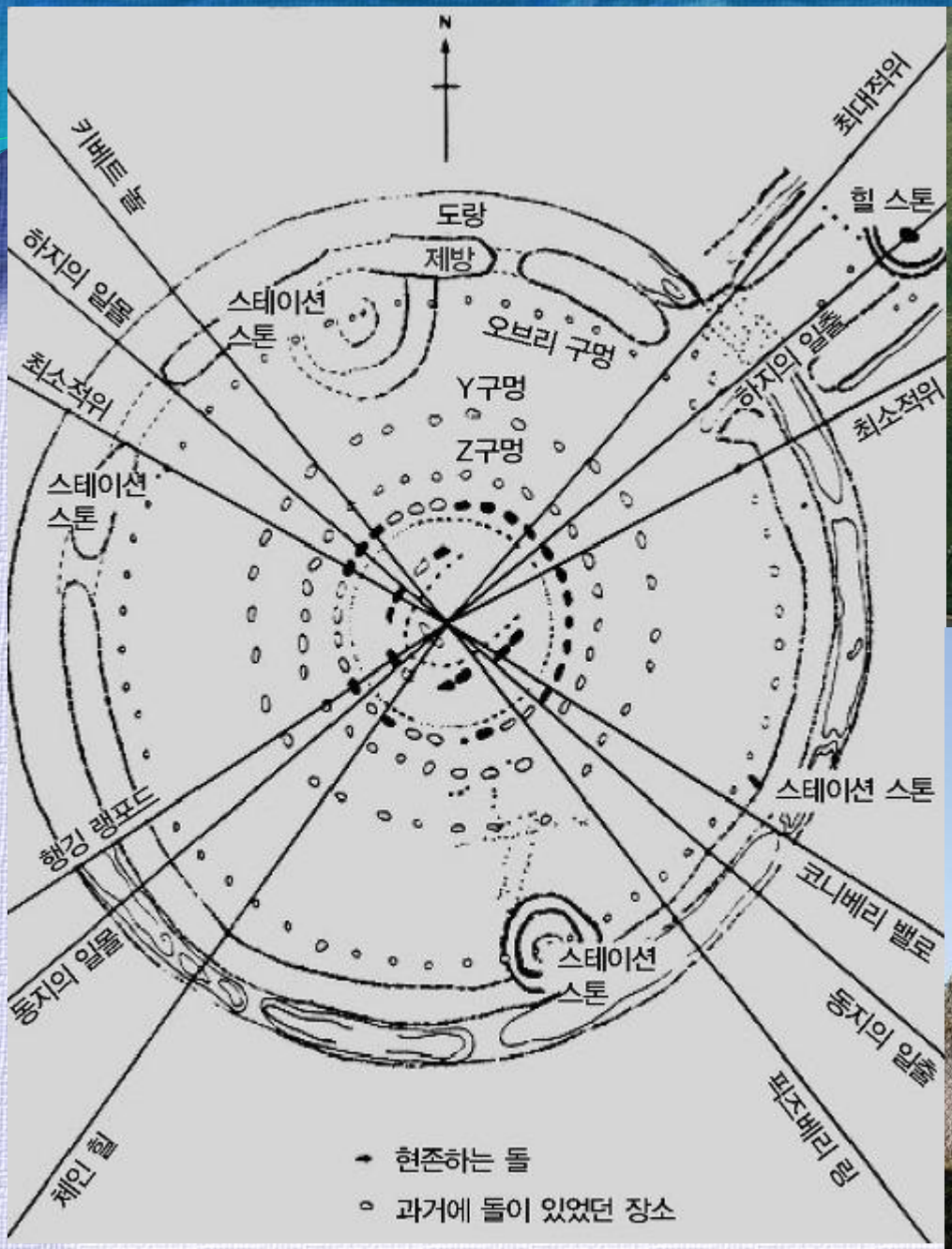
일부 학자들은 스톤헨지를 여성의 성기 구조와 비슷하다고 본다. 대지의 어머니를 숭배하는 신앙, 다산 신앙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하지의 해돋이
힐 스톤
스태이션 스톤
하지의 해넘이
동지의 해돋이
하지의 달 범위
동지의 달 범위
주출 돌
사생석의 귀
동지의 해넘이




N
키베트 돌
하지의 일몰
최소적위
스테이션 스톤
행깅 랭포드
동지의 일몰
체인 힐
도랑
제방
스테이션 스톤
오브리 구멍
Y구멍
Z구멍
스테이션 스톤
최대적위
힐 스톤
하지의 일출
최소적위
스테이션 스톤
코니베리 밸로
동지의 일출
피즈베리 링
현존하는 돌
과거에 돌이 있었던 장소





<< 스톤헨지 주변 다른 거석유적 발견 >>

고대 그리스는 기원전 800년 무렵부터 생겼으며, 당시 그리스는 지금처럼 하나의 국가영국 남부 윌트셔 주 솔즈버리 평원에 서있는 선사 시대 거석유적지 스톤헨지로부터 불과 3km 남짓 떨어진 지점에서 또다른 거석 유적지가 발견돼 고고학계가 흥분하고 있다.영국 언론들은 새로 발견된 선사시대 거석 유적지를 '제2의 스톤헨지' '미니 스톤헨지' 등으로 부르며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브래드포드대 고고학과의 빈센트 개프니 교수는 6일(현지시간) 브래드포드에서 개최된 '영국 과학페스티벌'에서 스톤헨지 근처의 땅 속에서 90여개의 거석들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개프니 교수에 따르면 이 거석들은 약 4.5m 높이로, 일명 '듀링턴 월스(Durrington Walls)'의 주변에 흩어져 있다. '듀링턴 월스'는 스톤헨지에서 에이번강을 따라 2.5km 상류로 올라간 지점에 있는 약 1.5km 길이의 C자형 둔덕으로, 지난 2007년 셰필드대 고고학팀이 이 지역에서 선사시대 거주지 7곳을 발굴한 적이 있다.

발굴팀은 이 거석들이 스톤헨지와 비슷한 약 4500년 전 쯤 세워졌으며, 스톤헨지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제례를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돌의 재질도 스톤헨지와 같은 사암이다. 발굴팀은 당초 이 거석들이 지상에 세워져있었지만, 선사시대 인들이 듀리텅 월스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 거석들을 무너뜨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udwig Boltzmann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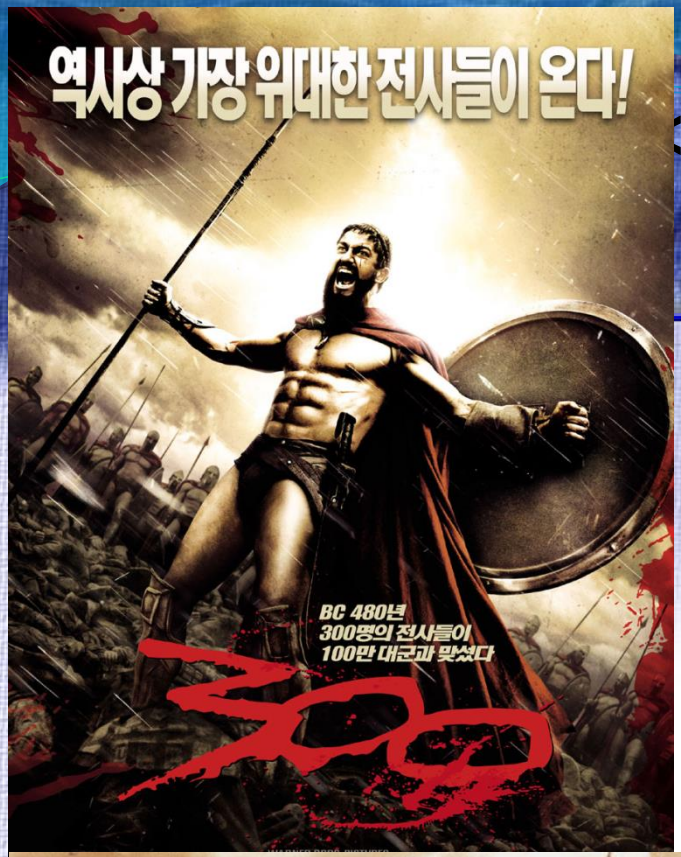


<< 그리스 문명 >>

고대 그리스는 기원전 800년 무렵부터 생겼으며, 당시 그리스는 지금처럼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같은 혈통을 가지고 같은 말과 같은 신을 모시는 민족이지만 여러 부족들끼리 나누어져 있음. 여러 부족들은 각각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공동체가 국가 형태의 도시로 발전. 이러한 도시 국가를 그리스 사람들은 폴리스라고 부름. 그리스 안에는 각각 법과 군대를 갖추고 독립성을 가진 폴리스, 즉 도시 국가들이 모여 있음.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물건을 사고파는 교역을 하거나, 그리스를 공격하는 외부의 적이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 물리침.

그리스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도시 국가에는 아테네, 테베, 스파르타, 코린토스 등. 그 가운데 가장 큰 도시 국가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아테네는 이 도시를 지키던 그리스 여신의 이름인 아테나에서 따 옴. 아테네는 지리적으로 외부의 침략이 적고 비옥한 땅과 항구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평화로운 사회였어요. 그래서 민주 정치와 문학과 미술, 건축 등 여러 문화가 발달했어요. 스파르타는 위치상 그리스 남쪽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고립. 대부분의 다른 도시 국가들이 민주 정치를 발달시켰던 것과 달리 세력 확장에 힘을 쓴 군사 국가. 스파르타는 남자 아이들이 7세가 되면 군사 교육을 시작. 스파르타의 군사 교육은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

그리스 문명은 철학과 문화에서도 눈부신 유산을 남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등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두 고대 그리스 사람이지요. 서양 철학의 대부분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을 만큼 그리스 철학은 위대했답니다. 또한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건축, 아름다운 조각과 그림,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와 같은 문학 분야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음.





BC 530년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한 다리우스 1세는 2번에 걸친 그리스 침공을 감행하지만 모두 실패.1차침공은 페르시아함대가 폭풍우를 만나 좌절.2차침공은 마라톤전투의 패배.아들 크세르크스가 BC 481년 30만 대군으로 3차 침공



테르모필레 전투의 지휘관 레오니다스

<< 그리스 문명 >>





아폴론 신전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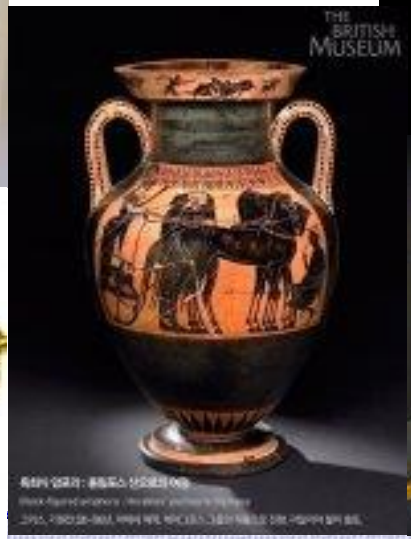











THE
BRITISH
MUSEUM


mini



<< 그리스 문명 >>





우승 뒤 쓸쓸히 퇴장하는 손기정(왼쪽), 손기정 투구(보물 제904호)



손기정기념관에 전시





<< 터키 고대 문명 >>

터키 고대문명 = 미다스왕과 트로이 전쟁신화

1. 미다스(마이다스)왕 이야기

미다스왕은 고대국가 프리기아의 왕. 프리기아는 기원전 1,500년 경 터키에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 미다스왕은 실존인물인 동시에 여러 재미있는 신화가 얽혀있는 인물.

<미다스의 황금손>
이 신화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미다스왕에게 한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 것에서 시작. 미다스왕은 '만지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능력을 얻게 됨'.그러나 이 능력을 얻은 왕은 더욱 불행해짐. 잡는 음식마저 금이 되어 먹을 수 없고 심지어 딸을 안아주려다 그녀마저 금으로 변했기 때문. 왕은 신에게 그 능력을 지워달라고 요청하고, 파크톨로스 강의 발원지에 손을 씻어 모든 것을 정리.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다스의 손'에 얽힌 신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어느 날 들의 신<판>과 태양의 신<아폴론>이 악기(리라) 연주를 벌이게 됨. 모두가 <아폴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미다스왕 혼자 <판>을 편들어 줌. 화가 난 <아폴론>이 왕의 귀를 잡아당겨 당나귀의 귀처럼 길게 만들어 버림. 평소에는 장신구로 가릴 수 있으나 결국 이발사에 의해서 들통 남. 왕의 비밀은 이발사에 의해 새어나가 바람이 불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

<< 터키 고대 문명 >>

터키 고대문명 = 미다스왕과 트로이 전쟁신화

2. 트로이 전쟁

트로이전쟁은 지금의 터키를 무대로 일어난 거대한 전쟁. 이 전쟁은 세 여신의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 먼 옛날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인간영웅 <펠레우스>의 결혼식이 열림. 대부분의 신들은 연회에 참석하지만 불화를 일으키는 여신 <에리스>는 초대받지 못함. 이 일로 화가 난 <에리스>는 황금의 사과를 만들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 사과를 바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남. 이 사과를 발견한 미의 여신<아프로디테>, 최고의 여신<헤라>, 전쟁의 여신<아테네>가 서로 다툼을 벌이게 됨. 세 여신은 트로이의 왕자<파리스>에게 판결을 부탁함. 트로이는 터키 서부지역에 위치한 고대국가. <파리스>는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대답. <아프로디테>가 그에게 내린 선물이 스파르타의 왕비<헬레나>. 스파르타의 왕<메넬라오스>는 자신의 형이자 미케네의 왕인 <아가멤논>과 함께 트로이를 공격. 오랜 시간 전쟁이 지속되자 그리스의 영웅들이 모여 <트로이 목마>작전을 꾸며 실행에 옮기게 됨. 거대한 목마에 그리스 병사들을 숨겨놓고 트로이 군사들이 목마를 성안으로 끌고 들어가게 한 다음 그리스 군사들이 기습공격. 결국 트로이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헬레나>라는 한 여자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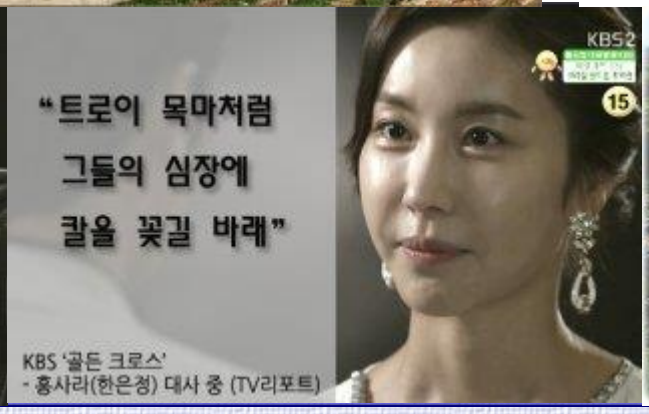

트로이

브레드 피트






KBS2
"날 너무 쉽게 보니까
서운한데?"
KBS '골든 크로스' - 강도윤(김강우) 대사 중 (TV리포트)


KBS2
15
"트로이 목마처럼
그들의 심장에
칼을 꽂길 바래"
KBS '골든 크로스'
- 홍사라(한은정) 대사 중 (TV리포트)



<< 팔미라 유적 >>

팔미라는 고대 그리스군의 전초 기지로서 중요한 장소였다가 217년 로마에 합병되면서 막강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67년부터 팔미라를 지배한 제노비아 여왕은 암살당한 남편을 대신해 팔미라의 새로운 주군으로서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군대에 맞서 싸웠다. 여왕은 271년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누스가 팔미라를 정복했을 때 감옥에 갇혔고, 2년 후 팔미라는 로마군에 의해 불타버렸다. 그 후 1089년의 지진으로 남은 석주들마저 쓰러져 폐허가 되었다. 그 가운데 셈족이 모신 태양신의 신전 벨(Bel)만이 화를 면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곳은 지진으로 인하여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데, 지금은 시리아 최고의 관광지가 되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 팔미라 유적 >>

<벨의 신전> 팔미라의 정문 길 건너편에는 버팀목을 세워둔, 무너져 가는 벽이 안타까운 벨의 신전이 있다. 현재 팔미라 유적지 중 기원후 32년에 셈족의 신전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사원은 사각의 성벽과 내부 성소로 구분되는데 200m 길이의 성벽이 사면으로 매우 높게 둘러싸여 있는 요새화 되어 있는 곳이다. 넓은 마당 안쪽에 가장 신성한 장소인 신전이 있는데 이곳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신전 앞쪽에 거대한 문이 있고 주위로 코린트 양식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건물의 뒤쪽에만 남아 있다.신전 내부에는 양쪽으로 움푹 들어간 예배당이 있다. 천장에는 별자리가 묘사되어 있고 오른편엔 팔미라의 세 신이 묘사되어 있다. 전형적인 아랍, 시리아 건축 양식이라고 한다. 건물 앞에는 제사를 위한 재단과 식을 진행하던 성직자가 몸을 깨끗이 하도록 물을 받아둔 웅덩이가 남아 있다. 팔미라의 왼쪽으로는 원형 극장, 오른쪽으로는 계속해서 폐허가 나타난다. 길이 끝나는 곳은 일종의 공동 묘지로 동굴속으로 들어가면 석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 시리아의 팔미라유적 >>

지난 5월 20일 시리아 중부의 유적 도시 팔미라를 점령한 이래 IS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파괴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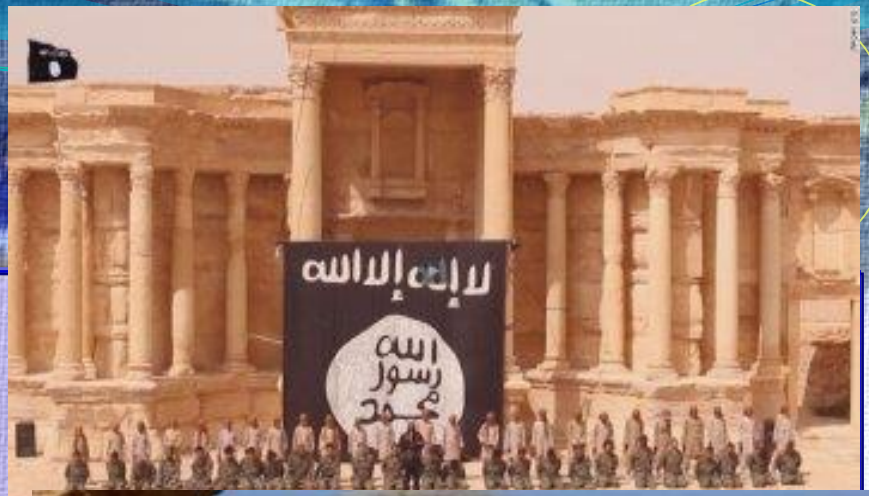
앞서 팔미라 산악지대에 있는 웅장한 무덤인 영묘 50여개를 파괴했으며, 이슬람교 이전에 숭배되던 아랍 여신 알랏의 이름을 딴 3m 높이의 '알랏의 사자상', 그리고 약 2000년 전 세워진 '바알 샤민' 신전을 파괴한 바 있다. 아울러 팔미라 유적 연구에 평생을 헌산한 고고학자 칼리드 아사드(82)를 잔혹하게 참수하기도 했다.

2015년 8월30일에는 역시 2000년 된 벨 신전을 파괴했고, 9월 초 엘라벨의 탑' 을 포함한 고대 탑무덤 3기를 폭파시켰다. 벨 신전은 팔미라 유적지를 상징하는 대표적 건축물이며, 탑무덤은 부유한 가문의 사망자를 위해 사암으로 높이 쌓은 것이다.
이번에 파괴된 탑무덤은 서기 100년쯤 세워져 가장 보존상태가 좋고 아름다운 탑무덤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UN이 위성사진을 통해 공개한 사진에는 웅장한 석제 구조물이 명확하게 보였던 과거와 달리 약간의 돌기둥만 남고 그야말로 허허벌판만 남은 모습이 확인된다.

'사막의 진주' 로 불리는 시리아 팔미라는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매년 15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유명 문화유산 지역이었으나, 전쟁과 테러로 인해 소중한 문화유산이 폐허로 변해가고 있어 안타까움만 늘어나고 있다.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محمد رسول الله


علي بن أحمد
http://blog.3amn.net/alishaalma3





<< 팔미라 유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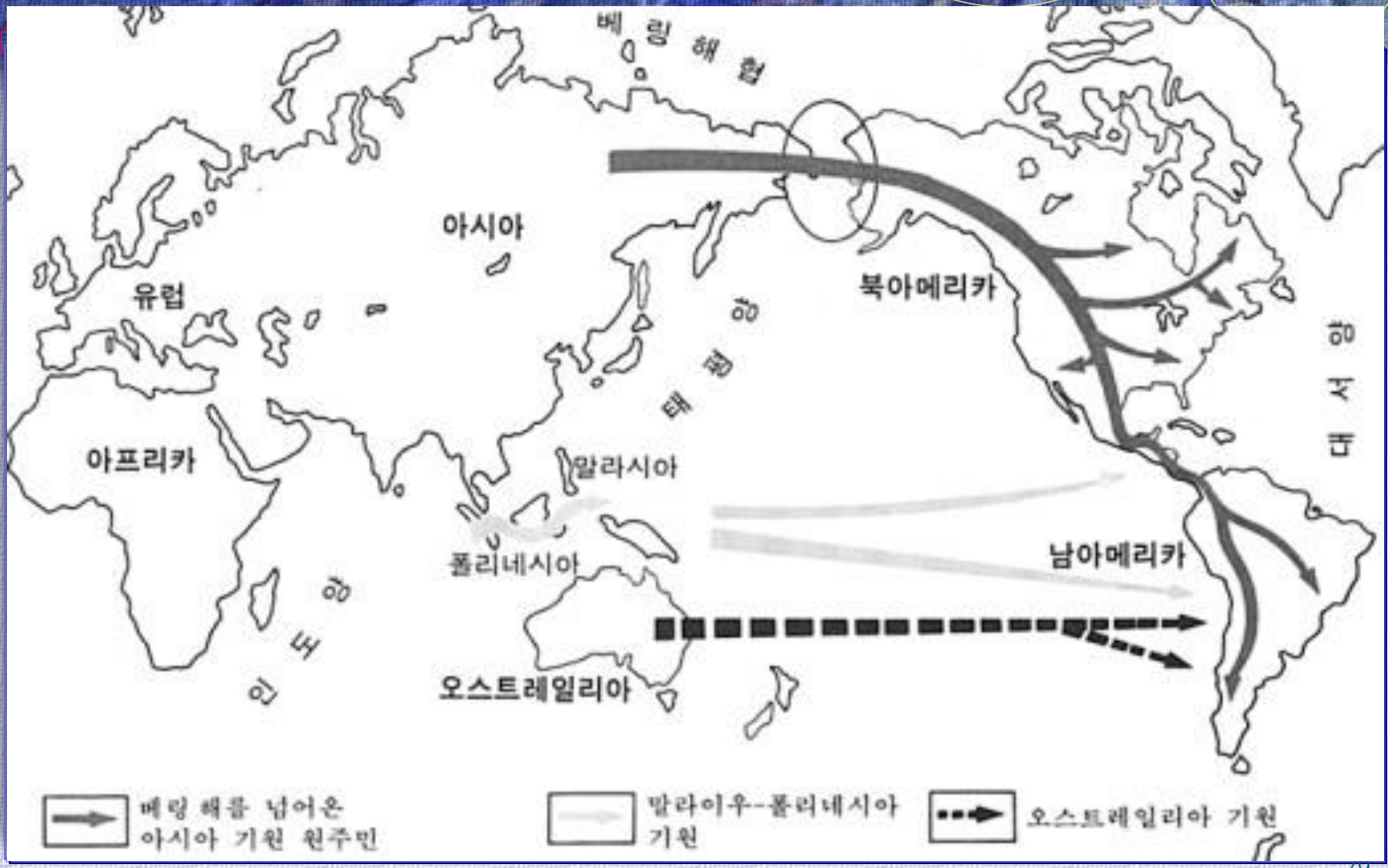
<< 멕시코와 중미지역의 문명 >>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에 관한 연구에서 학자들의 주장은 대체로 2개의 학파로 나뉜다. 한 학파는 B.C. 5~3만 년 전에 몽고족이 베링 해협을 거쳐 알래스카로 이주하여 B.C. 1만 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의 최남단 티에라델푸에고(Tierra del Fuego)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학파는 오스트레일리아, 멜라네시아 및 폴리네시아족들이 남태평양의 도서들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 지역에서 원주민의 출현은 B.C. 24,000~21,0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B.C. 7,000~5,000년경부터 일부 지역에서 유목민과 정착민의 발생으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B.C. 3,500년경에 출현한 옥수수 산지를 중심으로 여러 부족이 정착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B.C. 1,000년경 베라크루스를 중심으로 부상한 올메카 족(Olmecas)의 문화는 오늘날 오아하카(Oaxaca), 치아파스(Chiapas) 및 과테말라(Guatemala) 등 중미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 후 A.D. 100~800년 사이에 오아하카, 베라크루스 및 멕시코 중앙 고원의 분지 등에서도 여러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멕시코시티와 푸에블라 분지에서 발생한 도시형 테오티우아칸(Teotihuacán) 문화가 가장 뛰어났다. 테오티우아칸 인들은 A.D. 400년경에 거대한 도시 국가로 성장하여 오아하카, 베라크루스 및 과테말라 등을 정복하여 여러 종족 위에 군림하였으나 A.D. 650~700년 사이에 다른 부족들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 멕시코와 중남미지역의 문명 >>



<< 올메카 문명 >>

<< 올메카 문명 >>

아메리카 최초의 문명은 멕시코 만 연안의 열대림 지역에서 발전한 올메카 문명이었다. 올메카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종교 의식을 위한 피라미드형 사원을 세웠으며 달력과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들은 넓은 지역과 교류하면서 이후 아메리카 여러 문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석조 건축물이나 제례 의식, 하늘을 관측하여 달력을 만드는 천문학, 수학, 그림 문자 등 올메카 문명이 형성한 문화적 업적은 이후 중앙아메리카의 문명들에 이어졌다.

'올메카(Olmec)' 는 '고무 사람들' 이라는 뜻이다. 올메카 문명의 유적이 발굴된 곳이 고무나무가 많이 자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올메카 문명의 대표적인 유물 중 하나가 거대한 바위를 깎아서 만든 얼굴상이다. 큰 것은 40톤이 넘는 바위 조각상인데, 바위 얼굴상이 세워진 장소에는 채굴되지 않는 바위라고 한다. 즉, 먼 곳에서 옮겨와 조각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올메카인들은 바퀴를 발명하지 못하였고, 운반용 큰 가축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반하였는지 아직도 수수께끼이다. 아메리카에는 유럽인들이 말을 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이 없었고, 가축화 한 가장 큰 동물이 작은 낙타인 라마 정도였다.

마야문명의 뿌리이기도 한 올메카 문명의 주 종족은 몽고족이지만 아프리카 흑인들의 모습도 보인다. 이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 올메카 문명 >>



거석 인두 상



비취 가면



◇ 헬멧을 쓴 신관이 우주선의 조종간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을 담은 조각. 멕시코 국립인류학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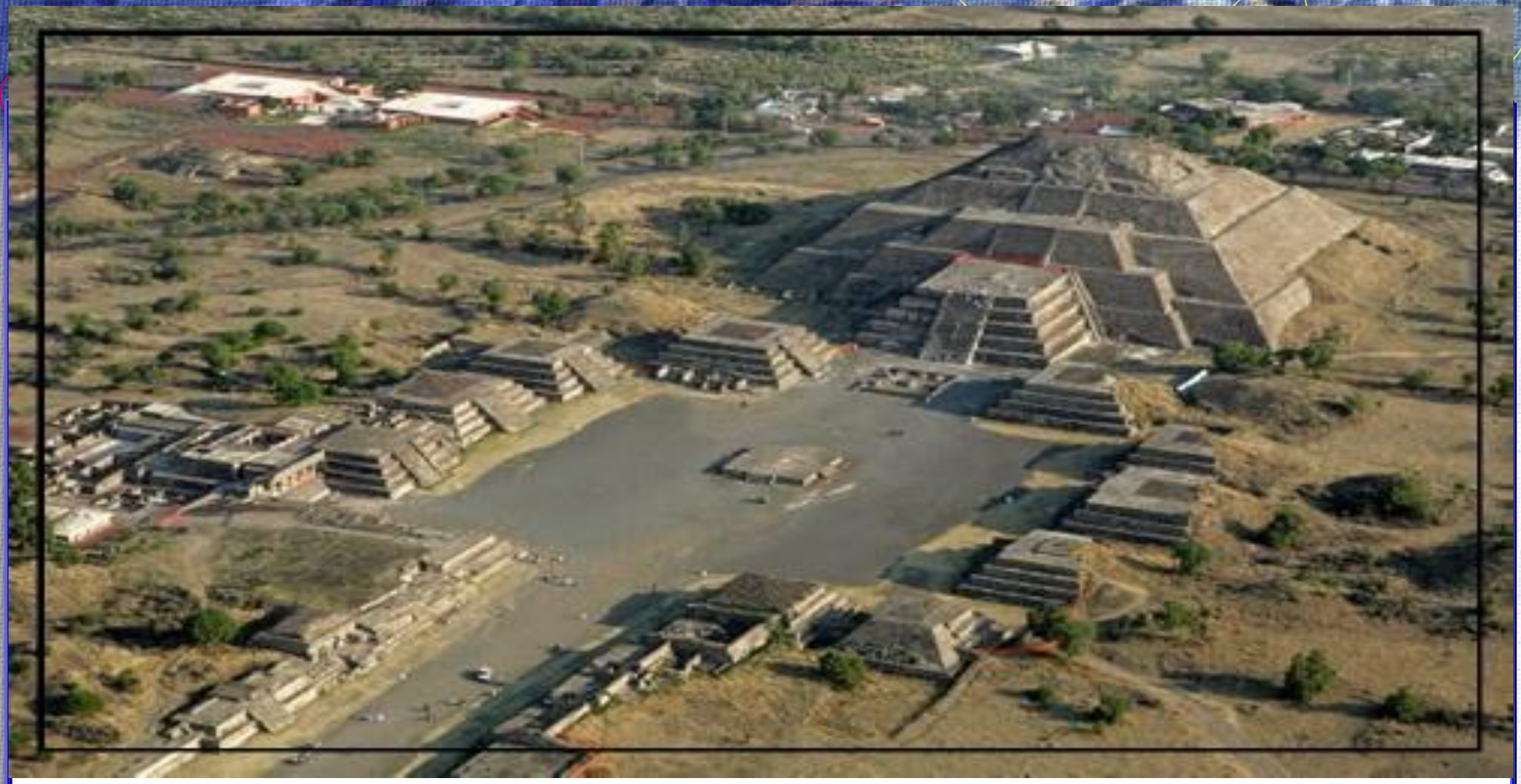
<< 테오티와칸 문명 >>

테오티와칸은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전의 미주대륙에 세워진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 건축물들이 위치해있는 곳이다. 서기 원년~500년 사이에 정점을 맞았다. 테오티와칸은 절정기 동안 이 도시 인구는 10만에 육박하였는데 이는 같은 시기의 전 세계 모든 도시를 통틀어 가장 많은 인구 수이다. 이 유적지에 거주한 문명 또는 문화집단은 테오티와칸 문명[teotiwakan] 또는 테오티와카노[teotiwakano]라고 불린다.

테오티와칸이 제국의 수도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메소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영향을 미쳤음을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테오티와카노 문명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많은 증거들이 베라크루즈와 마야 지역의 많은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테오티와칸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어느 부족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나와족, 오또미족 또는 또또낙족이 가장 유력한 후보들로 꼽히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테오티우아칸의 거주민들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테오티와칸 유적은 멕시코의 멕시코주, San Juan Teotihuacan 자치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멕시코시티로부터 북동쪽으로 대략 40km 지점에 위치해있다. 유적지의 총 면적은 83 ㎢ 에 달하며 1987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멕시코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유적에 속한다

<< 테오티와칸 문명 >>



테오티와칸은 서기 100년에 지어졌으며, 중앙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피라미드인, 65m 높이의 태양의 피라미드가 있음. 층층으로 이루어진 이 피라미드는 중앙 대로인 죽은 자의 대로를 통하여 약간 작은 달의 피라미드와 연결.

<< 테오티와칸 문명 >>



<< 하늘에서 본 달의 피라미드 >>



<< 태양의 피라미드 >>



<< 마야 문명 >>

마야 문명은 중앙아메리카 유카탄 반도 일대의 열대 우림 지역에서 번영하였다. 마야 문명이 번성한 지역은 3개로 구분되는데, 그 중심을 이룬 곳은 과테말라 북부의 페텐 지방에서 서쪽으로 멕시코의 타바스코, 동쪽으로 벨리즈 지방에 이르는 중앙 지역이다. 여기에 유카탄 반도 북부 및 과테말라 고지, 차파스 지방에서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남부 지역 등 2개 지역이 포함된다. 초기 마야의 기원에는 멕시코의 올메카 및 이자파 문화의 영향이 컸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기원후 300년경에 이르러 마야 문명은 고전기라 불리는 융성한 시대를 맞이한다. 고전기는 900년경까지 계속되는데, 600년을 경계로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고전기의 중심지는 페텐 지방의 북동 지역으로, 티칼 · 와샤크툰 · 나쿰 · 나랑호 등의 거대한 신전 도시가 이 시대에 건설되었다. 거대한 건축물, 역법, 신성 문자, 토기, 석조각물 등이 모두 이 시기에 나타났다.

고전 후기의 300년 사이에 마야 문명은 더욱 번성하여 신전 도시들이 더욱 커지는 한편, 유카탄 반도 북부 지역과 그밖의 지역에도 거대한 피라미드와 신전 등이 건조되었다. 보남파크 신전에서 볼 수 있는 큰 벽화와 티칼 · 코판 · 키리과에서 볼 수 있는 조각상과 신성 문자를 새긴 큰 돌기둥 등도 만들어졌다. 이들 석주(石柱)에는 마야의 달력이 새겨져 있는데, 900년 이후에 새로 세운 석비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900년 이전에 고전 마야는 종식된 것으로 추정한다. 고전 마야가 쇠퇴한 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내란설, 토양의 황폐설 등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고, 최근에는 타바스코 지역에서 침입한 멕시코계 주민에게 정복되었다는 설도 대두되고 있다.

<< 마야 문명 >>

고전 마야 문명이 쇠퇴한 후 유카탄 반도에서는 푸크 양식의 마야 문화가 얼마동안 계속되었으나 10세기가 끝날 무렵 멕시코에서 톨텍계의 군사 집단이 침입하여 마야족을 정복하고 치첸이트사를 중심으로 유카탄 반도를 지배하였다. 이어 13세기에는 타바스코 지방에서 이트사족이 침입하여 마야판시를 건설하고 코콤 왕조를 세웠다. 코콤 왕조는 15세기 중반에 내란으로 무너지고 유카탄 반도는 십여 개의 작은 수장국으로 분열된 채 16세기 에스파냐에 의해 정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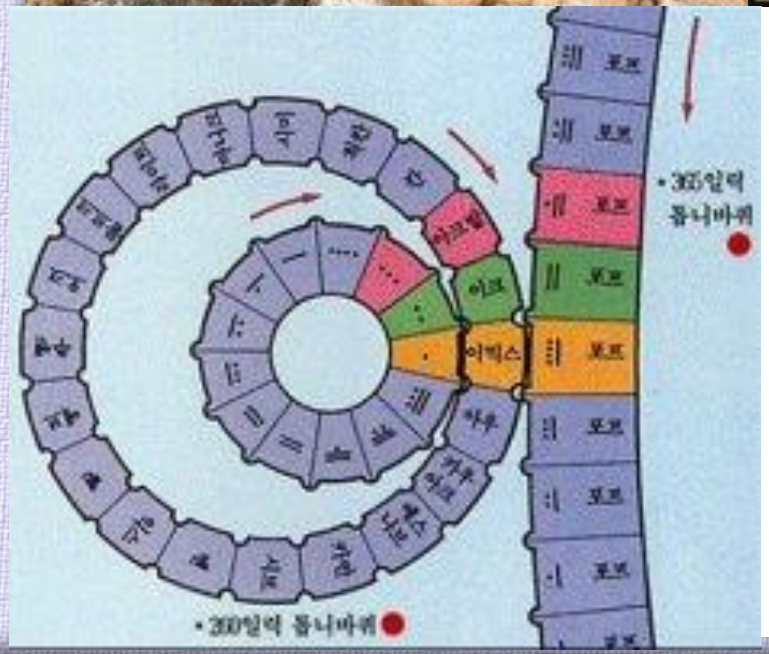
마야 문명의 기반은 옥수수 농경이었는데, 콩 · 호박 · 고추 · 목화 등도 재배하였다. 농사는 주로 화전 방식으로 하였고, 가축은 개, 칠면조 등을 사육하고 양봉도 한 것으로 보이며 사슴, 멧돼지나 여러 새 종류를 먹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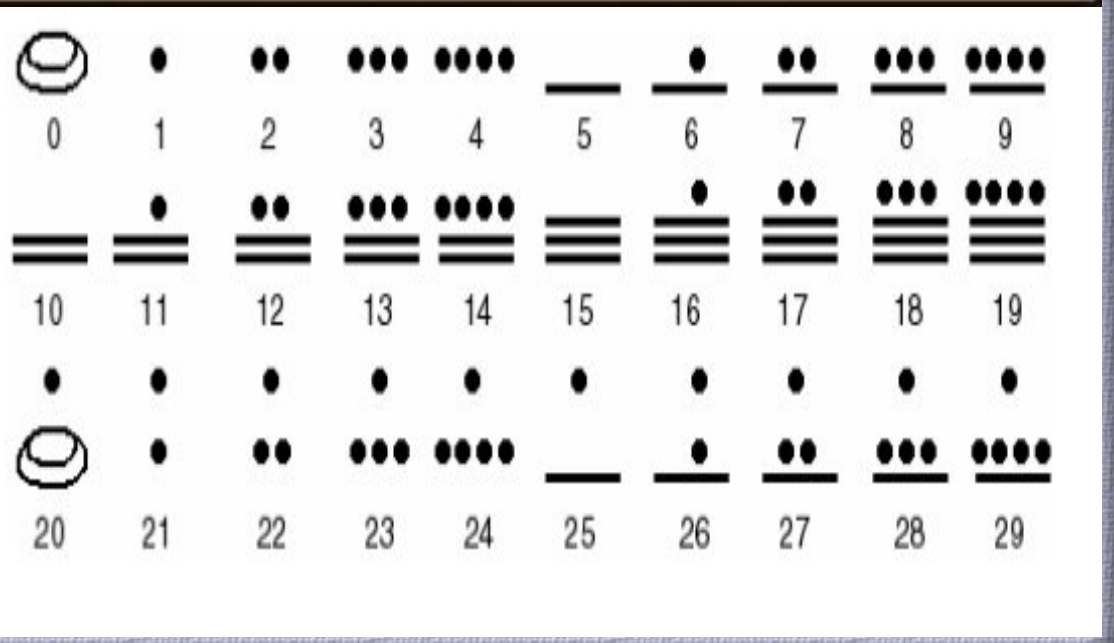
마야의 귀족층은 천문, 역법, 신학 등의 지식을 독점하였다. 마야의 달력은 1년을 260일로 하는 단력(短曆)과 365일로 하는 장력(長曆)에 의해 동시에 표시하였다. 모든 의례는 이 달력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에 수반하여 천체의 관측이 엄밀히 행해져 태양의 방위, 달 및 별의 운행이 관찰되었으며, 금성 · 화성의 주기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있었다. 의례는 한해 동안 다양한 형태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톨텍 계의 문화가 들어올 무렵에는 인신 희생의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다.
달력이나 정보를 표기하기 위해 숫자와 신성 문자가 발달하였는데, 숫자는 0을 나타내는 기호도 포함하여 십진법이 활용되었다.

<< 마야 문명 >>




Pop
Uo
Zip
Zotz
Zec
Xul
Yaxkin
Mol
Chen
Yax
Zac
Ceh
Mac
Kankin
Muan
Pax
Kayab
Kumku
Uayeb


• 365일의 돌나바퀴
• 360일의 돌나바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마야 문명 >>




중앙 아메리카 문명의 주요유적지
0 50 100 150 mi
0 50 100 150 200 km
멕시코 만
태평양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벨리즈
멕시코









피라미드에서 남쪽으로 10여분쯤 걸어 들어간 숲 속에서 마야의 천문대 '카라콜'이 위치. 고대 마야인들이 태양과 달, 금성 등을 관측했던 둥근 돔 모양의 천문 관측대. 10세기 말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도 이곳이 천문관측소라해도 믿길 정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주의 첨성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지금의 천문대 건물이 생각날 정도로 주변의 석축물들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정밀한 천체관측 기록을 남긴 마야인은 근대 이전에 가장 정확한 달력을 제작했다고 한다.


통일뉴스
Tongilnews.com


통일뉴스
Tongilnews.com


통일뉴스
Tongilnews.com


통일뉴스
Tongilnews.com


통일뉴스
Tongilnews.com


통일뉴스
Tongilnews.com


통일뉴스
Tongilnews.com


통일뉴스
Tongilnews.com

<< 아즈텍 문명 >>

A.D. 900~1,100년 사이 토얀(Tollán)을 중심으로 톨테카 족(Toltecas)이 부상하여 인접의 치치메카 족(Chichimecas) 등 여러 부족과 동맹을 맺고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테오티와칸 족의 문화 유산을 계승하였다. 그 사이에 여러 지역에서 많은 부족 국가들이 부상하였다. 그들 중에서 13세기 후반에 나우아 족(Nahuas)이 톨테카 족을 격파한 후, 두드러지게 부상하였다. 그들은 A.D. 1276년경 차풀테펙(Chapultepec)에 진출한 후 1325년경 인접의 많은 부족들로부터 질시와 멸시를 받고 축출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용이한 텍스코코(Texcoco) 호수 중앙의 한 섬에 정착하여 그곳을 테노치티틀란(Tenochtitlan)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그들은 부족명도 멕시카 족(Mexicas)으로 개명한 후 멕시코 중앙 계곡의 서부와 남부 지역을 정복하여 아즈테카(Aztecas) 제국을 건설하였다.





<< 아즈테카 문명 >>

아즈테카 제국에서 사회는 귀족, 승려, 평민, 상인 및 노예 등 여러 계급으로 구성되고, 토지는 공유지, 사유지 및 국유지 등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공유지는 아즈테카 사회의 특정적 제도인 칼푸이 소속의 토지였다. 이는 칼푸이 구성원, 즉 각 가정의 가족 수에 따라 일정한 면적을 분배하여 경작을 의무화하는 제도였다. 특히, 이는 권리 양도가 금지되고 2년 동안 계속 토지를 놀리지 못하나 상속은 인정되었다. 아즈테카 제국의 주민들은 점차 주위의 개화된 부족들과의 접촉을 통해 독특한 문화적 전통을 형성하였다.

특히, 아즈테카 문명은 인근의 톨테카와 믹스테코 - 촐루테코(Mixteco - Choluteco) 족의 종교와 예술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아즈테카 제국은 상형 문자를 갖고, 종교는 다신교로서 수도 테노치티틀란의 보호신인 우이트실로포치틀리, 농업과 예술의 선한 신인 켓살코아틀(Quetzalcóatl), 그리고 무당과 도적들을 보호하는 악한 신인 텍스카틀리포(Texcatlipo)를 숭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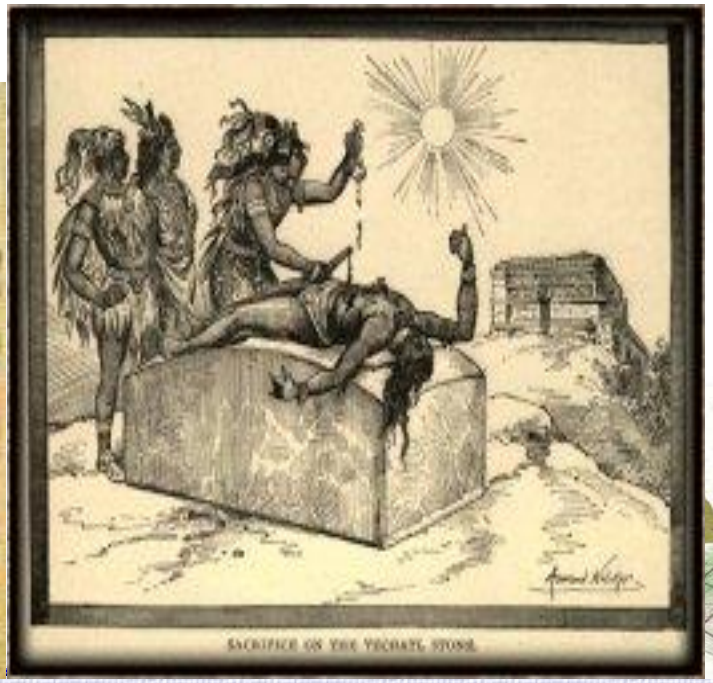
아즈테카 제국의 건축술은 돌로 지어진 궁전, 사원 및 피라미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방대함, 균형미 및 완벽성에서 뛰어났다. 또한, 아즈테카 책력은 20일을 1개월로 한 18개월과 5일의 보충일 수로 하여 1년이 365.25일로 되어 있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1세기인 52년마다 13일을 가산하여 정확성에서 매우 뛰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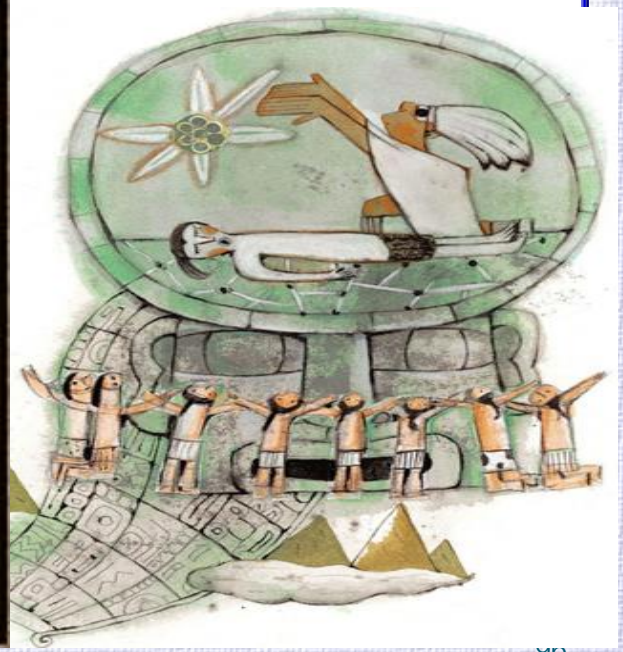
<< 아즈테카 문명 >>

아스텍 문명의 인신 공양, 즉 산 사람을 신전에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다섯 번째 태양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은 태양이 없어지고 우주가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의 뜨거운 피와 살아 있는 심장을 태양에 바쳐서 태양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매일 떠오르는 태양에게 계속 정성을 보이기 위해 아스텍 인들은 끊임없이 산 제물을 바쳐야 했어요. 범죄자나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 우선 제물의 대상이 되었어요. 감옥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고 하지요.

그러고도 모자라는 제물을 확보하기 위해 무자비한 정복 전쟁을 벌여 포로를 제물로 삼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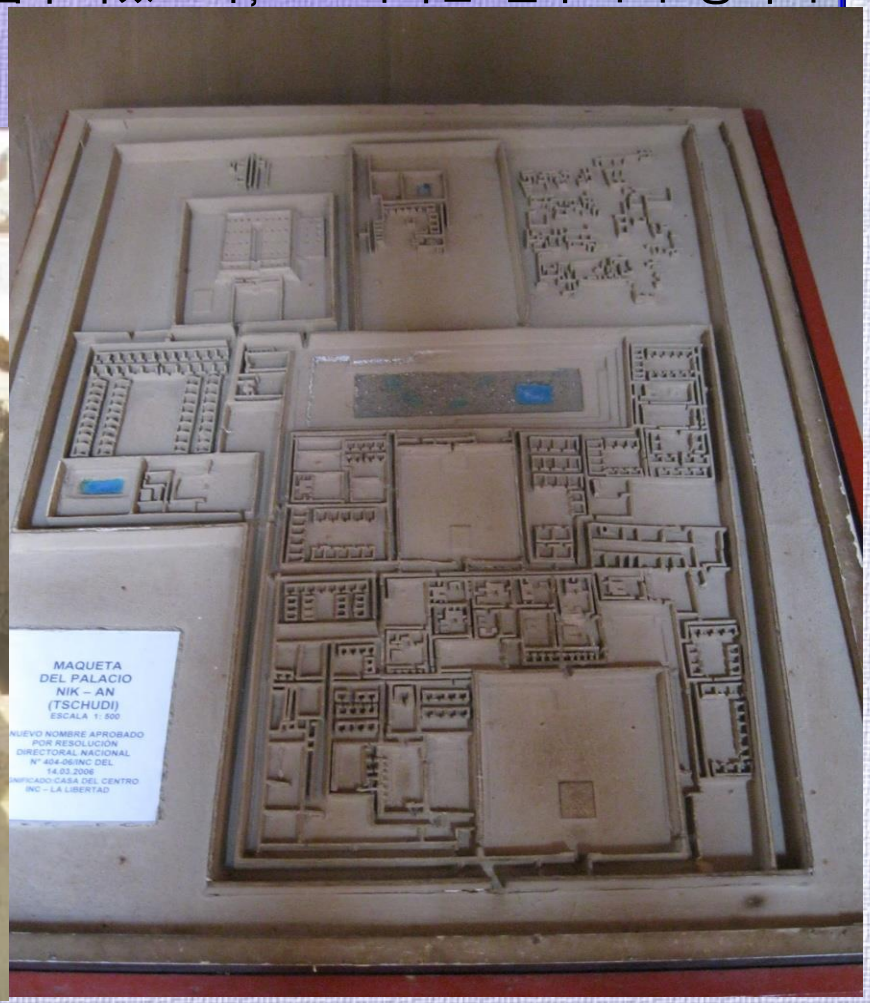




<< 모체문명과 치무 문명 = 잉카 문명>>

기원 후 8세기 경 모체문명은 치무문명으로 흡수되었으며, 11세기를 전후하여 잉카에 정복되기 전까지 찬란한 왕국문화를 이룩.





<< 잉카 문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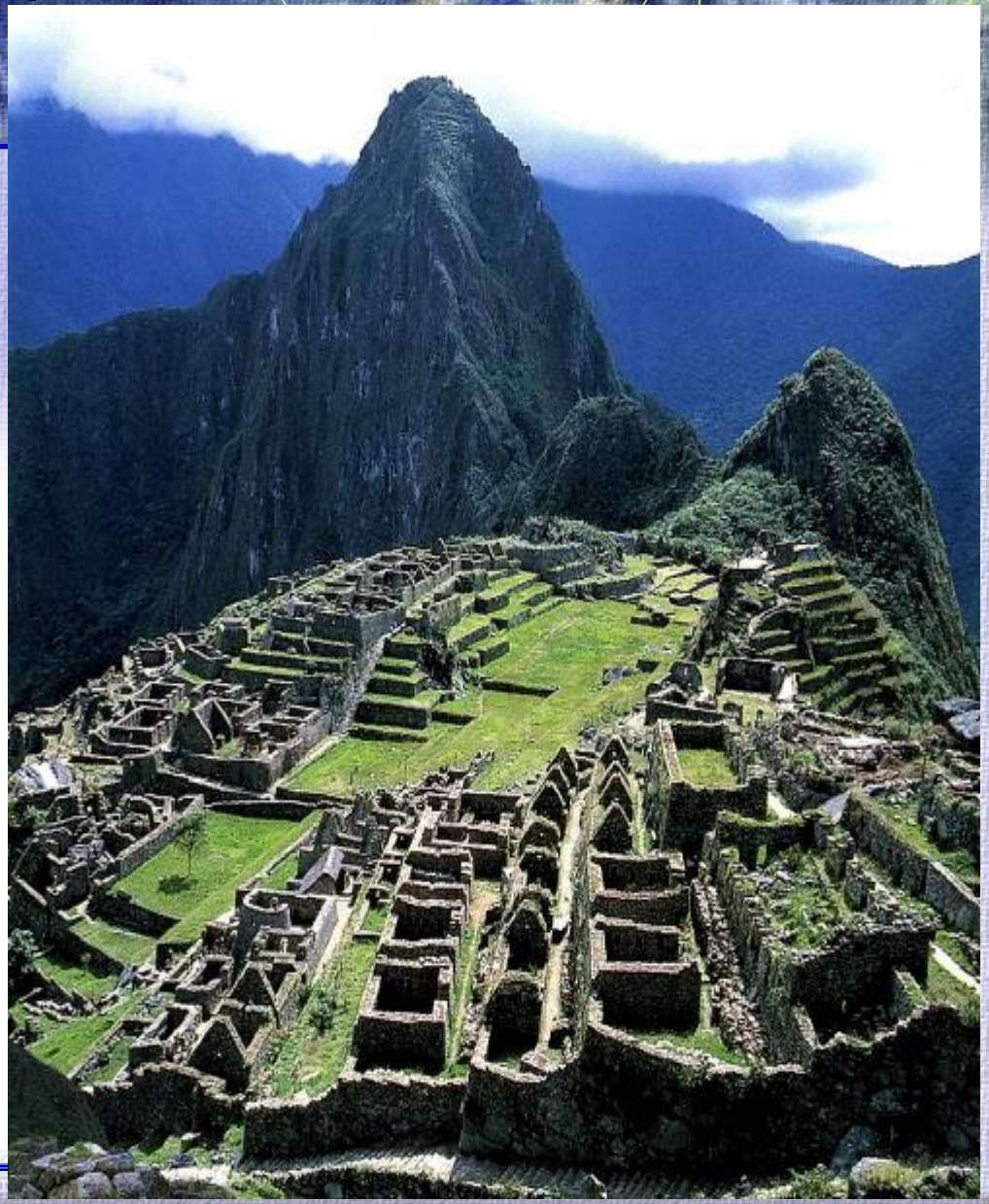
잉카 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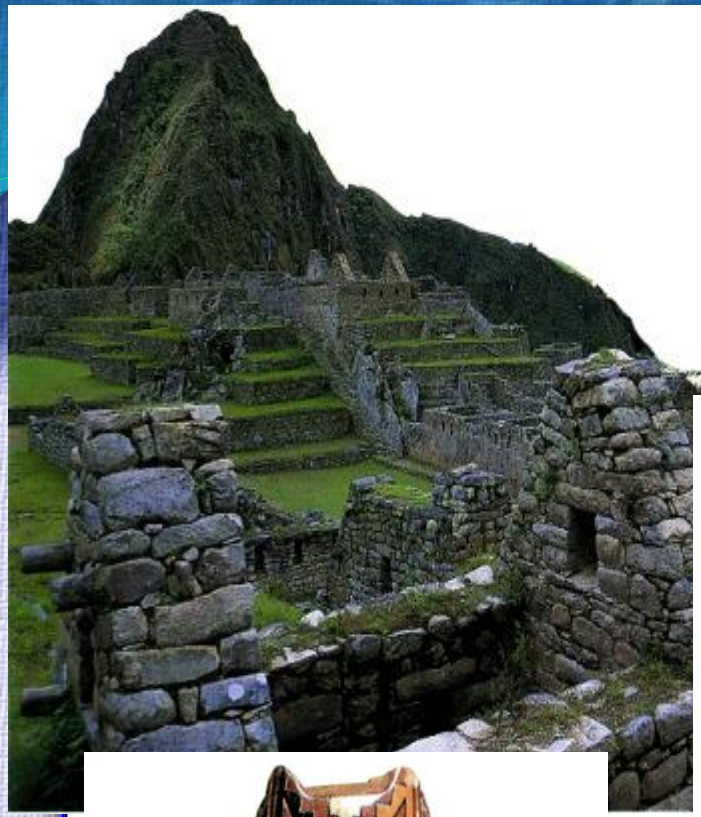
잉카 문명은 13세기부터 16세기 중엽에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지방에 번영했던 잉카 제국의 문명이다. 원래 잉카라는 이름은 지금의 페루 쿠스코 부근에 있던 종족의 이름으로, 이 종족을 지배하던 왕족 칭호 역시 잉카였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안데스 지방에는 기원전 1000년경부터 수준 높은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다. 13세기 초에 쿠스코 계곡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잉카 족이 그 전통을 이어받아 독자적인 문명을 이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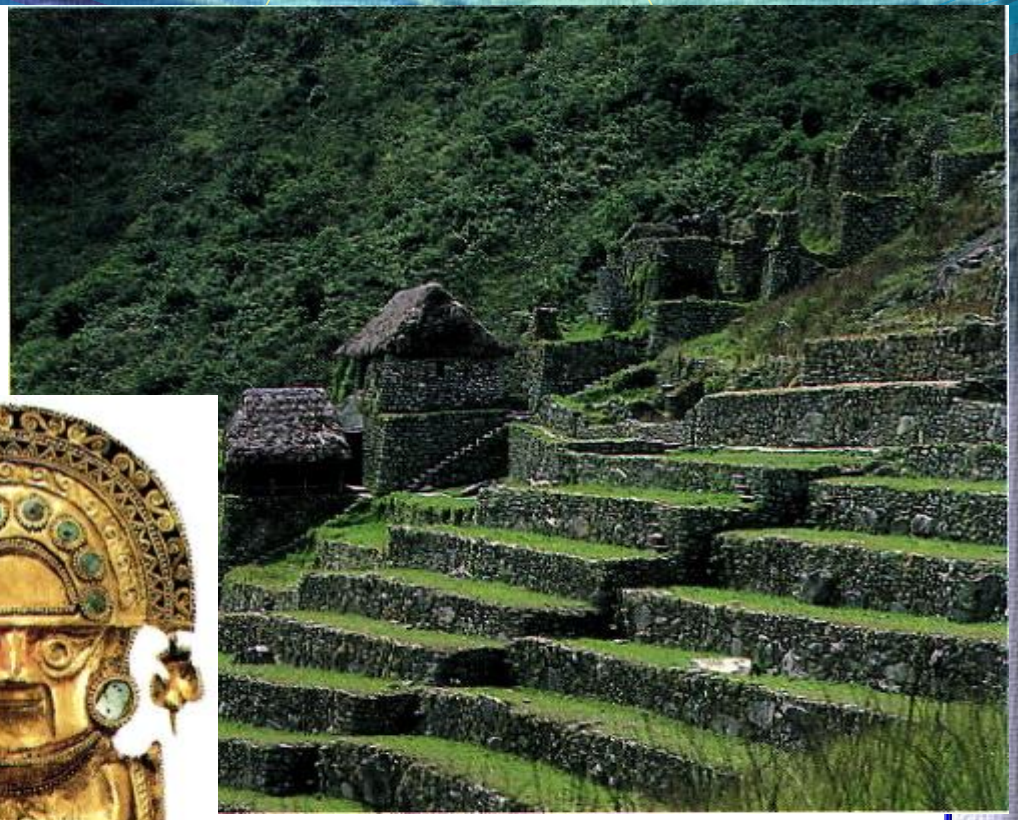
잉카 제국은 대규모의 관개 시설을 농업의 바탕으로 삼고, 감자 · 호박 · 땅콩 · 옥수수 · 목화 등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했다. 또 정치 조직과 사회 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었으며, 건축 토목 기술이 아주 우수하였다. 지금의 페루 쿠스코 지방에 남아 있는 거대한 성채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 계획에 바탕을 둔 대규모의 석조 건물과 도로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밖에 곳곳에 남아있는 신전 · 요새 · 관개 수로 등은 당시의 건축 기술이 우수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에스파냐 인의 무자비한 약탈로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금은 세공품 · 토기 · 직물 등의 독특한 공예품이 뛰어난 공예 기술을 보여 준다. 잉카 제국은 에스파냐의 침공으로 1533년에 멸망하였다.

<< 잉카 문명 >>


잉카 문명의 유적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찬찬
페루
팔라몽가
마추 픽추
쿠스코
팔라카스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
티아와나코
칠레
아르헨티나
13세기 초의 잉카 제국
16세기 초의 잉카 제국
잉카 시대의 도시
잉카 이전의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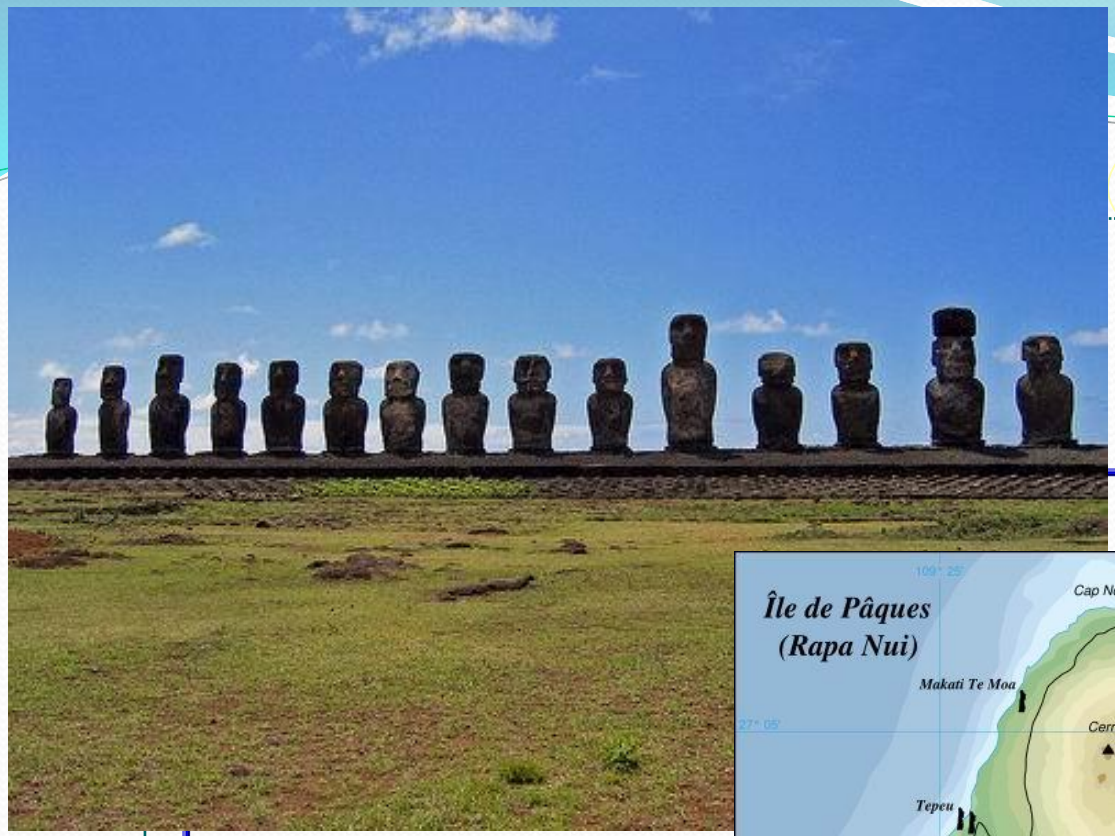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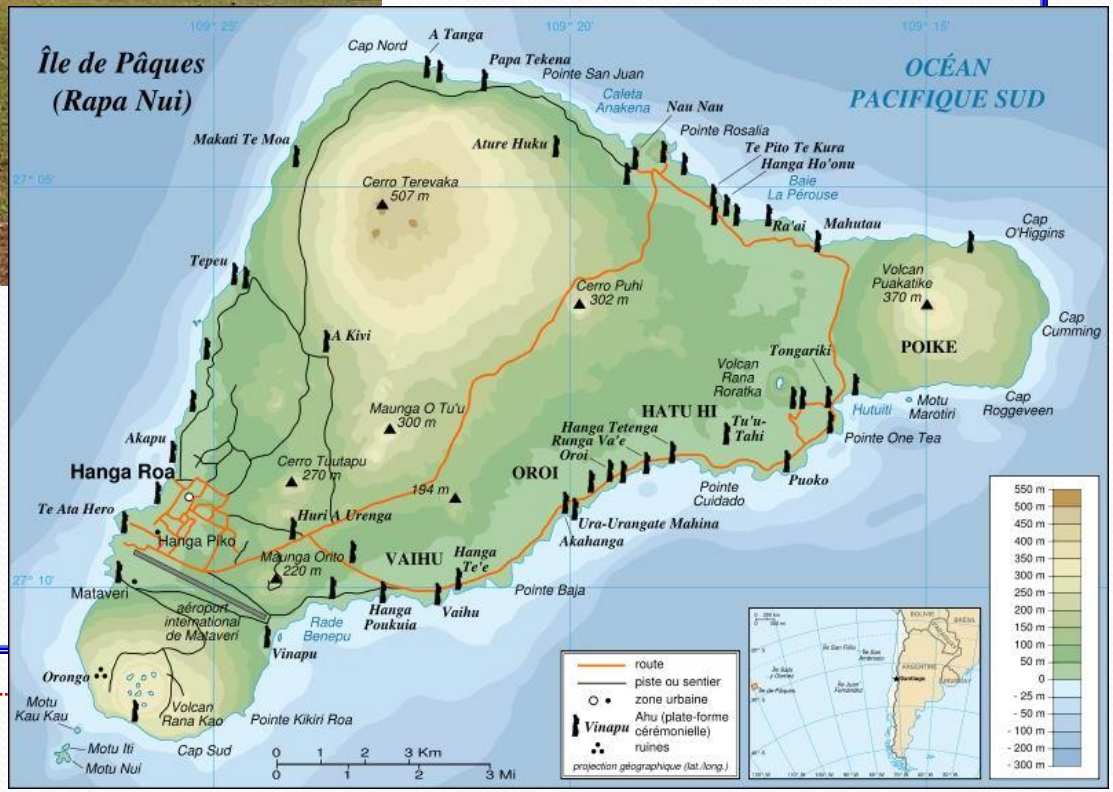




이스트섬의 모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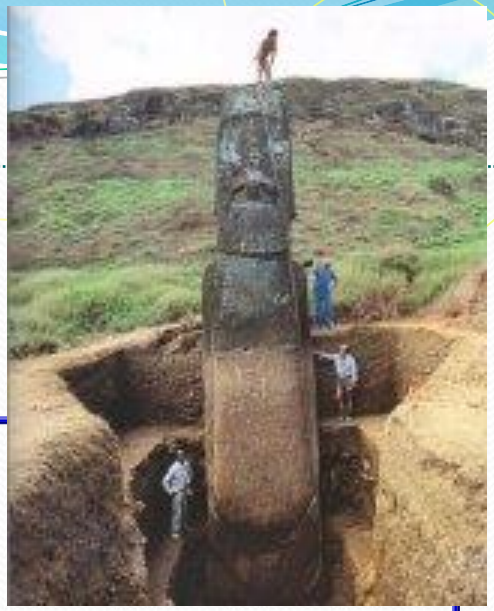


칠레 서쪽 3,700km 떨어진 화산섬. 동서 15km, 남북 10km. 거제도의 1/3 크기. 네덜란드 로헤벤이 부활절(Easter)에 발견. 897개의 모아이. 4m에서 21m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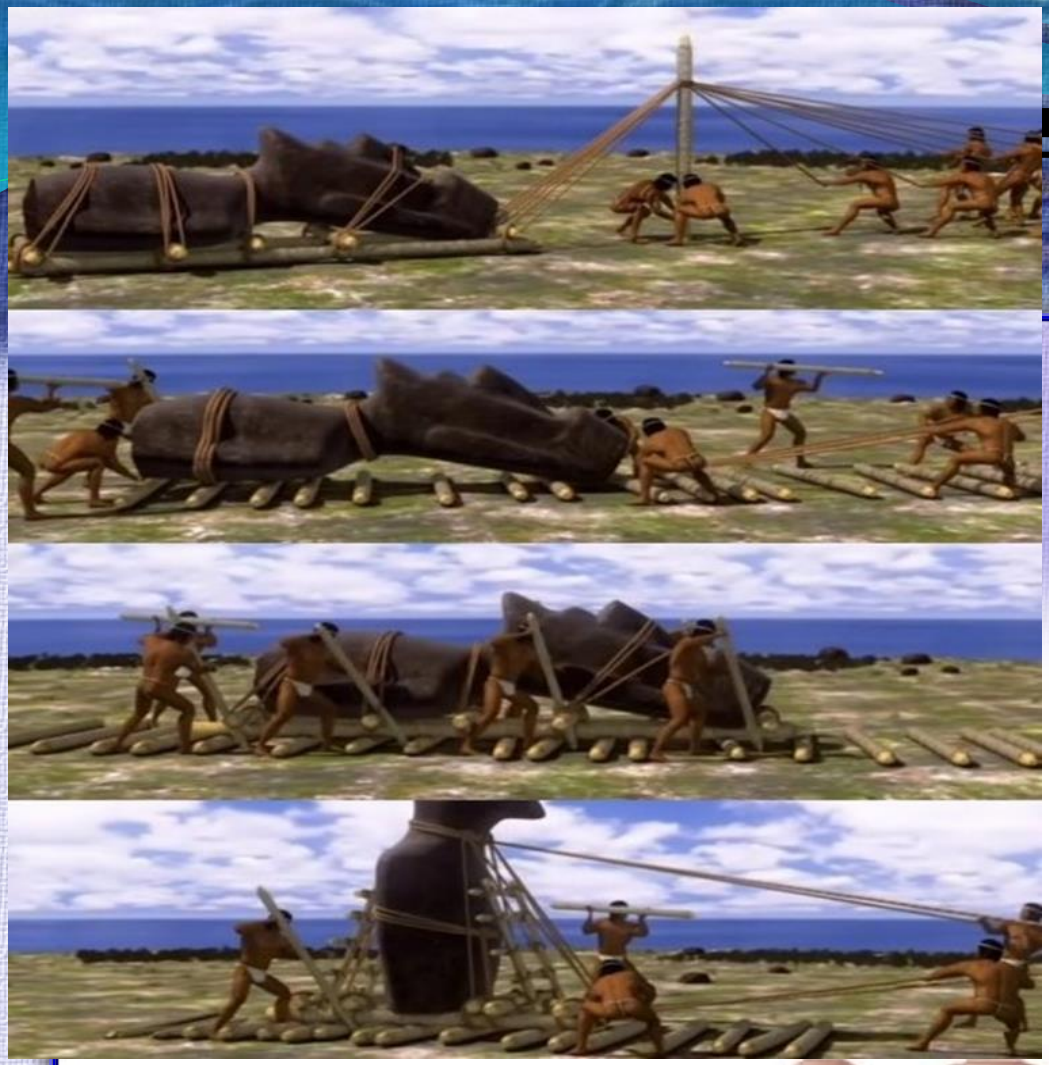












모아이 >>


Moai Tuturi (Rano Raraku)
3 metros
Moai Ko Te Riku (Tahai)
5 metros
Moai Ahu Tongariki (Hotu Iti)
7 metros
Moai Paro (Ahu Te Pito Kura)
9 metros
Moai Rano Raraku
10 metros

<< 로 마 문 명 >>

기원전 약 10세기를 전후로 하여,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에 정착하여 살던 여러 부족은 약 2-300년에 걸쳐 서로 교류하거나 전쟁을 벌였으며 융화와 추방을 반복했다. 고대 로마 문명의 초기 역사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들은 기원전 753년에 로마라는 이름의 도시가 로물루스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로마의 기원 전설은 거의 대부분 비역사적인 허구이므로, 지리적 혹은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기원전 750년경에는 팔라티누스 언덕을 비롯한 로마의 여러 언덕에 농촌 촌락들이 들어섰는데, 이들 산지 촌락들은 저마다 독특한 방언과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대다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미개한 상태였는데, 이 곳에 복합 문명이 발달하게끔 깊은 영향을 준 두 집단이 있다. 하나는 라티움에서 테베레 강을 건너 에트루리아에 정착한 에트루리아인들이었고, 다른 한 집단은 기원전 8세기 중엽에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마그나 그라이키아)에 정착한 그리스인들이었다. 이들은 이후 이탈리아를 통일하게 될 도시 로마의 발전에 있어 각별히 중요한 민족이었다.

<< 로 마 문 명 >>

1. 왕정 시대

왕정시대는 공화정 이전 시대로 기원전 753년부터 508년까지이다. 로마는 기원전 753년 로물루스가 세운 것으로 후대에 전해지고 있다. 이 날짜는 기원전 1세기 말에 로마의 역사가 마르쿠스 테렌티우스 바로가 설정한 것으로, 그는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 없이 고대 로마에 관한 신화들과 전설들을 연구하여 이 날짜를 도출했다. 현대 학자들은 로마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7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확증하고 있다.

기원전 7세기 말에 에트루리아인들은 이 지역에 귀족 · 왕족 계급을 이루어 피지배층을 정치적으로 다스린 것으로 보인다. 에트루리아인들은 기원전 6세기 말경에 이곳의 지배권을 잃은 것이 확실하며, 이 시점에 라티움과 사비니 부족이 권력 집중을 억제하는 공화정 체제를 세웠다.

2. 공화정 시대

에트루리아가 캄파니아에서 패배하고, 주변 종족들이 라티움을 침공하는 등 몇 차례에 걸친 군사적 패배로 로마에 사회·정치적 위기가 일어나면서 왕정이 몰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은 연대 목록(fasti)에 기록된 기원전 509~507년을 왕정 몰락의 시점으로 보기도 한다.

<< 로 마 문 명 >>

초기에는 군사 위원회에 의한 공동통치의 형태였다가 독재관을 자주 선출하는 문제가 생기자 2명의 집정관 제도로 바꾸었다. 로마의 정체는 견제와 균형, 권력 분점으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정무관은 두 집정관으로 군사 통솔권인 명령권을 통해 집행 권력을 함께 행사했다. 집정관직은 오랜 기간의 실험과 발전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기원전 5세기 중엽쯤에는 공화정의 고위 정무관직을 집정관이라 하였다. 집정관은 원래 귀족들의 자문 회의였던 원로원과 협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로원은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정무관직은 원래 귀족 출신으로 제한되었으나 나중에는 평민에게도 개방되었다.

기원전 1세기 중반에는 카이사르와 마그누스, 크라수스 세 사람이 제1차 삼두정치를 이루어 공화국을 농단했다. 이후 기원전 53년에 파르티아와 벌인 카르하이 전투에서 크라수스가 전사하면서 삼두정치는 카이사르와 원로원파로 돌아선 폼페이우스로 나뉘어 전개된다. 기원전 58년부터 7년에 걸쳐 갈리아를 정복한 후에(갈리아 전쟁) 원로원과 대립하던 카이사르는 기원전 49년에 루비콘 강을 건너 폼페이우스가 이끄는 원로원파 군대와 내전을 일으킨다.(카이사르의 내전). 기원전 48년,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폼페이우스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고, 탑수스 전투와 문다 전투에서 폼페이우스의 잔당을 격파한 카이사르는 결국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로마의 종신 독재관이 되어 각종 개혁을 실시하였다.
)

<< 로 마 문 명 >>

기원전 44년 카이사르는 독재 의혹을 받다가 공화제 헌정을 복원하려는 정적(브루투스, 카시우스 롱기누스 등)에 암살당한다. 그러나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은 정권을 잡지 못하였고, 카이사르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수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의 제2차 삼두정치를 이루며 권력을 잡는다. 그러나 이 정치적 동맹은 권력 투쟁으로 기운다. 레피두스는 추방되며,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하며,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격퇴하여 로마의 유일 지배자가 되었다.

3. 제정시대

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받고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잡았지만, 공화정을 가장했다. 이때의 통치체제를 원수정이라 한다.(사실상 제정이다). 4세기가 넘도록 서부 지역은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점차 쇠퇴일로로 치달았다.

이후 즉위한 황제들은 아무도 제국을 부흥시키지 못하고 결국 비잔티움 제국은 1453년 5월 29일 오스만투르크의 메메드 2세에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당하면서 멸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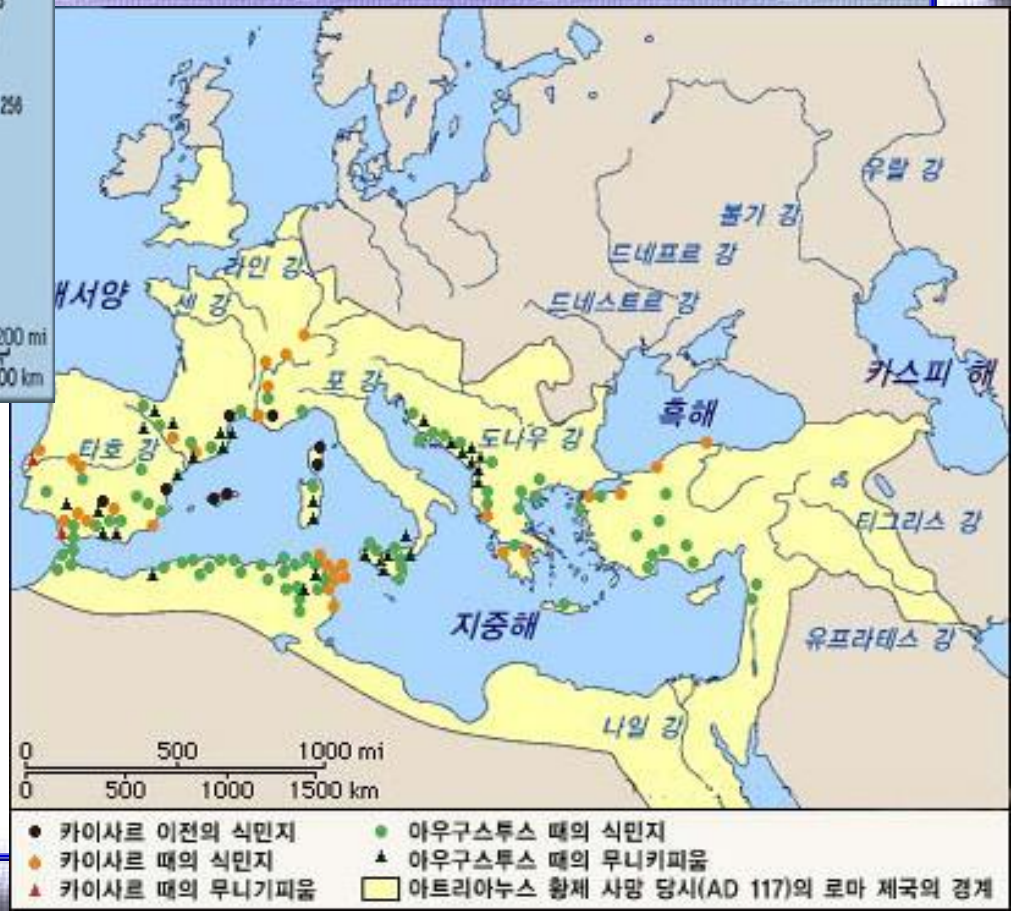
<< 로 마 문 명 >>

1. 그리스를 모방해서 자신의 것으로 바꿈.
2. 에트우리아족에게 그리스 문명과 알파벳 아치 연극 전차 경주 검투 등을 배웠고 정치하는 법도 배움.
3. 여러속주와 동맹국이 있었지만 그들을 로마로 합치기 보단 독립을 주고 방어해주면서 대신 그 지방의 기술과 특산물을 받았다(예로는 그리스쪽은 배, 갈리아 지방은 기병 등)
4. 공화정이며, 원로원 중심. 나중에 옥타비우스가 1대 황제에 오르지만 원로원은 남아있음.
5. 현대 법의 기초를 만들었다 농지법과 농민법 세금 병역 등.
6. 귀족과 평민의 신분 차이가 있었다
7. 노예가 있었지만 노예도 엔지니어,가정교사,막노동노예,검투노예,기술을 가진 노예 등으로 나누어서 대접해 주었다(가정교사 노예는 귀족같은 대우)
8. 중무장보병이 발달하였다 정면전에 강하였습니다.
9. 문화적 가치를 알고 있었다 로마사람들은 로마적 가치를 잘 알고 있어서 여러 문학적 서적을 발굴하고 보존. 그리스의 많은 문화재도 보존.
10. 군단의 지휘 계급이 잘 짜여짐. 총사령관 밑에 막료들. 막료 밑에 부장 부장 밑에 군사 등. 따라서서 상황에 따른 전략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

<< 로마 문명 >>

포에니전쟁 전과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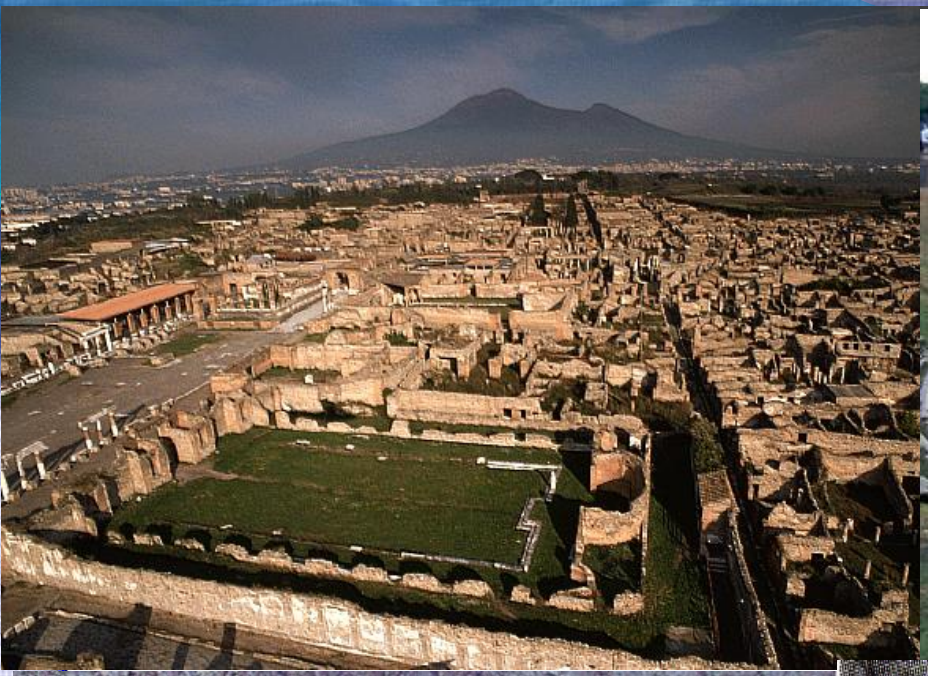


<< 화산재에 묻힌 도시유적 폼페이 >>

폼페이는 서기 79년 8월24일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사라졌던 이탈리아 고대도시. 나폴리 남동부에 자리잡고 있던 폼페이는 이 화산 폭발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소멸한 도시 중 하나다.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은 순식간에 폼페이를 뒤덮어버렸다. 이 폭발로 당시 폼페이 인구의 약 10퍼센트인 약 2,000명이 도시와 운명을 함께 했다고 한다. 당시 폼페이는 B.C. 89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간 이후 철저하게 로마화가 진행된 도시였으며, 로마의 상류계급이 별장을 건설했던 휴양지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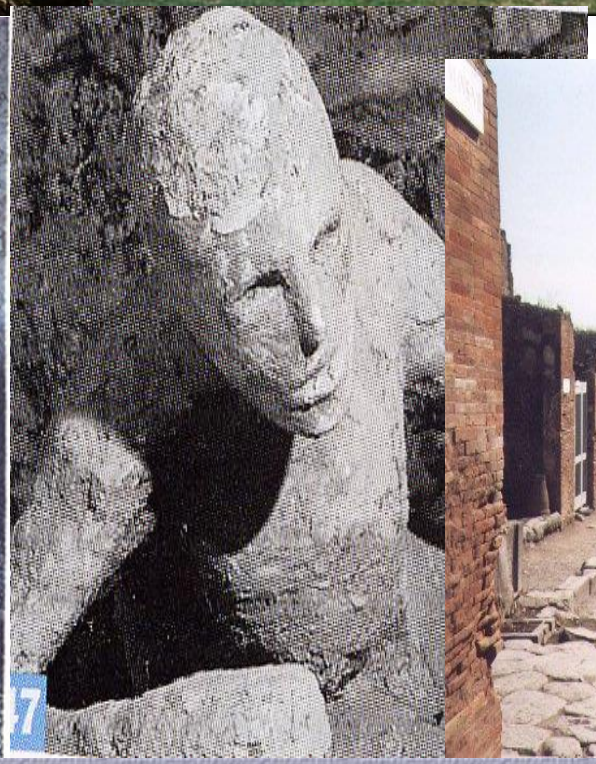
화산폭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화산재와 용암으로 인해 시신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될 텐데 폼페이의 유적은 표정까지 살아있을 정도로 너무나 생생하게 하게 남아 있다. 어떻게 폼페이의 유적들은 최후 순간까지 그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먼저 시신들이 거의 공기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화산재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생물들이 시신을 분해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 이와 함께 뜨거운 화산재와 고열의 유독가스가 사람 몸 속에 있던 미생물을 순식간에 제거해 몸의 부패를 막을 수 있었고, 베수비우스 화산이 용암을 내 품는 화산이 아닌 폭발형 화산이었던 것이 폼페이 유적 보존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보존된 시신들은 다 삭아 없어졌지만, 표피만큼은 화산재와 사람의 몸을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처럼 남아 그 생생한 현장의 표정을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폼페이 유적에서 볼 수 있는 인간 화석들 중 일부는 그 윤곽을 뚜렷이 보여주기 위해 나중에 석고 같은 것을 부어 형체를 재현한 것이다.











<< 진시황과 병마용갱 >>

진시황제는 막 왕위에 오른 어린 시절부터 여산에 자신의 무덤을 짓기 시작하였다. 정확한 위치는 산시성 시안 근처 임동현 동쪽 여산 북쪽 약 1㎞ 지점이다. 기원전 210년경에 축조된 것으로 50㎢ 규모에 달하는 무덤 부지가 조성되어 있고, 꼭대기에는 250㎡ 정도의 평탄한 면이 만들어져 있으며, 그곳을 향해 돌계단이 이어져 있다. 진시황제의 무덤 자체는 아직 발굴되고 있지 않으나 내벽 안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마천 사기의 진시황본기 편에 따르면 시황제 즉위 초부터 여산(酈山)에 무덤을 착공하여 통일 후에 최대 70여만 명까지 동원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진시황릉은 병마용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며 발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정확한 위치인지는 알기 어렵다. 지금의 진시황릉은 다분히 황릉의 위치와 역사적 의미만을 알려주는 전시용이며,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가는 200m 정도의 계단을 설치하고 규모만 파악할 정도의 의미 밖에 주지 못한다. 지금도 넓은 산에 발굴이 계속 중이며, 언젠가는 발굴이 끝나 실체를 밝힐 것으로 예상할 뿐이다.

진시황의 사후 함양으로 들어온 항우가 30만의 병사들을 동원해서 도굴을 했다는 기록과 황소의 난 때 이곳을 도굴하여, 외부로 노출된 쇠붙이는 모두 도굴해 갔다는 기록이 있어 여러 번 외벽의 도굴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베이징
톈진
스자좡
산시 성
산둥 성
칭다오
시안

<< 진시황릉 병마용


巨大한 歷史속에서 전하고 갑은사랑이
現實로 살아나고있다!!
전용
秦俑
장예모 공리




불에 타 죽으면


A TERRACOTTA WARRIOR

<< 진시황의 만리장성 >>

만리장성은 흉노족 등의 유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국의 고대 진나라(시황제) 때 기존의 성곽을 잇고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축조하여 만든 거대한 성곽이다. 이후 명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개축 및 신축하여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87년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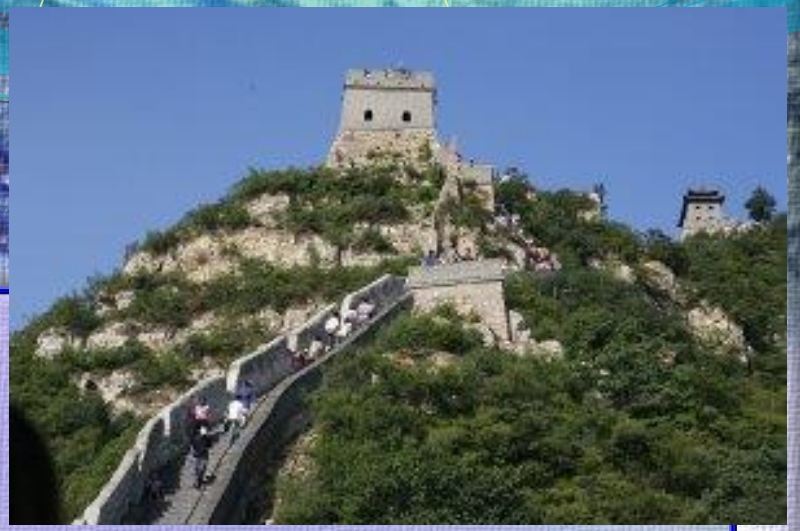
보하이 만[渤海灣]에서 중앙 아시아까지 약 6,400㎞에 걸쳐 동서로 뻗어 있다. 현존하는 만리장성은 명대 특히 그 후반기에 축조된 것으로, 동쪽은 보하이 만 연안의 산하이관[山海關]부터 중국 본토 북변을 서쪽으로 향하여 베이징[北京]과 다퉁[大同]의 북방을 경유하고, 남쪽으로 흐르는 황허 강[黃河]을 건너며, 산시 성[陝西省]의 북단을 남서로 뚫고 나와 다시 황허 강을 건너고, 실크로드 전구간의 북측을 북서쪽으로 뻗어 자위관[嘉峪關]에 다다른다. 지도상의 총연장은 약 2,700㎞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이다.

<< 진시황의 만리장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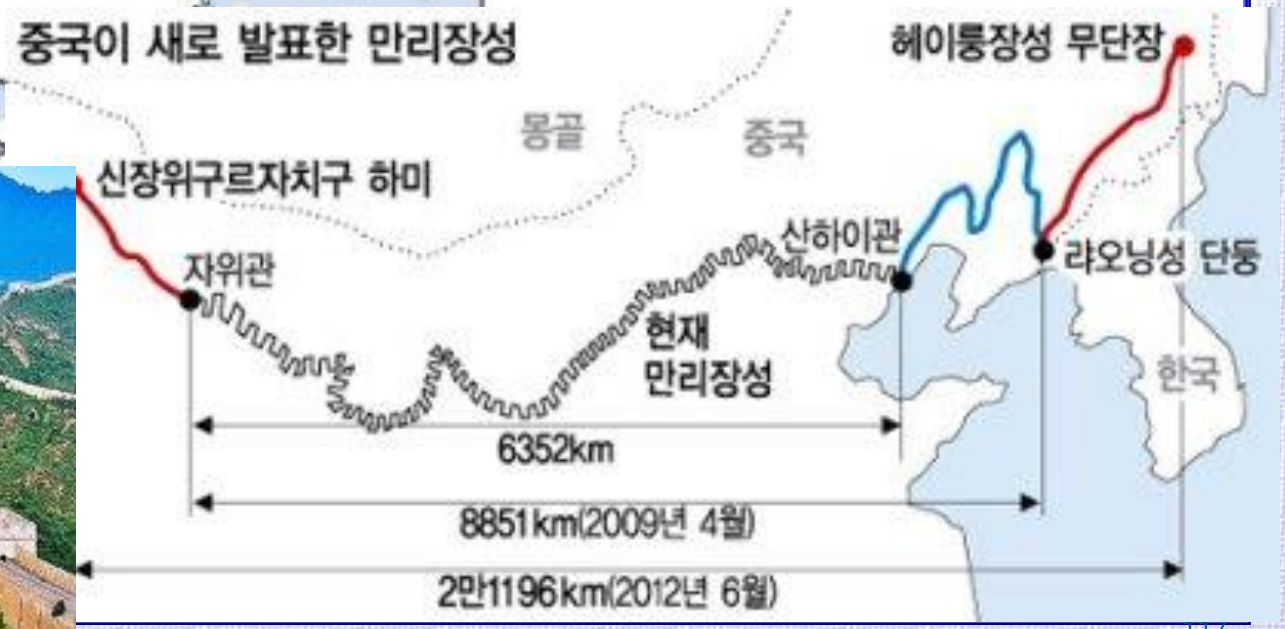
베이징의 북서쪽 바다링[八達嶺] 부근부터 쥐융관[居庸關]을 경유하여 다퉁의 남쪽 안먼관[雁門關]에 이르는 부분은 2중으로 축성되어 있는데, 2,700㎞가 전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다. 산하이관부터 황허 강에 이르는 부분은 매우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성의 외면은 구워서 만든 연한 회색의 기와로 덮여 있다. 이것을 전(塼)이라고 하는데 내부는 점토를 붙여 딱딱하게 만들었다. 바다링 부근은 높이 약 9m, 너비는 윗부분이 약 4.5m, 아랫부분이 9m가량이며, 총안(銃眼)이 뚫려 있는 톱날 모양의 낮은 성벽이 위쪽에 설치되어 있고 약 100m 간격으로 돈대(墩臺)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비해 황허 강 서쪽 부분은 전을 사용하지 않고 햇빛에 말린 벽돌을 많이 사용해 매우 조잡하다. 청대에 들어와 보수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허물어진 곳도 있다.


중국 만리장성 길이 확장 발표
헤이룽장성
무단장
몽골
신장위구르 자치구
하미
산해관
후산
가욕관
만리장성
베이징
한국
총 길이 21,196.18km
중국
확장 구간(12,344.38km)
2009년 발표(8,851.8km)






중국이 새로 발표한 만리장성
헤이룽장성 무단장
몽골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하미
산하이관
랴오닝성 단둥
자위관
현재
만리장성
한국
6352km
8851km(2009년 4월)
2만1196km(2012년 6월)

구 석 기

- 주먹도끼, 찍개, 긁개, 다각면원구 등 타제석기.
- 동굴생활, 바위그늘 유적.
- 한반도와 만주 지역은 기원전 약 50 만년전의 유적.



주먹도끼와 전곡리 발굴현장







구 석 기 시 대



강원도 양구 상무룡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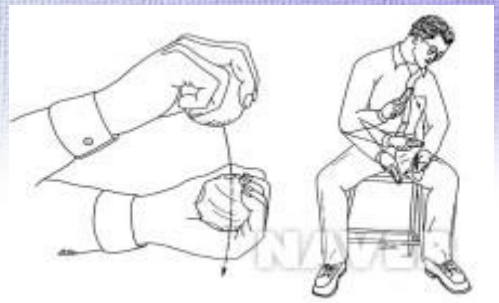


충북단양 수양개 유적

구 석 기 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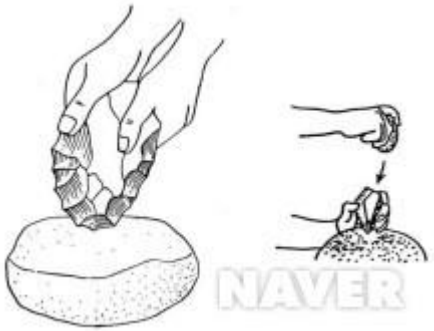
구석기 시대의 석기 제작 방법

- 직접타격
- 간접타격
- 놀러떼기
- 모루떼기









구 석 기 시 대



돌날몸돌
(blade core, L:73㎜)

붙는 몸돌과 격지
(refitted core and flakes, L:82㎜)

몸돌
(cores, 우측 L:36㎜)

돌날몸돌 (blade cores,좌측 L:104㎜)

몸돌 (cores, 우측 L:36㎜)

구 석 기 시 대


various
non-Acheulean
East Asian
chopper-
chopping
tool
complex
MOVIUS LINE
Acheulean
tradition

구 석 기 시 대









한국의 신석기

<신석기 시대 >

ㅇ마제석검과 마제석촉 등

마제석기. 빗살무늬 토기.

ㅇ원형의 움집생활(반지하식).

ㅇ 20~30명씩 무리를 지어

사냥과 물고기잡이 채집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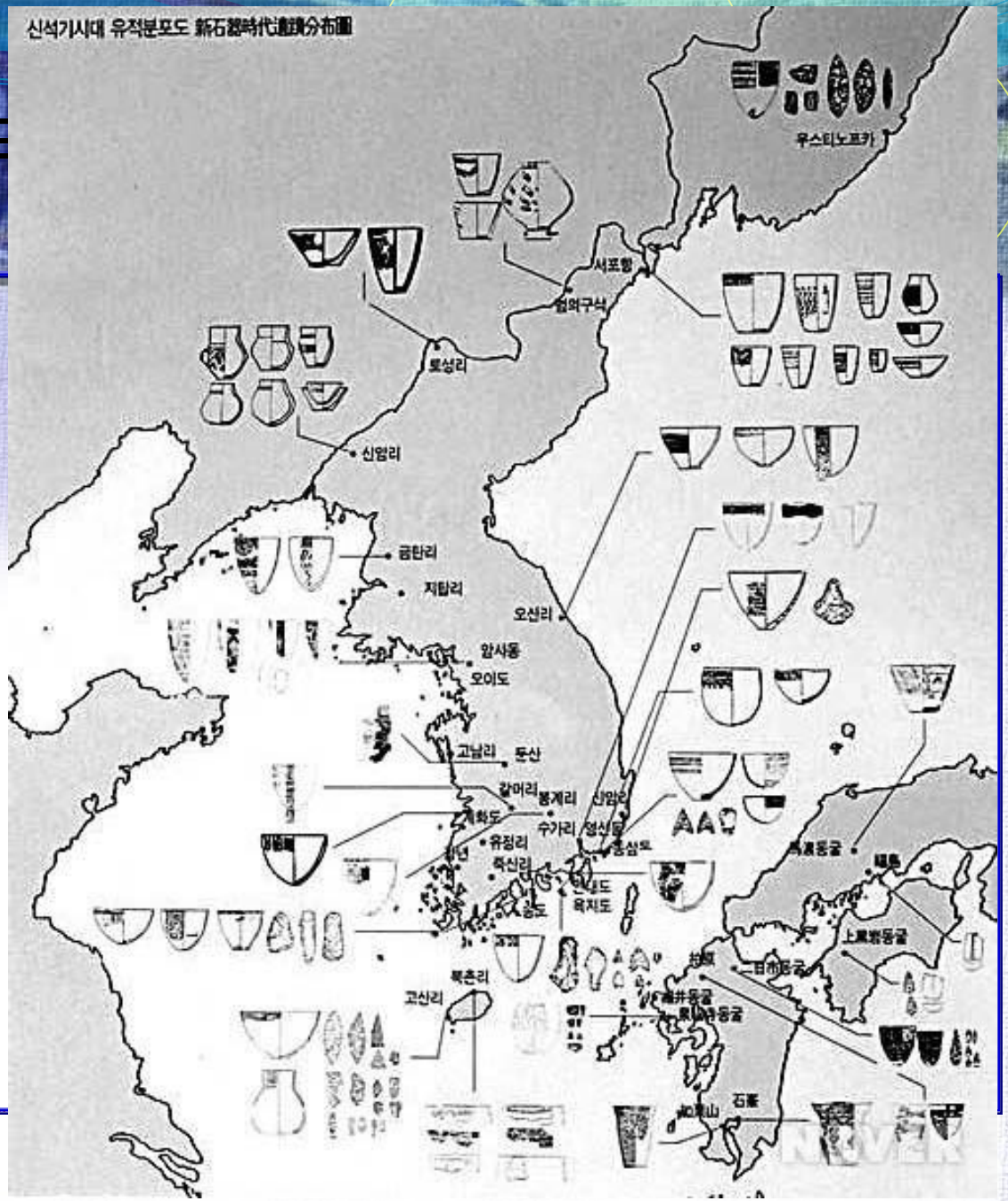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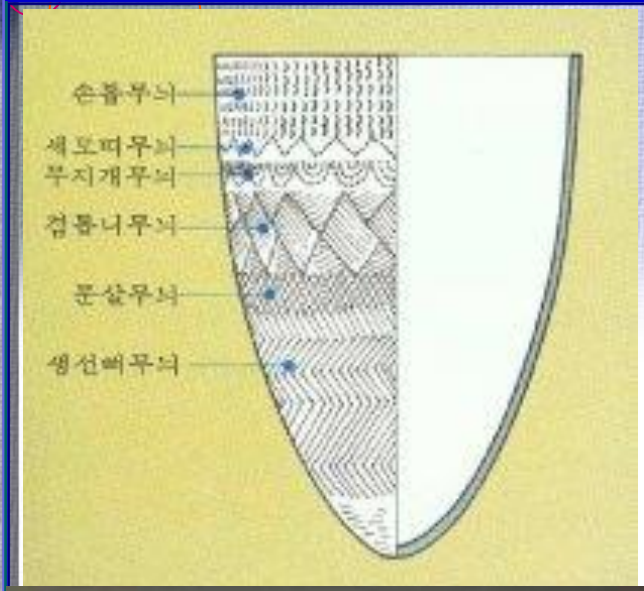
빗살무늬 토기

한국

한국의 신석기문화는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가 신석기시대의 토기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빗살무늬토기문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의 신석기문화는 토기의 변화양상을 볼 때 대략 초기, 전기, 중기, 후기의 4단계 발전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있다.



신 석 기 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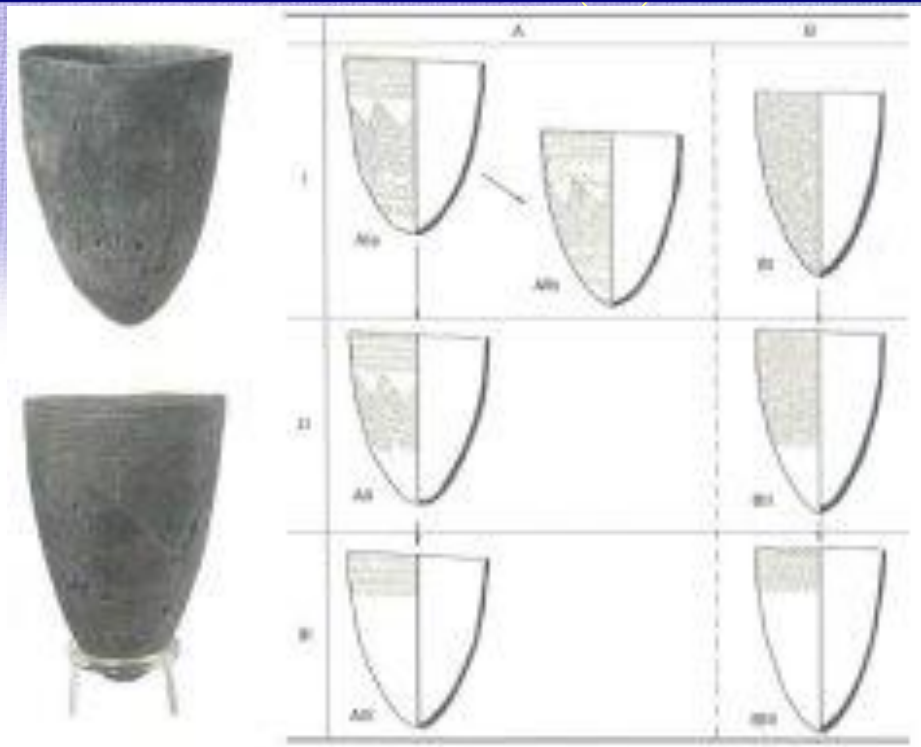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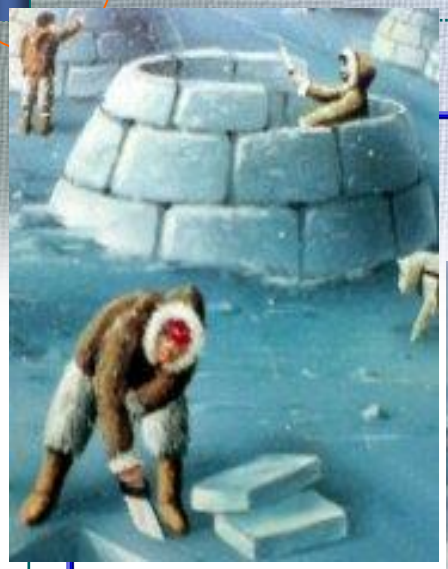
그림 24 서울 암사동 유적 토기제작과 출사무늬의 토기 편년도(이홍종 1983)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



서울 암사동유적 (움집)

신석기시대의 주거지와 이글루







에스키모 인디안의 얼음집(이글루)

신 석 기 시 대 - 패총









마 제 석 검





한국민족의 형성과 문화적 배경



한국민족의 형성과 문화적 배경

2.한국의 청동기 문화

(1) 요녕식 동검문화

ㅇ한반도와 만주 중남부는 기원전 10세기경 시작.

ㅇ중국식 동검인 도씨검이나 오르도스식 동검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ㅇ예, 맥, 한족. 청동기의 사용-주물제조=거푸집. 농기구와 무기의 기술발달.

ㅇ기원전 8~7세기 무렵 쌀농사.

한국민족의 형성과 문화적 배경

한국의 청동기문화

(2) 한국식 동검문화

- 초기 청동기를 요녕식 동검문화라 하면 후기 청동기는 한국식 동검문화
- 세형(細形)동검 = 고조선의 영역과 중국의 동북공정의 객관적 자료.
- 요녕식 동검과 한국식 동검은 칼날과 칼자루가 따로 만들어 조합
- 중국을 대표하는 도씨검과 오르도스식 동검은 칼날과 칼자루가 일체형


www.swords.pe.kr


NAVER







▲요령식 동검 / 전傳 황남 신천 출토(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무문토기(민무늬토기)





청동기 시대

청동기시대의 무덤

ㅇ 고인돌=북방식, 남방식, 개석식 고인돌.

ㅇ 북방식 : 한강이북. 탁자식. 매장주체부가 지상에 있음.

ㅇ 남방식 : 한강이남. 바둑판식.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있음.

ㅇ 개석식 : 주로 영남지방에 분포. 매장주체부는 지하.

땅 위에 뚜껑돌만 있어서 정확한 구별이 어려움.

성혈. 하천의 흐름과 일치.

ㅇ 우리민족의 기틀이 형성된 시기는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 이다.



한반도의 고인돌(지석묘)문화



산수리 고인돌



괴치리 고인돌



계당리 고인돌



황산리 고인돌



삼인리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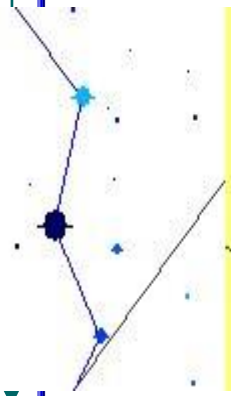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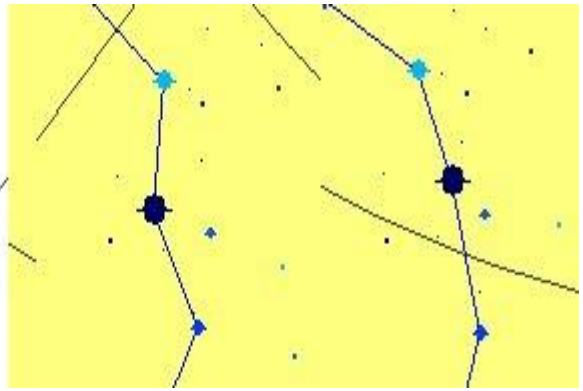
괴치리 고인돌

청동기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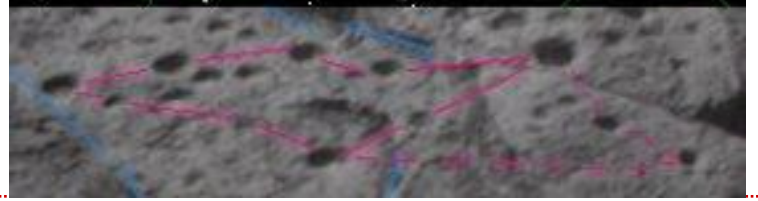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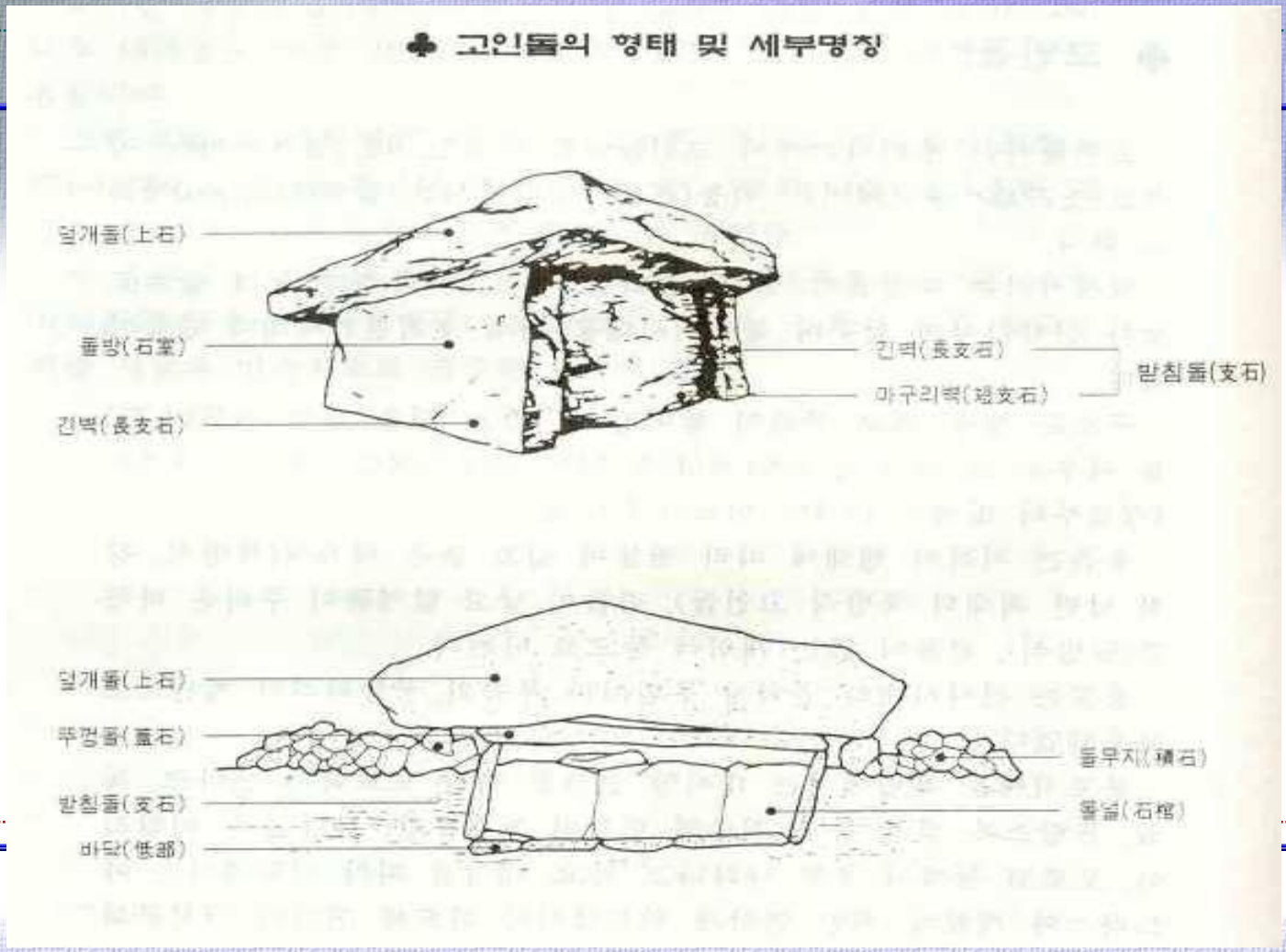








3. 한국민족의 형성


♣ 고인돌의 형태 및 세부명칭
덮개돌(上石)
돌방(石室)
긴벽(長支石)
긴벽(長支石)
막구리벽(短支石)
받침돌(支石)
덮개돌(上石)
뚜껑돌(蓋石)
받침돌(支石)
바닥(底部)
돌무지(積石)
돌널(石棺)

돌널무덤은 고인돌과 함께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무덤 형식이다.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안에 돌로 널(棺)을 만들어 주검을 묻는다. 한자어로 **석관묘(石棺墓)**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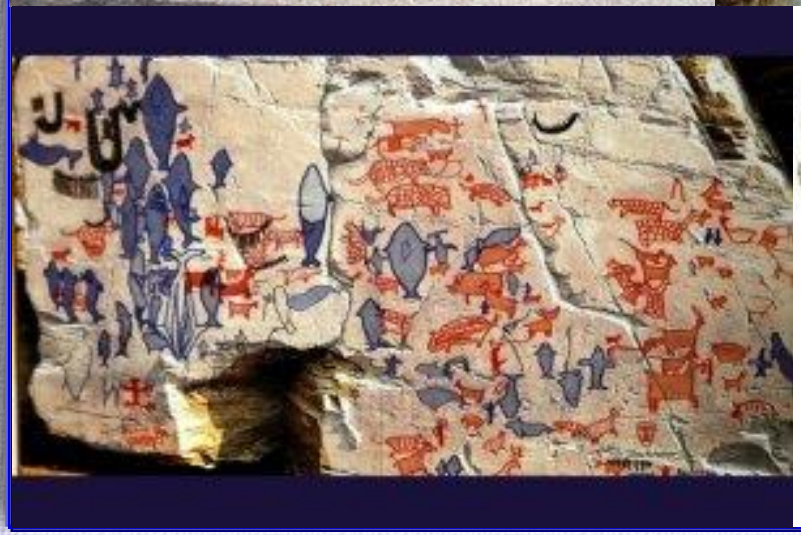




한반도의 암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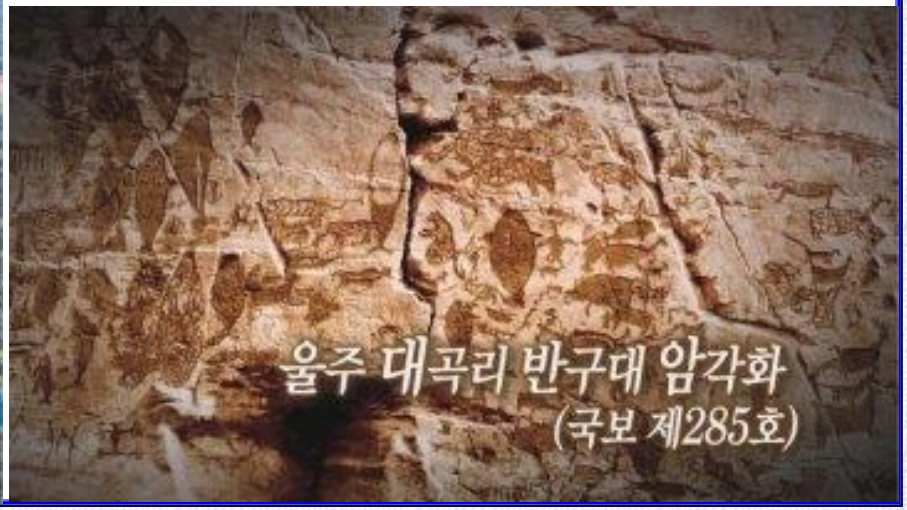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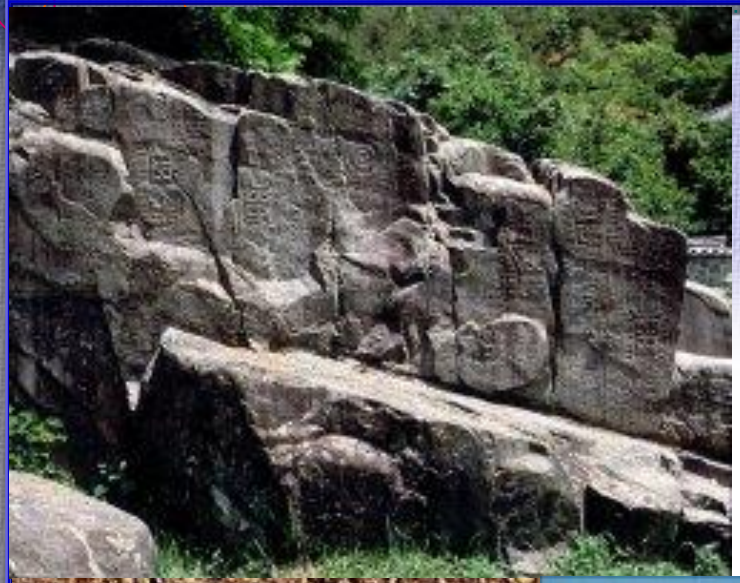







천전리 각석
울산 반구대 암각화
900m
650m
반구교
대곡천
사업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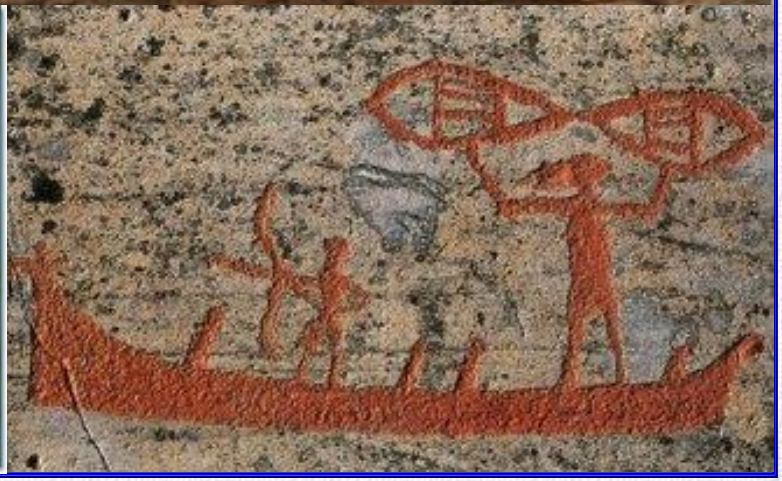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국보 제285호)








배, 울타리, 그물 Boats, Hedges, Nets
사람, 얼굴 People, Face



초기철기시대

첫째 단계는 중국제 철기가 들어온 시기입니다. 서기전 4~3세기에 해당하는 명도전이 압록강 중류지방에서 서북지방에 걸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명도전은 연나라의 동폐로서 표면에 '明' 자가 양주되어 있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이것은 철기를 사용하던 연나라 영역에 살던 주민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에 최초로 철기가 들어온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단계는 철기가 본격적으로 생산,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서기전 108년 한나라 무제에 의한 낙랑군의 설치는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철기는 우리 나라 전역으로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즉 도끼 · 가래 · 낫 등 철제 농경구와 단검 · 창 · 꺽창을 비롯한 무기류가 전국적으로 생산,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경주 일원에는 철을 채취하던 원시 용광로 유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이 시대에 철생산 활동이 활발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초기철기시대

우리가 알아야할점은 철기가 유입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석기나 청동기가 사용된 점, 청동기가 소멸된 후에도 무문토기의 계열인 경질무문토기와 적갈색 연질토기가 계속적으로 사용된 점, 특히 철기 중에서 초기에는 청동기를 모방한 유물이 많은 점 등입니다.다만, 철기의 제작기술은 외부로부터 유입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부지역의 철기문화는 외래적인 문화요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토착적인 청동기문화에 이어 변화 · 발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철기시대는 역사적으로 보아 북부지역에서는 고조선과 위만조선에 이어 고구려가 등장하는 시기이고, 남부지역에서는 삼한이 자리잡았던 시기입니다. 서울지역, 경주지역, 김해지역에서는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독자적인 중심 세력이 형성되면서 각각 백제, 신라 및 가야 등으로 발전되어나갔습니다.

초기철기시대

토기의 입술 바깥에 단면원형 · 타원형 · 삼각형 등의 덧띠[粘土帶]를 말아붙여 입술부분을 보강한 토기로서 점토대토기라고도 한다. 덧띠를 따로 만들어 붙였기 때문에 덧띠부분만 떨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덧띠 부근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자주 관찰된다







초기철기시대

마연 토기는 토기의 표면을 매끄러운 도구로 문지른 후에 구운 토기를 말한다. 붉은 간토기 · 검은 간토기 · 갈색 간토기로 분류된다. 토기의 표면을 갈면 표면에는 얇은 막이 형성되어 매끄럽게 됨에 따라 용기로서의 기능이 높아지고 흡수율도 낮출 수 있게 된다. 간토기는 일반적인 물손질로 제작된 토기보다는 대체로 점토가 정선되었고, 제작 기법도 치밀하여 정제 토기로 분류되기도 한다

검은 간토기는 흑색을 띠는 광물질을 바른 후 표면을 갈아 광택이 나며, 일반적인 민무늬 토기에 비해 정선된 바탕흙을 사용하였다. '흑도장경호', '흑색마연장경호', '흑도', '평저장경호' 등으로도 불린다. 몸체에 비해 목이 길고, 구연부는 약간 밖으로 벌어져 있으며, 저부에는 굽이 있다.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 단면 원형 덧띠 토기와 함께 출토되며, 대전 괴정동과 아산 남성리 등이 대표적인 유적이다.

마연 토기는 토기의 성형이 완료된 뒤 표면에 산화철의 액체를 바르고 매끄러운 도구로 문질러 소성한다. 이때 산화철은 고온에서 붉은 색으로 발색되며, 도구로 가는 과정을 통하여 토기의 표면에는 입자가 고운 점토가 부상하여 광택을 띠게 된다.

초기철기시대













초기철기시대









초기철기시대









원 삼 국 시 대

원삼국시대(Proto-Three Kingdoms Period)는 초기철기시대 이후~삼국시대 이전의 시대로서 서기전 100년경부터 서기 300년경까지의 약 400년간의 기간을 이른다. 이 시대는 서기전 100년경 한반도 북부 및 중국 동북지방 일원에서 고대국가 고구려가 성립하고 한반도 서북부에 낙랑군이 설치되며, 남부에서 도구용 청동기가 소멸하고 철기가 본격 생산되는 가운데 각 지역에 삼한 소국들이 성립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으로는 청동기의 실용성 소멸, 철기생산의 보급 및 확대, 김해토기의 출현, 농경(벼농사)의 발전, 고인돌〔支石墓〕의 소멸, 돌덧널무덤〔石槨墓〕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대략 4세기경에 삼국이 고대국가로 발전함으로써 원삼국시대는 종결되고 삼국시대로 진입한다

원 삼 국 시 대

종래 고고학계에서는 서기를 전후한 때부터 고총(高塚)이 발생하는 서기 300년경까지의 본격적인 철기시대를 김해시대(철기시대 II기)라고 불러왔다. 반면 문헌사학계에서는『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미 삼국시대인 이 시기를 삼한시대, 부족국가시대, 성읍국가시대, 삼국시대 전기 등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용어상의 불편과 불합리를 줄이고 두 학계 모두 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고고학자 김원용이 '원삼국시대'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이 용어의 명칭은 삼국시대의 원초기(原初期) 또는 원사(原史) 단계의 삼국시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그 기점을 대개 서기전 100년경으로 올려 잡는 경향이며, '삼국시대 전기'라는 용어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원 삼 국 시 대





〈목관묘 출토토기〉







원 삼 국 시 대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와질토기로 불리는 두드림무늬[打捺紋]의 경질토기(硬質土器)이다. 이 경질토기는 재래의 무문토기에 중국식 회도(灰陶)의 기술이 가미된 것으로, 태토(胎土 : 바탕흙)가 보다 정선되고, 이전의 노천요 대신에 온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밀폐된 평요(平窯)나 등요(登窯)에서 소성(燒成)되었다. 토기의 색으로는 홍갈색과 회청색 2가지가 있고, 표면은 격자무늬[格紋]나 돗자리무늬가 대부분이다. 이 시대의 농업은 삼한지역을 중심으로 벼농사가 많이 행해져 김해 패총에서는 탄화된 쌀이 출토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철기문화가 낙동강 하류의 삼각지에서 발달하고 많은 저수지 유적이 남아 있는 것은 당시에 벼농사가 많이 행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시루의 출현은 농경의 발달과 곡식 섭취의 일상화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묘제(墓制)는 원삼국시대 초기에는 독무덤[甕棺墓]과 나무널무덤[木棺墓]이 크게 유행했으나, 후기에는 덧널무덤[木槨墓]이 발달했다

원 삼 국 시 대

와질토기

.

연질토기 또는 ‘회도(灰陶)’라고도 한다. 회청색토기 또는 도질토기 등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회도라는 그 이름 자체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이름을 따른 것이다. 특색은 소성(燒成)의 최후단계에서 공기를 내보내지 않고 가마 안에서 환원하도록 되어 그 색조가 회청색으로 된 것이며, 그 결과 적색연질토기 등과 같이 적색으로 구워진 것보다 치밀하고 견고해지는 것이 특색이다. 회도에서 태토 중의 철분은 일산화철로 환원되기 때문에 적색의 그릇보다는 일보 진전된 단계의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태토를 보면 반드시 매우 고우며, 적색토기에서 보이는 모래 정도도 보이지 않는다.

색조가 우연히 회색과 같이 되어도 조질의 토기를 이런 점에서 회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회도인 듯한 것이 중국 용산문화(龍山文化)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은 전형적인 흑도보다 구워진 화도가 더 높거나 검게 그을리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회도라고는 볼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회도는 은·주(殷周) 이래 발전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표면에는 일반적으로 문살무늬〔格子文〕이나 삿무늬〔繩蓆文〕가 타인(打印)되어 있다.

원 삼 국 시 대

이러한 중국식 회도가 전국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재래식 무문토기에 영향을 주어 원삼국시대의 표지적인 유물인 타날문경도(打捺文硬陶)인 김해토기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 같으며, 그 연대는 서기전 1세기경으로, 최근에는 기원후 1세기경으로 내려잡고 있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와질토기는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 제작전통과 밀폐요를 사용하는 중국의 발달된 토기제조기술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토기라 할 수 있다.

한편 와질토기는 쇠뿔모양의 손잡이 달린 항아리, 주머니 모양 항아리, 시루, 단지, 항아리 등이 있다. 쇠뿔모양 손잡이 항아리와 주머니 모양 항아리는 청동기때 화분형 토기가 변화 발전된 것인데 시기가 늦어지면서 바닥에 다리가 붙은 것으로 변화한다. 쇠뿔모양 손잡이 항아리와 주머니 모양 항아리는 영남지역과 충청도 지역에서 확인되어 한반도 남부 전역에 걸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토기는 지역에 따라 모양이 약간씩 다른데 이는 지역적인 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원 삼 국 시 대







원 삼 국 시 대





춘천 율문리 유적 凸자형 주거지







원 삼 국 시 대
고대의 철생산과 철기문화

진천 석장리 유적

진천 석장리 유적은 미호천 상류에 형성된 충적대지와 노령화된 낮은 구릉지대로 이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발 105m 내외의 야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완만한 구릉의 서쪽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이 유적은 국립청주박물관이 실시한 진천군 문화유적 지표조사에서 찾아진 유적으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차년에 걸쳐 발굴 조사되었는데, 발굴지역에서 모두 36기의 철 생산 또는 철제품 제작과 관련된 노적(爐蹟)이 확인되었다

유적은 낮은 구릉의 작은 골짜기를 이루는 경사지를 이용하여 한정된 공간에 다양한 노적이 밀집해 있었다. 제련에서 단야(鍛冶)까지 일련의 공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규모와 형태에 있어서도 장방형의 대형상형로(大形箱型爐) · 원형로 · 방형로 · 장방형로 등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노(爐)의 구조적인 면에서는 경사지를 이용하여 간단한 기초시설을 한 지하식과 반지하식이 확인되었다. 특히 외곽에 'ㄷ'자 모양의 구덩이를 파고 그 내부에 노를 축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 삼 국 시 대





연대는 출토된 유물을 통해서 볼 때 대체로 3세기부터 5세기 초까지 이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철 생산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진천 석장리 고대철생산 유적은 고대 국가 형성과정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철 생산의 양상을 밝히는 중요한 유적으로, 다양한 노의 형태와 구조가 비교적 잘 남아 있어 고대 제련로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원 삼 국 시 대



송풍관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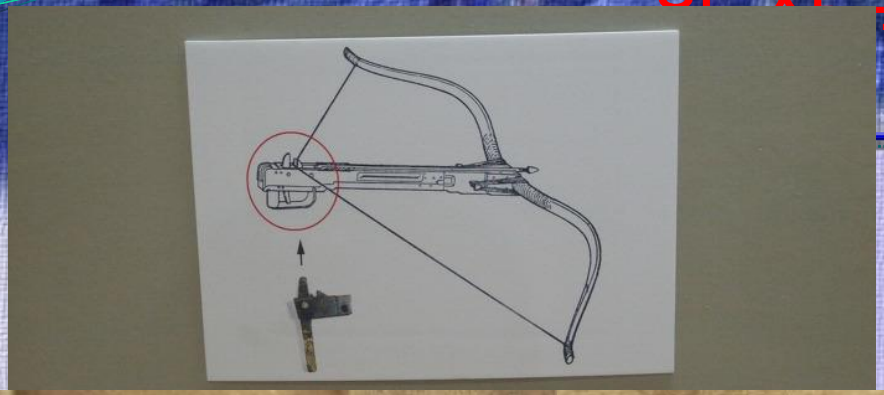
제철의 원료인 철광석(혹은 사철)은 녹는점이 높기 때문에 화력이 좋은 참나무 등을 연료로 사용하며 높은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강한 바람을 제철로 안에 넣어 주어야 한다. 이때 바람을 넣어 주는 장치와 제철로 안을 연결시켜 주는 도구가 바로 송풍관이다. 제철로 안에 들어간 송풍관의 끝부분은 높은 온도 때문에 녹아내려 있고 원료가 녹는 과정에 생기는 불순물인 슬래그(slag)가 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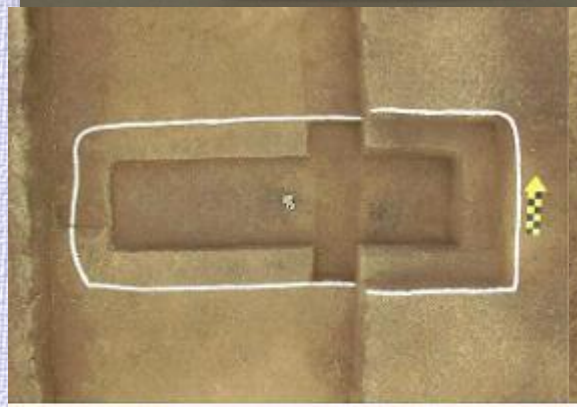
대장 도구

단야구는 대장간에서 쇳덩어리[鐵塊]를 달구어 원하는 형태의 철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작업도구이다. 그 종류로는 집게·망치·받침모루·끌·숫돌 등이 있으며, 불에 달군 덩이쇠를 집게로 집어 받침모루에 대고 망치로 두들기거나 끌로 잘라내서 여러 가지의 철기를 만든 다음 숫돌에 갈아 모양을 다듬는다.



왕 실 국 시 대













원 삼 국 시 대



20061024 장성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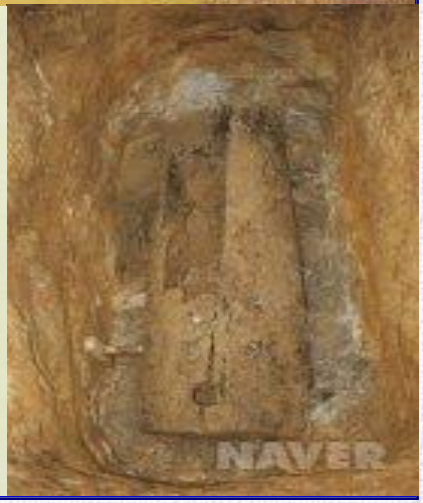
원 삼 국 시 대
경남창녕다호리유적











삼 국 시 대

고구려의 시기구분

수도의 위치에 따라 구분 : 환인(桓因)시기, 국내성(國內城) 시기, 평양 시기 등.

기원전 37년 건국 직후부터 영역확장을 추구하였고 졸본에서 국내성과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며 영역국가로 발전. 국내성시기의 고구려는 넓은 영토를 차지해 왕은 태왕으로 불림.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고구려는 중국 및 서역과의 적극적인 교역을 통해서 수준높은 문화대국으로 발전.

6세기 중엽 이후 귀족들의 연립정치, 지방분권, 신라의 성장, 수와 당의 압박 등으로 혼란에 빠져 668년 멸망. 700여년에 골친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은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의 북부와 중부지방에 산재한 유적과 유물에 잘 나타나 있다.

고구려 고고학의 시기구분은 고구려의 발전에 따라 3세기말까지의 성립과 발전기, 3세기말~6세기 초까지의 국가체제 정비 및 대외팽창시기, 6세기 중엽부터 멸망까지 쇠퇴기 등으로 구분.

고분의 변천과정 : 성립과 발전기는 수혈식 적석총. 3세기말~5,6세기 대는 석실적석총과 봉토석실분,벽화분이 공존. 6세기이후는 사신도가 그려진 벽화분과 봉토석실분이 중심이 된다.



▲ 4세기 경 삼국시대 지도

삼 국 시 대

1. 고구려의 고분

고구려의 고분은 적석총과 봉토분으로 크게 구분. 그러나 분구와 매장구조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가진다. 분구는 적석분구와 기단 봉토분구, 봉토분구가 있다. 매장부는 수혈식 구조와 횡혈식 구조가 있다. 적석분구의 경우 수혈식과 횡혈식 매장부가 있다.

1)적석총 : 지상에 돌을 깔고 그 위에 주검을 안치한 후 다시 돌을 덮어 매장.돌무지무덤 또는 돌각담무덤. 지하매장부를 가진 중국무덤과는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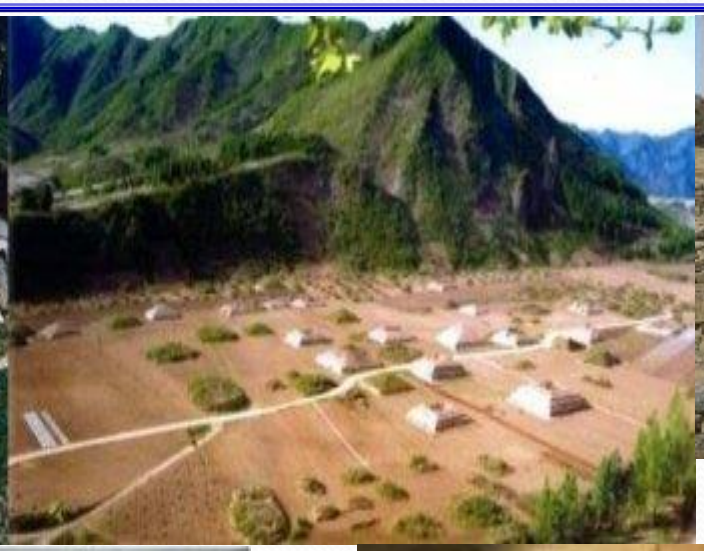
강변 대지나 구릉성 대지에 열을 지어 분포.하나의 분구에 매장부 하나가 자리하는 것이 다수이나 한 분구내에 여러 개의 곽이 있기도 하다.

적석총의 기원은 천산산맥 이동지역에서부터 집안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하는 기원전 4~3세기의 돌무덤에서 유래.

적석총의 외형은 무기단,기단,계단식. 매장방식은 수혈식과 횡혈식. 3세기경에는 계단석곽적석총이 축조되기 시작하면서 무기단, 기단, 계단상 적석총이 함께 축조된다. 석실구조는 3세기 말경에 등장하여 4세기경이 되면 계단석실 적석총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고구려 적석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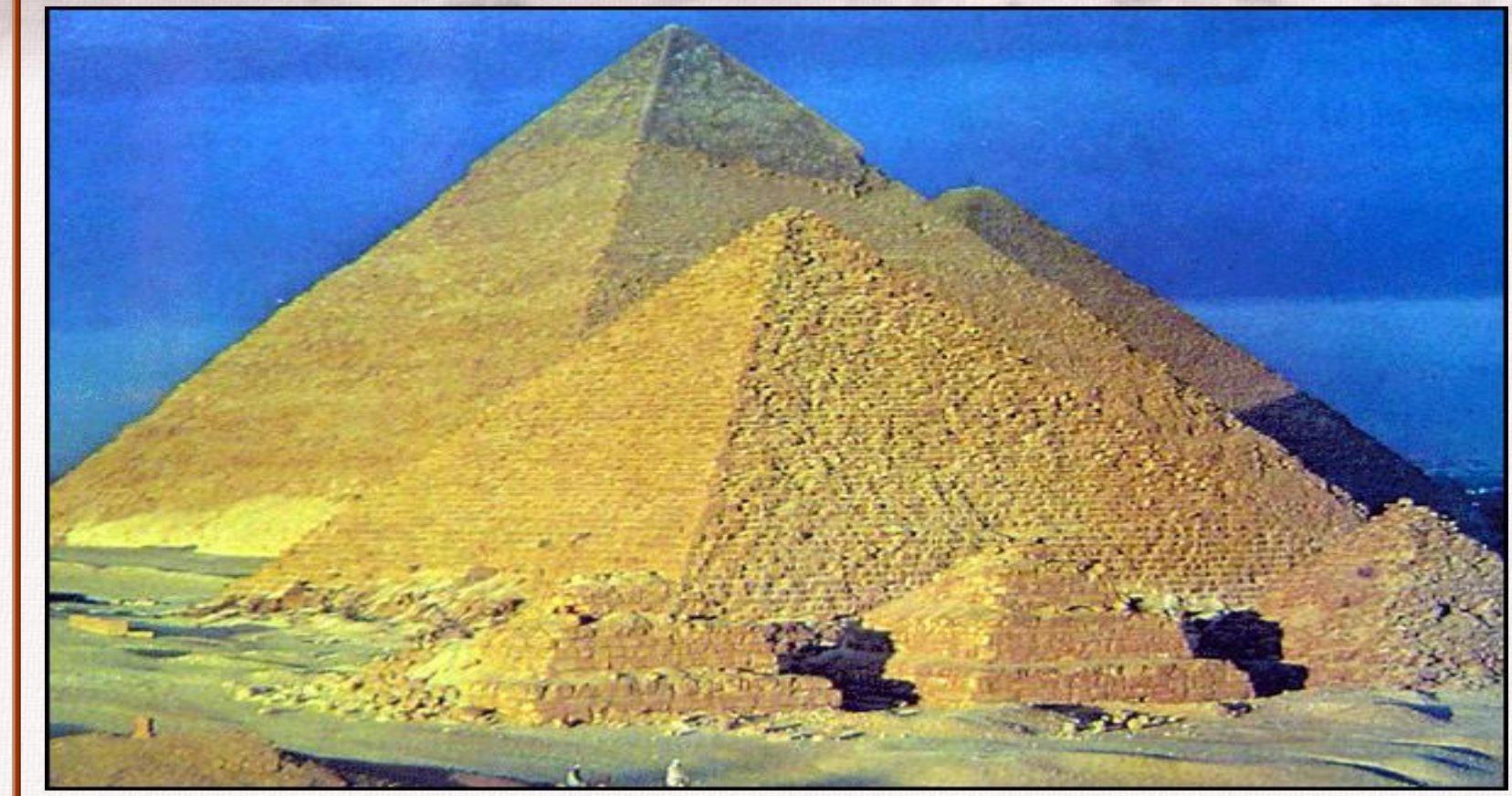
제2장 삼국의 성립과 발전

- 고구려 고분 : 장군총(30m, 11.3m)



제2장 삼국의 성립과 발전

- 이집트 피라미드(240m, 146m)



제2장 삼국의 성립과 발전

- 아즈텍 문명(13~15세기, 멕시코)



삼 국 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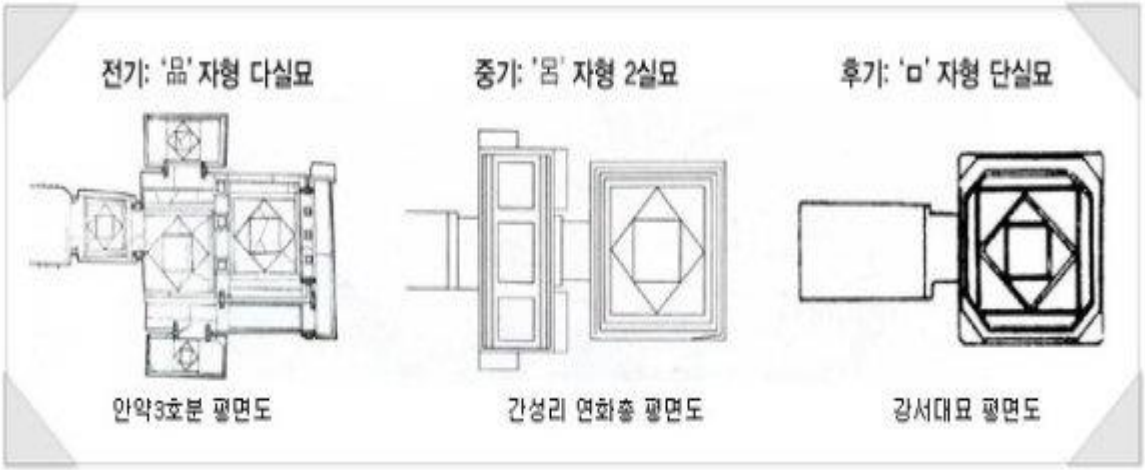
1. 고구려의 고분

2)봉토석실분과 벽화분 : 지상이나 반지하에 석실을 만들고 흙을 덮어 분구를 갖춘 무덤. 분구는 흙으로만 쌓은 것과 기저부에 돌 기단을 두른 것. 기단을 두른 기단봉토석실분은 적석총과 봉토석실분이 절충된 형태. 적석총에서 봉토석실분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의 묘제.

봉토석실분은 중국횡혈식 장법의 영향을 받음. 4~5세기대에는 횡혈식 장법이 쓰인 석실적석총과 봉토석실분이 병존했다. 벽화분은 석실 내부의 벽과 촌장에 그림을 그려 장식한 무덤. 매장부는 단칸구조, 전실과 현실의 두칸구조, 세칸이 통로로 연결된 구조, 현실이나 전실에 측감이나 측실이 달린 구조 등 여러 형태가 있음. 천장은 궁륭천장, 빗천장, 모죽임 천장. 봉토석실벽화분은 복잡한 구조에서 6세기가 되면 방형 현실, 중앙연도, 평행고임식 천장 등 단칸구조의 무덤으로 간단하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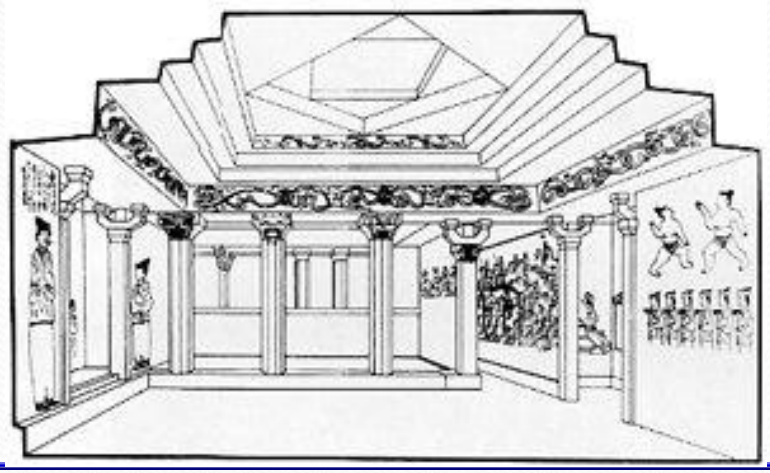
벽화는 초기에 생활풍속도, 중기에 생활풍속과 장식도, 후기에 사신도가 나타난다. 사신도 벽화분은 벽면을 잘 다듬은 후 네 벽면에 사신(동-청룡, 서-백호,남-주작,북-현무)이 그려져 있다.

고구려 벽화고분


전기: '品' 자형 다실묘
중기: '呂' 자형 2실묘
후기: 'ㅁ' 자형 단실묘
안악3호분 평면도
간성리 연화총 평면도
강서대묘 평면도




www.myhuafu.com



삼 국 시 대









삼 국 시 대

2. 고구려의 성

도성은 평지성과 산성으로 이루어졌고 지방 각지에는 주로 산성. 성의 축조는 쐐기돌로 축조한 석성, 판축 후 바깥쪽에 돌을 덮는 석성, 흙과 돌을 섞어서 축조한 토석혼축성, 판축토로 쌓은 토성 등. 평지성 중에는 토성이나 토석혼축성이 있으나 산성은 대부분 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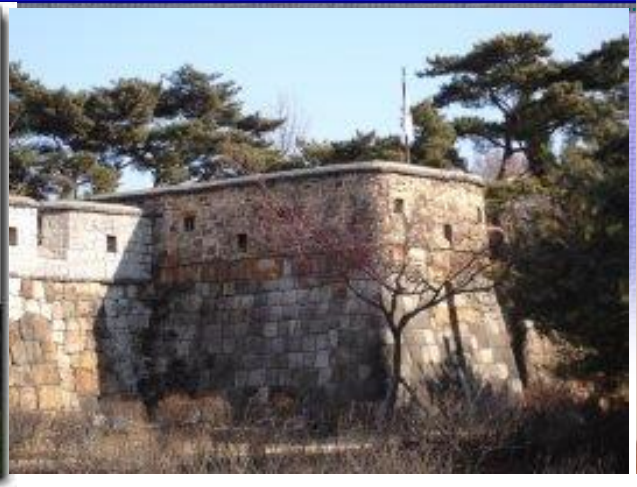
고구려 성의 시설 : 성문과 성벽, 성벽에는 마면(치)과 여장, 성벽이 꺾이는 곳에 세운 각루, 성의 둘레에는 해자를 돌린다.

고구려 산성은 대체로 삼면이 높은 산 또는 절벽으로 둘러싸이고 남쪽만 완만하게 경사가 낮아진 곳에 쌓았으며 성벽은 수직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고구려 성으로 밝혀진 것은 만주 집안(輯案)의 위나암성, 환인산성, 길림의 용담산성, 용강의 황룡산성, 평산의 태백산성 등이 잘 알려져 있다. 남해에는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펴 한강 이남까지 진출했을 때 축성한 것으로 짐작되는 단양의 온달성과 음성의 방이산성이 대표적인 유적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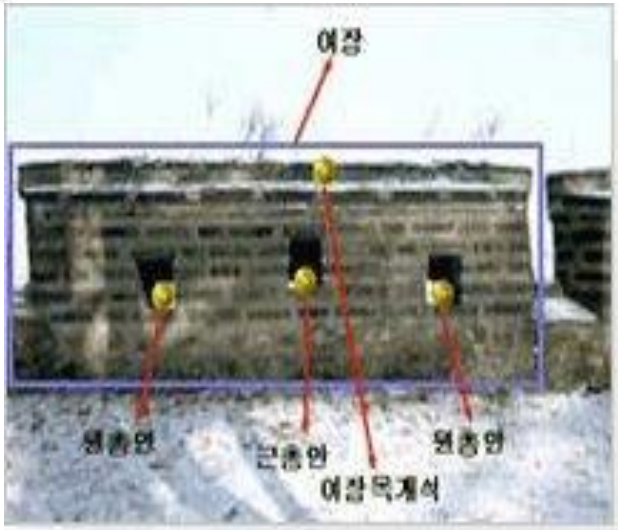
삼 국 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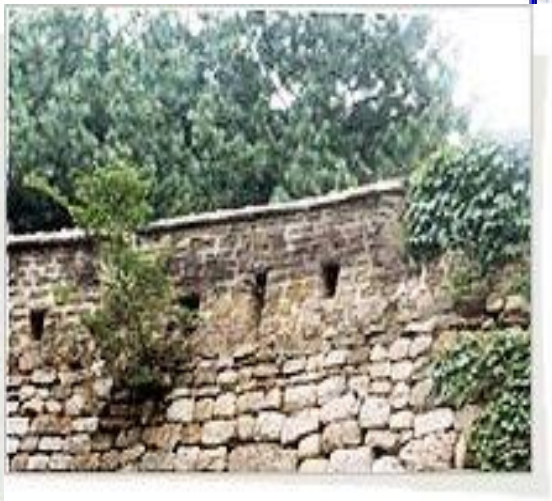





par le pape Gélase II. Longtemps rivale de la puissante abbaye de
elle fut presque entièrement reconstruite par les moines de Saint-Maur.
ents qui subsistent actuellement datent, en grande partie, du XV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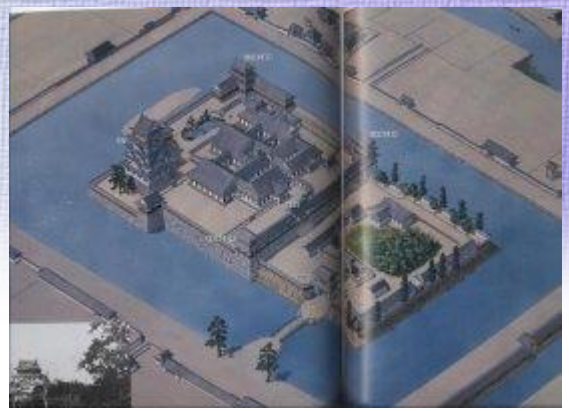



여장
외층안
내층안
외층안
여장목계석



삼 국 시 대













고구려의 무기











쌍영총 고분 벽화에 묘사된 고구려 중장기병

고구려의 무기
안악3호분의 행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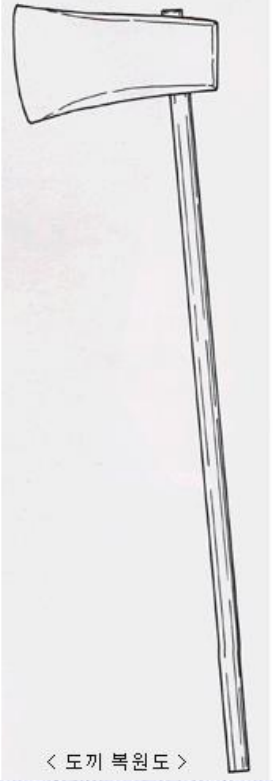
고구려의 무기







〈 아차산성 발굴 도끼 〉



〈 도끼 복원도 〉



고구려의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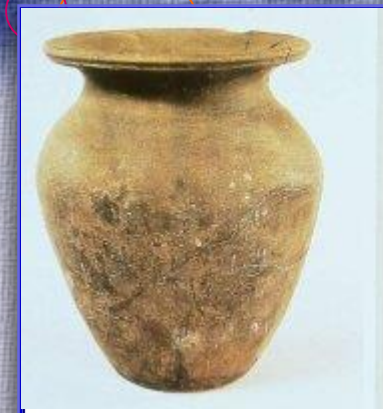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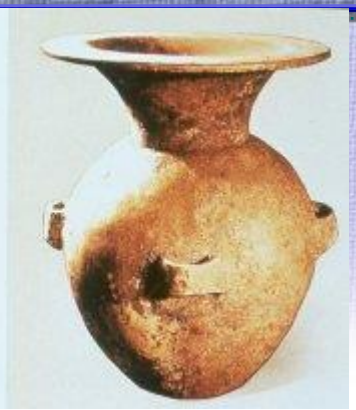
고구려토기는 백제나 신라토기에 비해 남아 있는 유품이 희소하여 그 발전 과정을 구체적 · 계통적으로 고찰하기 어렵다. 단지 고구려 고지(故地)의 고분이나 건물지 등 각 유적에서 반출된 토기들을 통해 그 특징의 일부를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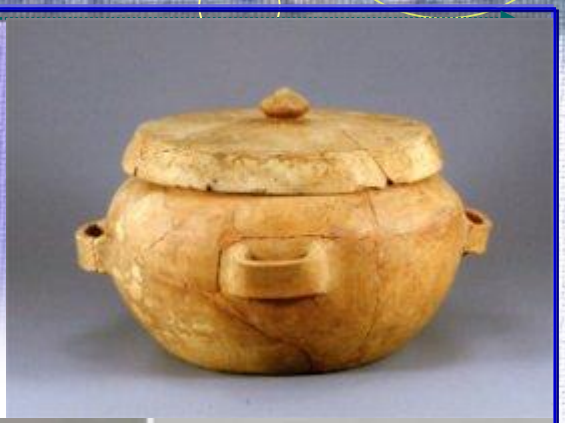
고구려토기는 낮은 온도에서 구워진 연질토기와 고온으로 만들어진 경질토기로 구분되지만 경질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구려 중기에는 유약을 바른 기종도 나타난다.

기형상으로는 난형(卵形) 몸통에 아가리가 넓고 목이 있는 광구호(廣口壺), 원통형 몸통에 삼족(三足)이 달린 기형, 황유(黃釉)가 덮이고 구연부가 넓으면서 귀가 달린 이부호(耳付壺), 반(盤), 보주형꼭지 〔寶珠形紐〕 가 달린 완(涠), 삼각(三脚)이 달린 원형벼루 · 대접, 띠손잡이가 달린 시루, 뚝배기 및 보시기류 등과 시유(施釉)되지 않고 화문(花文)이 그려진 채화토기(彩怜土器)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한강 유역의 고구려 보루에서 고구려 토기가 많이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구의동유적에서는 토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니질(泥質) 태토로 되어 있으며, 표면색은 황갈색과 흑색, 흑회색, 회색 등이 있으나 황갈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구려토기






고구려 금속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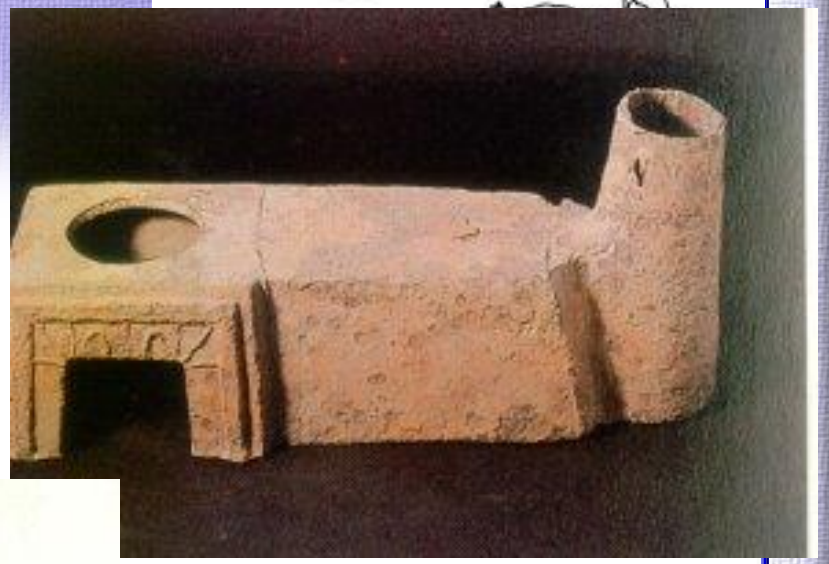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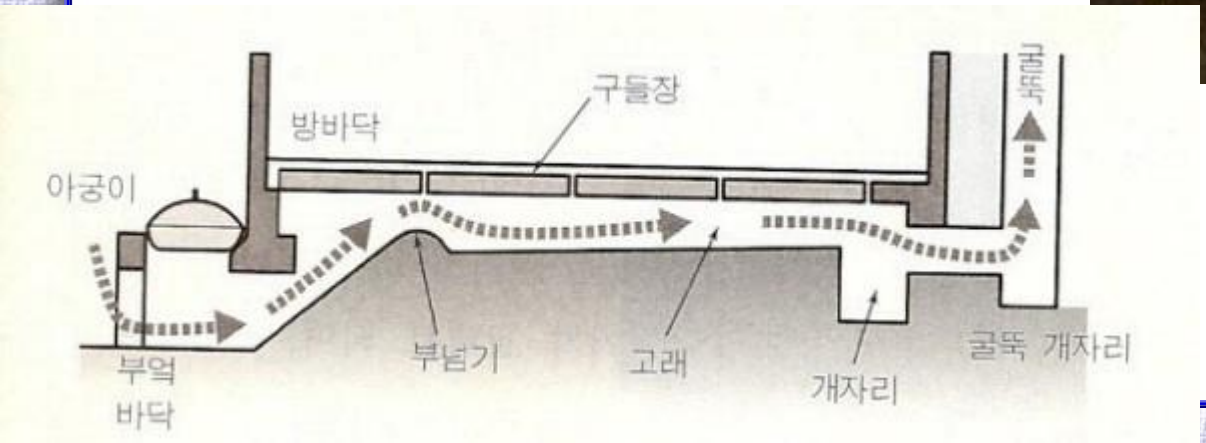


고구려의 화덕









고구려의 기와













백 제-고 분-


석촌동 고분군


2006/12/06 12:44


동 해
개성
춘천
가평 이곡리
서울 중곡동
서울 가락동
서울 석촌동
여주 상 리
인천
서울 방이동암사동
양평 단석리
여주 보통리
여주 매룡리
화성 백곡리
수원
서산 명지리
청주
청주 신봉동
보령 장현리
청양리
구룡리
공주 고분군
대전
부여 고분군
익산 석왕리
신왕리
완주 둔산리
전주
황 해
대구
임실 금성리
부안 당하리
정읍 운학리
남원 두락리
초촌리
월산리
고창 신월리
송룡리
상갑리
매산리
울산
나주 흥덕리
대안리
신촌리
덕산리
창원
함평 마산리
초포리
월호리
예덕리
광주
광주 지산동
영암 내동리
만수리
부산
범 례
제주

제2장 삼국의 성립과 발전

- 백제고분 : 석촌동 3호분



백 제-몽촌토성-한성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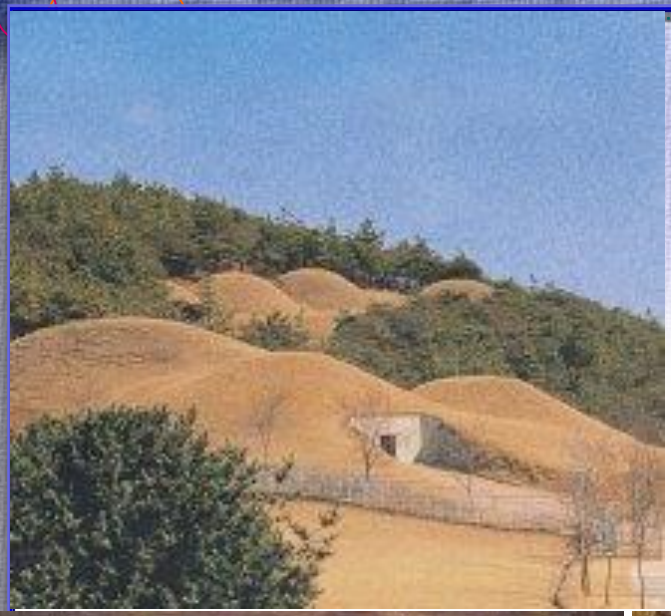
몽촌토성, 사적 제297호,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백 제-고 분











제2장 삼국의 성립과 발전

공주 무녕왕릉 : 전축분(벽돌무덤)



백 제-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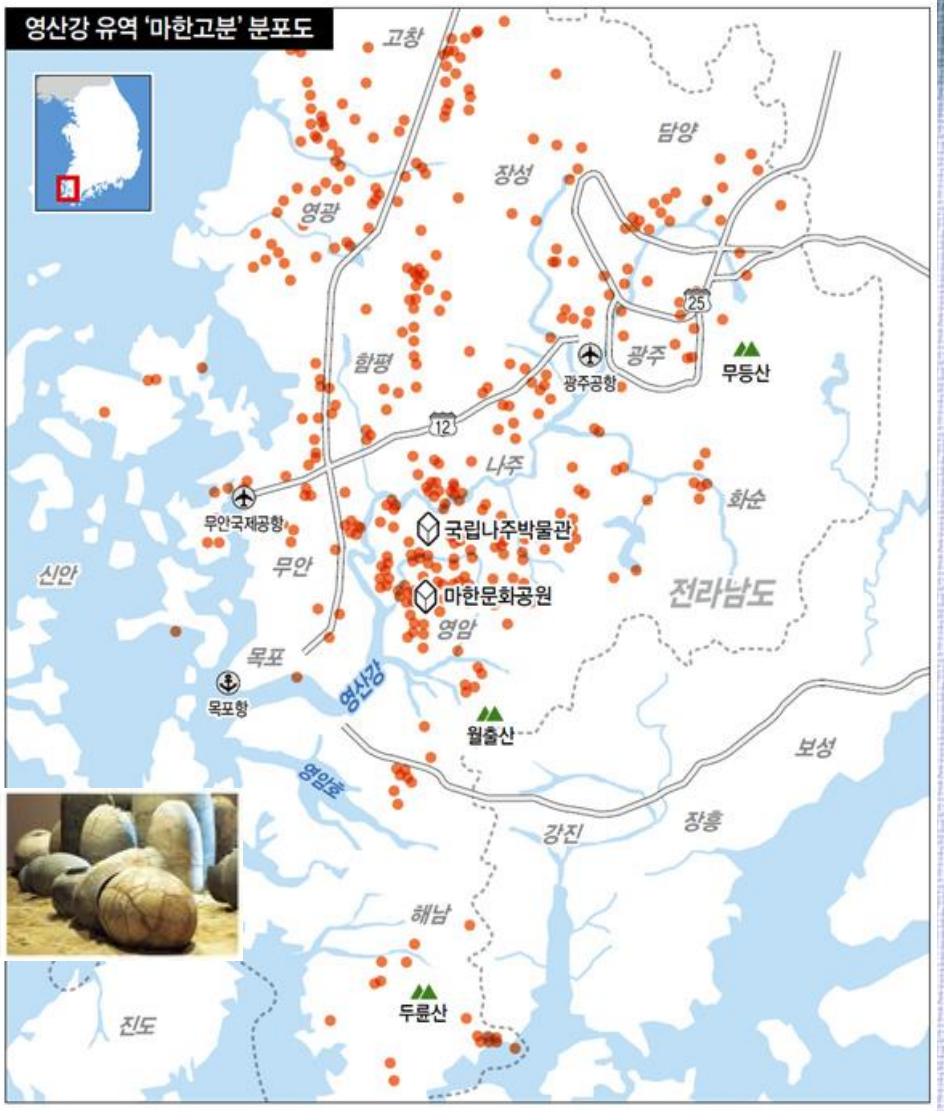


백 제-고 분



백 제-고 분




영산강 유역 '마한고분' 분포도
고창
담양
장성
영광
함평
광주
광주공항
무등산
25
12
나주
화순
무안국제공항
국립나주박물관
무안
신안
마한문화공원
전라남도
영암
목포
영산강
목포항
월출산
보성
영암호
강진
장흥
해남
진도
두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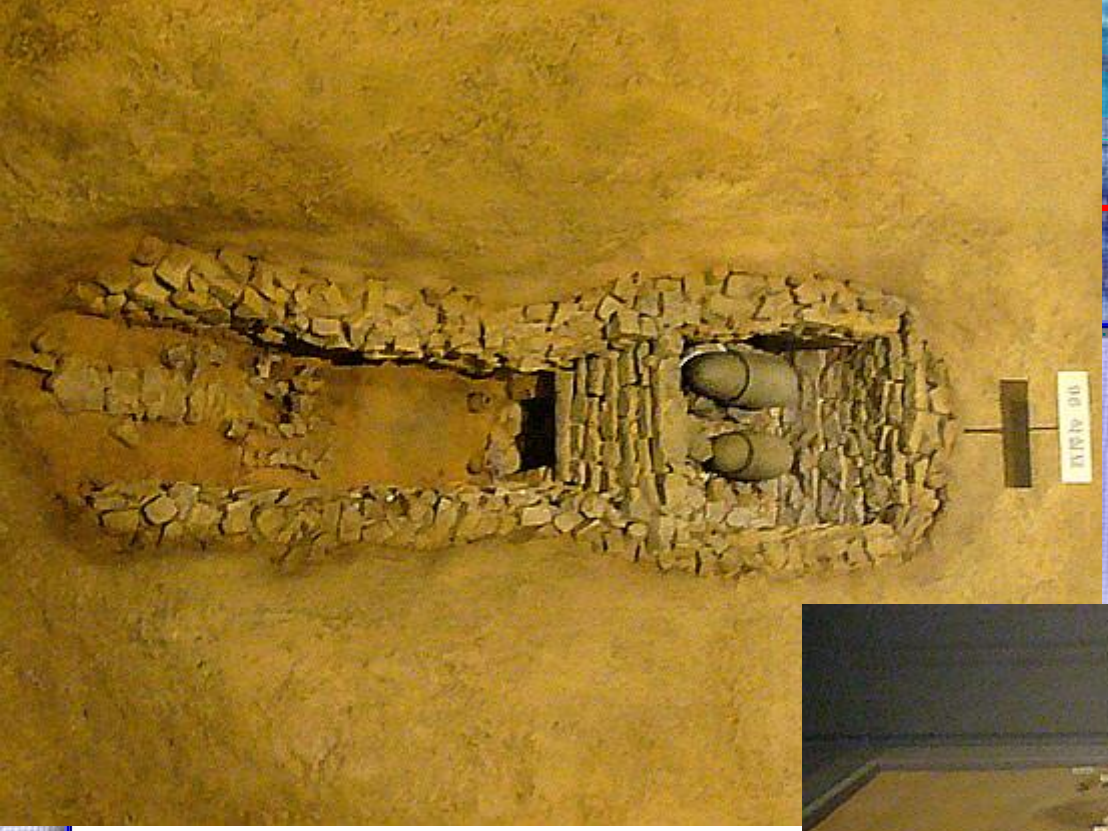
백 제-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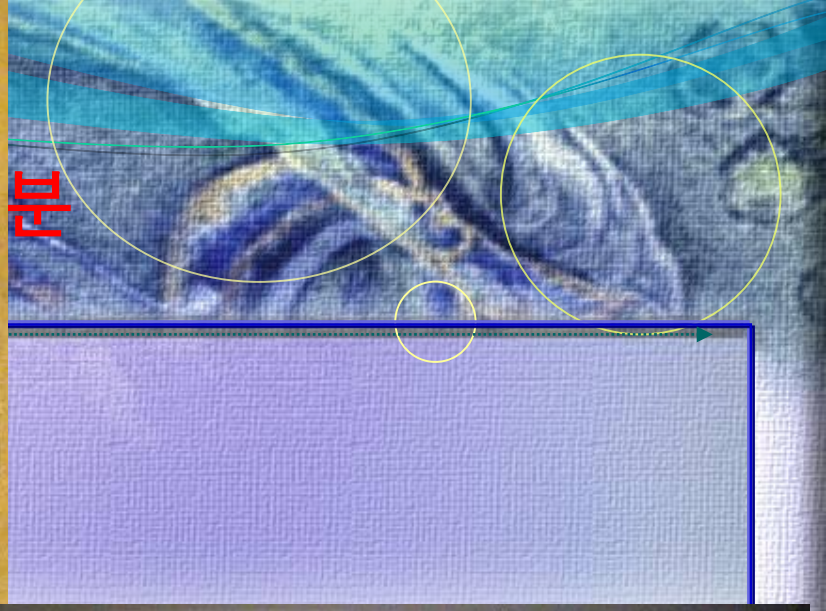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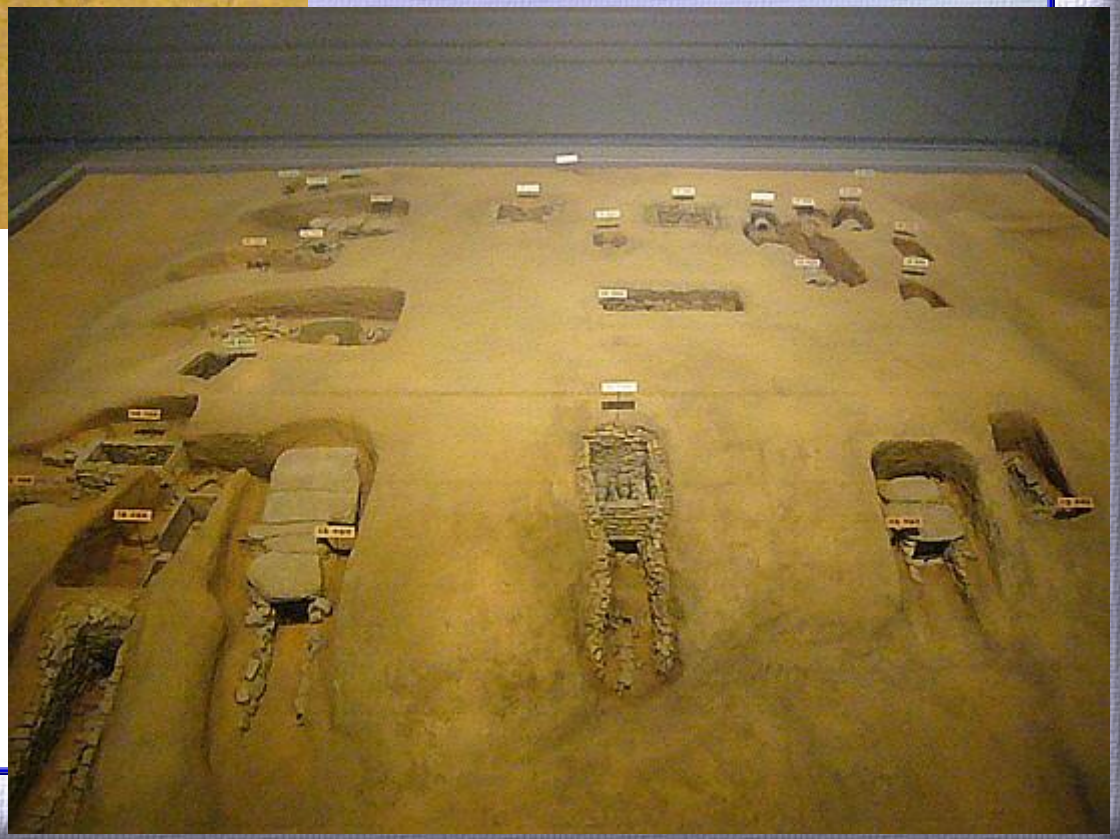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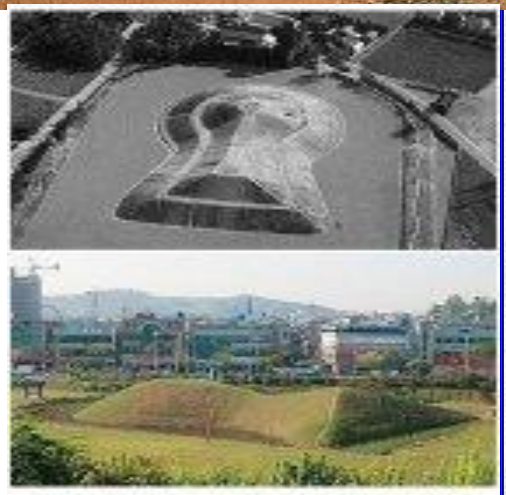
백 제-고 분-함평신덕고분











△ 장수 침계동 전방후원분(위 좌)과 일본 군마현의 전방후원분인 간논야마 고분(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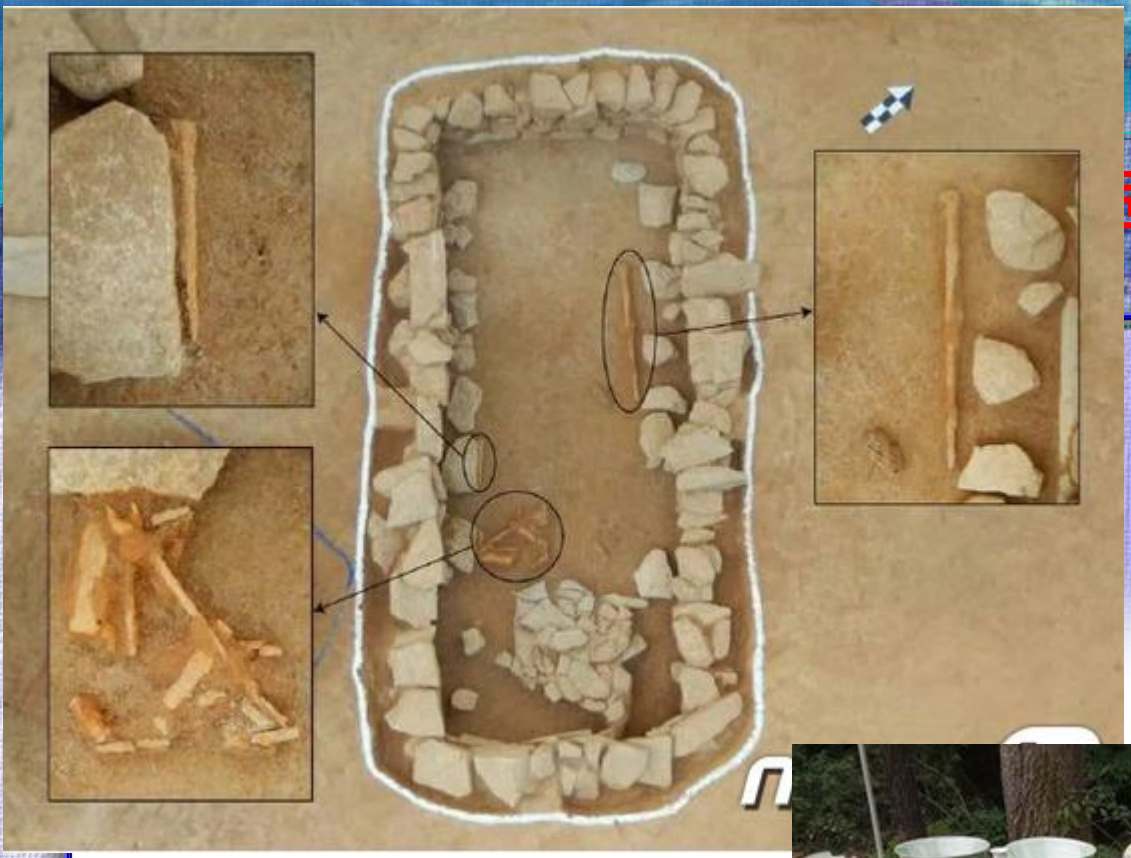
백 제-고 분



전남지방에서 출토된 원통형 토기.








new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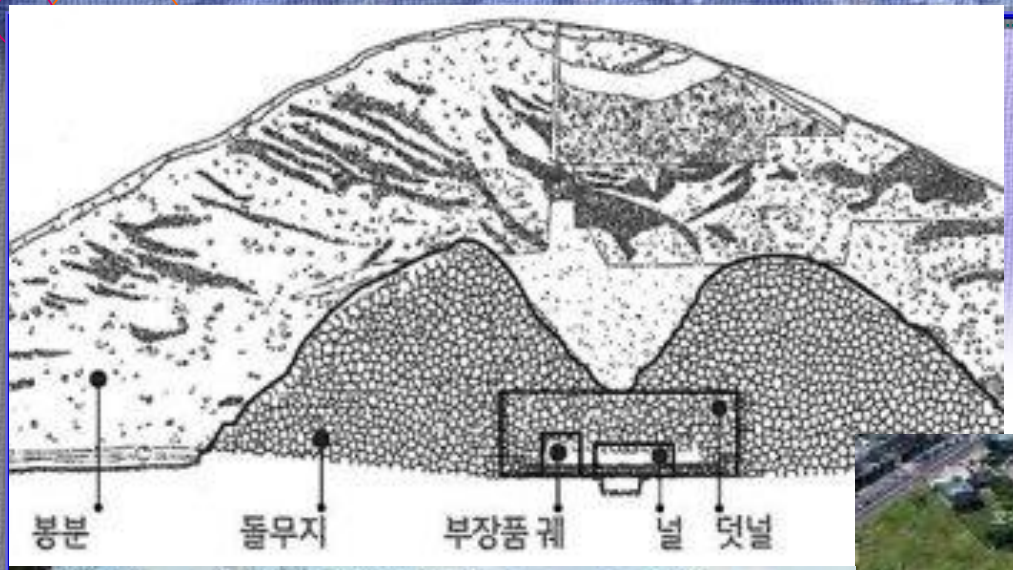
신 라-고 분

신라는 경주를 수도로 하여 오랫동안 존속했던 나라였고, 또 시기에 따라 영역이 확장되었으므로 신라고분은 시기에 따라 묘제와 고분 구조가 변천되었으며, 그 분포범위도 달라졌다.

수도 경주에서 중심 묘제의 변천을 기준으로 신라 고분문화의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신라국가 형성기인 조기(3세기 후반~4세기 전반)에는 경주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식 덧널무덤〔木槨墓〕가 축조되었고, 전기(4세기 후반~6세기 전엽)에 경주에서는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 당시 지배 영역인 낙동강 이동의 영남지방에서는 구덩식 돌덧널무덤〔竪穴式石槨墳〕과 앞트기식 돌덧널무덤〔橫口式石槨墳〕이 축조되었다.

후기(6세기 전반기~)에는 돌방흙무덤〔石室封土墳〕이 중심 묘제가 되었으며 6세기 중엽부터는 신라가 진출한 중부지방에도, 그리고 삼국통일 이후에는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의 한반도 전역에 신라고분이 축조되었다

신 라-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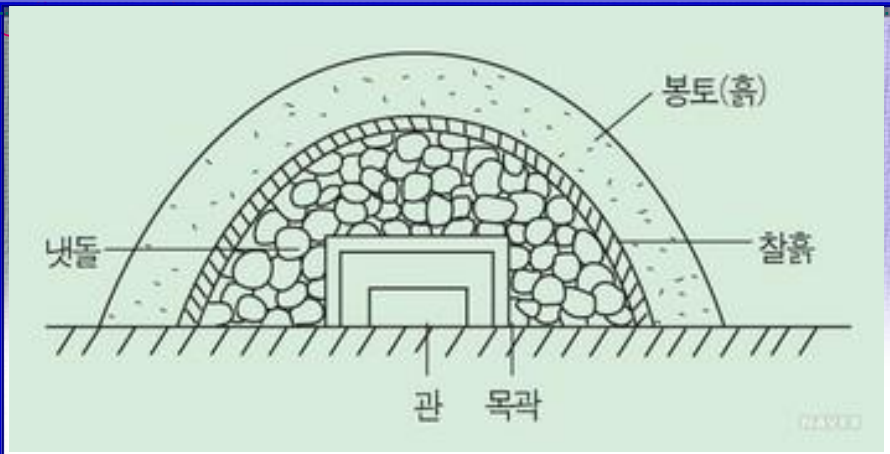








신 라-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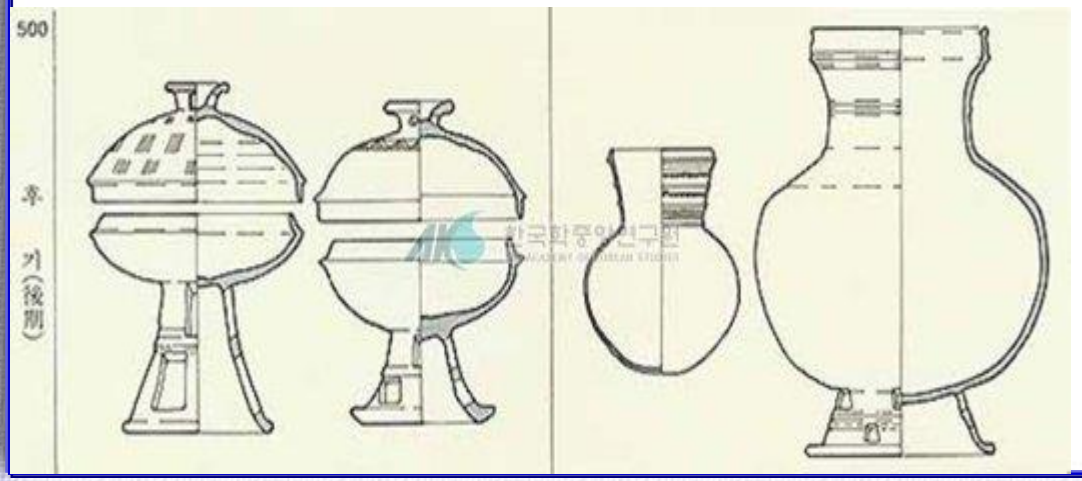



3
4
2
5
6
7
1
아시아뉴스통신

신 라-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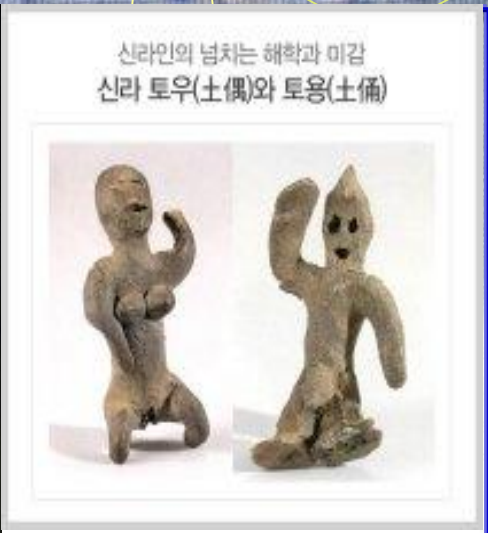




신 라-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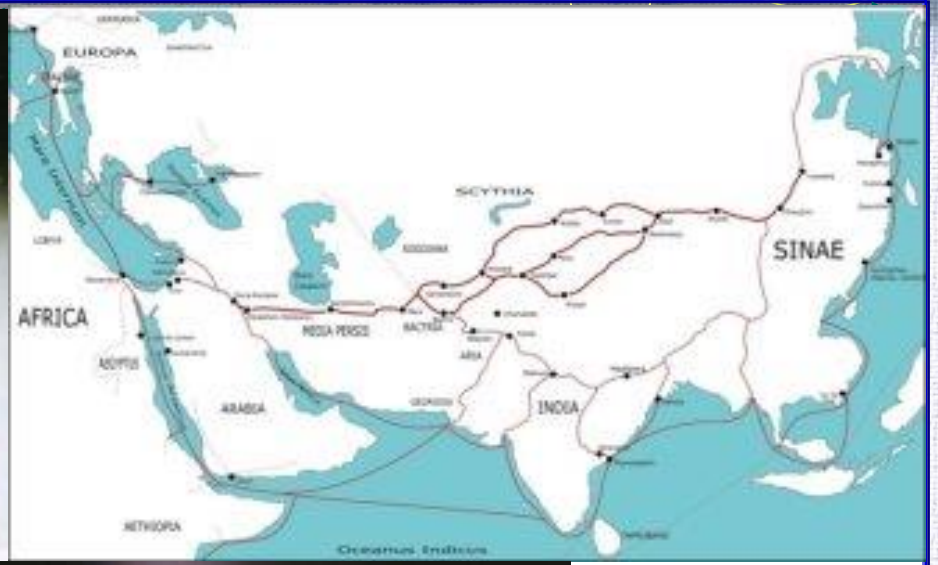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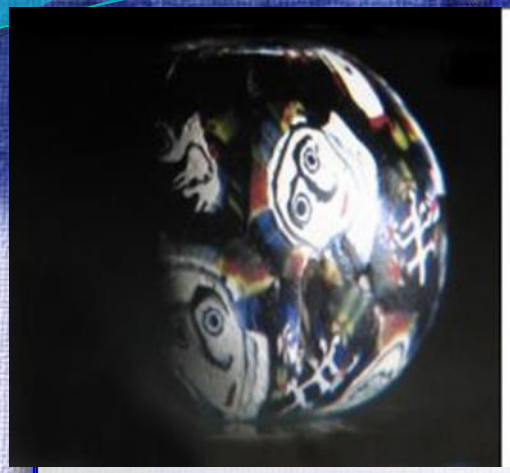
신 라-고 분




EUROPA
SCYTHIA
SINAE
AFRICA
INDIA
ARABIA
AETHIOPIA
Oceanus Indicus


KBS1 HD
파상문배
물결무늬 유리잔


KBS1 HD
봉수형 수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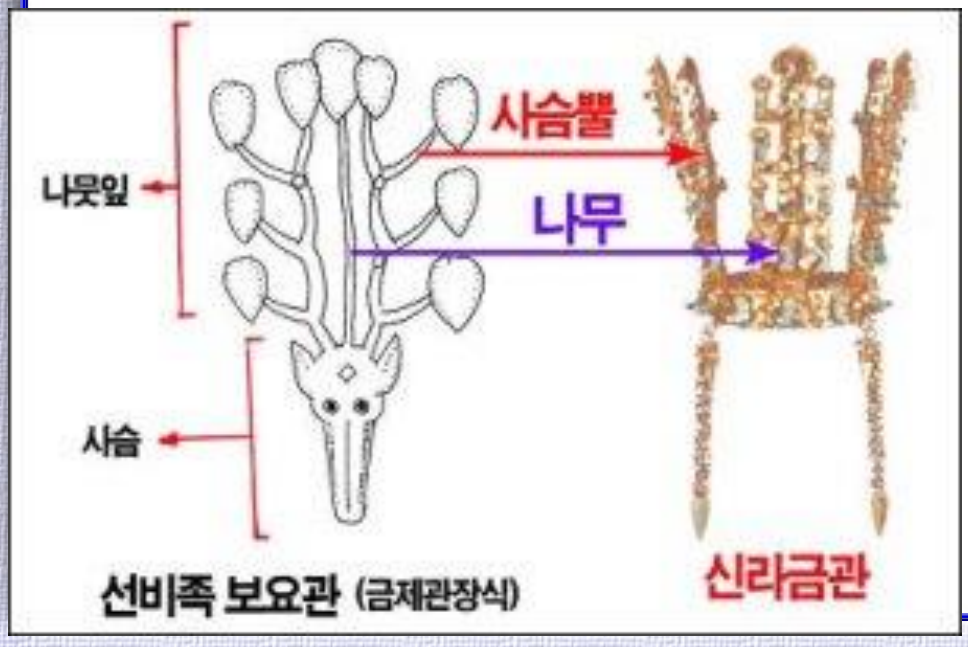
경주 미추왕릉지구 출토 목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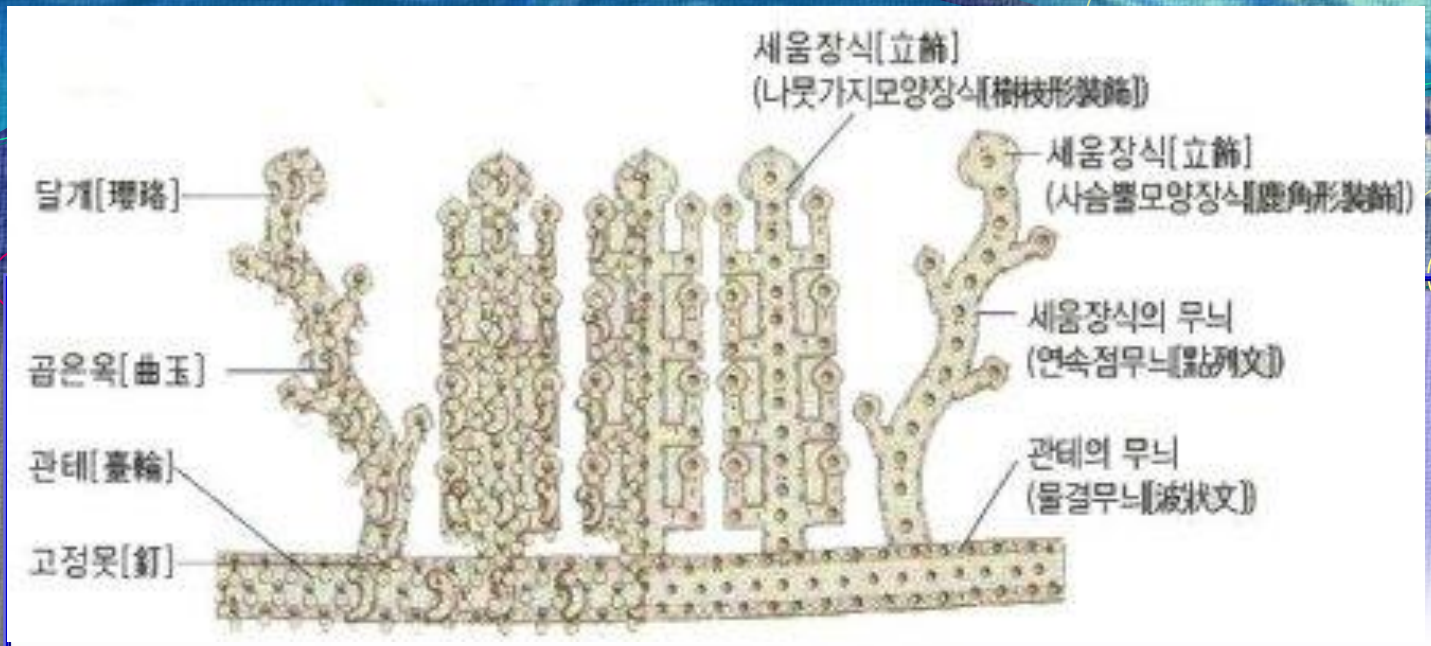







나뭇잎
사슴뿔
나무
사슴
선비족 보요관 (금제관장식)
신라금관




세움장식[立飾]
(나뭇가지모양장식[樹枝形裝飾])
세움장식[立飾]
(사슴뿔모양장식[鹿角形裝飾])
달개[環珞]
곱은옥[曲玉]
세움장식의 무늬
(연속점무늬[點列文])
관테[臺輪]
관테의 무늬
(물결무늬[波狀文])
고정못[釘]



<< 세계 7대 불가사의 >>

1. 중국의 만리장성 (베이징)

만리장성은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는데요, 그렇게 불릴만도 한 것이 총 길이가 지선까지 합쳐서 5,000 ~ 6,000 ㎞가 된다고 하네요. 이 성벽은 북쪽의 흉노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진나라 시황제가 증축해서 쌓은 성인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군사시설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장성'이지만 길이가 1만 1300리 정도 되어 그냥 '만리장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 세계 7대 불가사의 >>

2. 이탈리아 콜로세움 (로마)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인 콜로세움.콜로세움의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경기장'인데요, 플라비우스 왕조 때부터 건축에 들어가 이런 이름이 지어진 것. 그런데 현재는 비공식 이름이었던 콜로세움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탈리아어로 '거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콜레살레' 와 어원이 같다는 설이 있음.

콜로세움에서는 영화 글래디에이터(검투사)-막시무스(러셀 크로우)와 로마의 폭군 코모드스 황제와의 검투시합의 배경. 그리스도 박해 시절에는 신도들을 학살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고 함





<< 세계 7대 불가사의 >>

3. 페루의 마추픽추

마추픽추는 페루에 있는 대표적인 잉카 유적으로 마추픽추는 케추아어로 '오래된 봉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어떻게 지어졌는지 산을 오르는 중에는 어느 각도에서든 이 마을(?)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지어졌다고 함. 그래서 스페인 정복 당시부터 그 이후까지 마추픽추가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1911년 미국의 어느 탐험가에 의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함. 이 곳에는 도시생활, 거주, 제사, 요새 등의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생활 공간으로 묘지까지 있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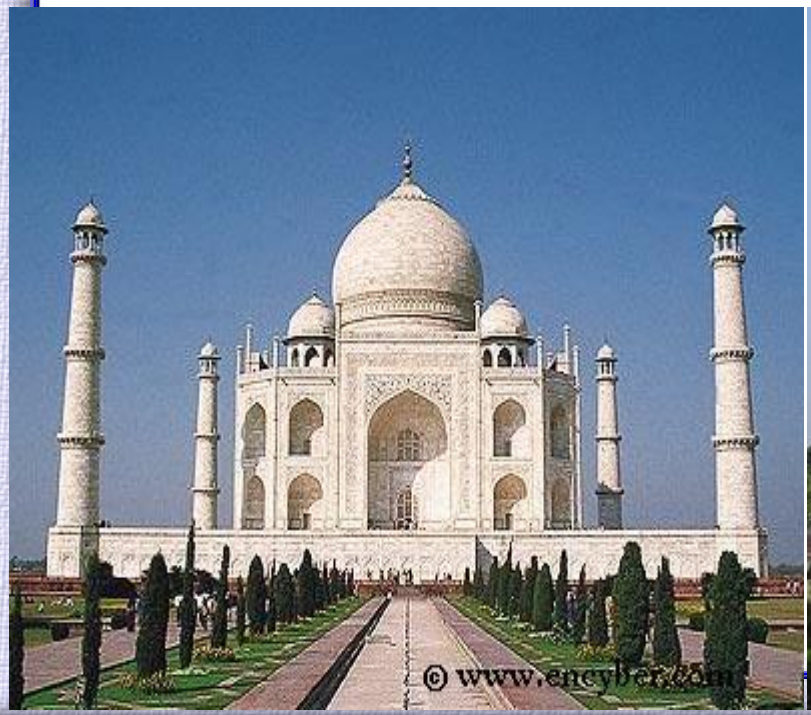




<< 세계 7대 불가사의 >>

4. 인도의 타지마할 (아그라)

타지마할은 인도의 대표적인 이슬람 건축물로 무굴제국의 황제였던 샤 자한이 왕비 뭄타비 마할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궁전 형식의 무덤. 이 황제는 왕비를 위하여 프랑스 등지로부터 전문가를 초빙하였고 기능공 2만 여 명을 투입하여 총 22년의 대공사를 하여 이 무덤을 지었다고 함. 타지마할의 하얀색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태양의 각도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번씩 그 색깔이 달라진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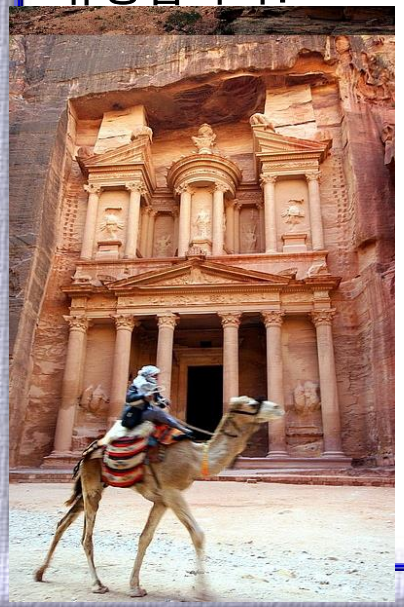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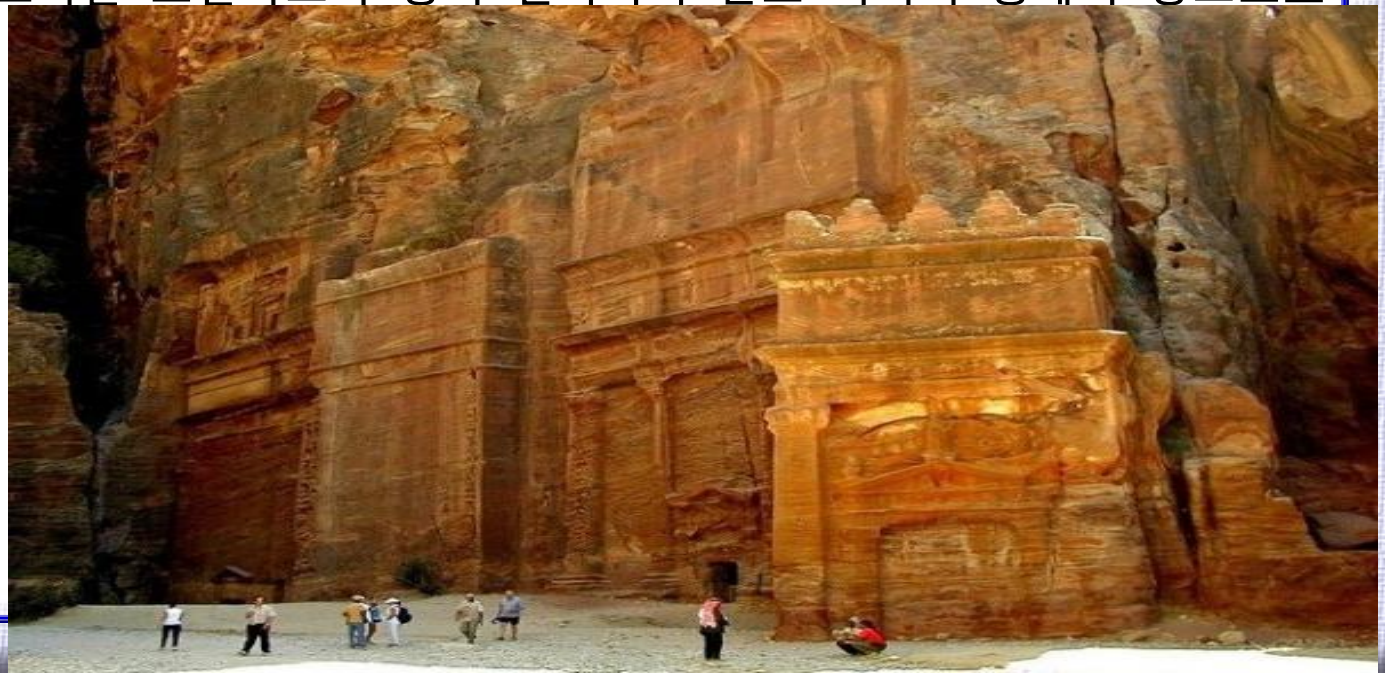


<< 세계 7대 불가사의 >>

5. 요르단의 페트라

페트라는 이집트, 아라비아, 페니키아 등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 선사시대부터 대상로를 지배하며 번영을 누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페트라는 그리스어로 '바위'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 생긴 것과 같이 바위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목생활을 하던 나바테이아인이 BC 7세기부터 페트라를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6세기 경 발생한 지진에 의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한 탐험가가 페트라에 엄청난 유적이 묻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랍인으로 변장을 하고 이곳을 찾아 나선 후 1200년 만에 잊혀졌던 페트라가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성배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 세계 7대 불가사의 >>

6. 멕시코의 치첸이트사 (메리다)

마야 문명의 대유적지로 1988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었습니다. 전체가 석회암으로 지어져 있으며 11세기 이후 마야 문명의 종교 중심지로 사용된 곳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5세기 이후 갑자기 폐허가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해골의 왕국에도 배경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 세계 7대 불가사의 >>

7. 브라질의 예수상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의 예수상은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산 정상에 세워진 것으로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한지 100년이 되던 해를 기념하여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브라질에 예수상이라니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규모는 높이가 38m라고 하구요, 전체 무게는 1,145톤 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네요. 게다가 기단 내부에는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도 있다고 합니다.



